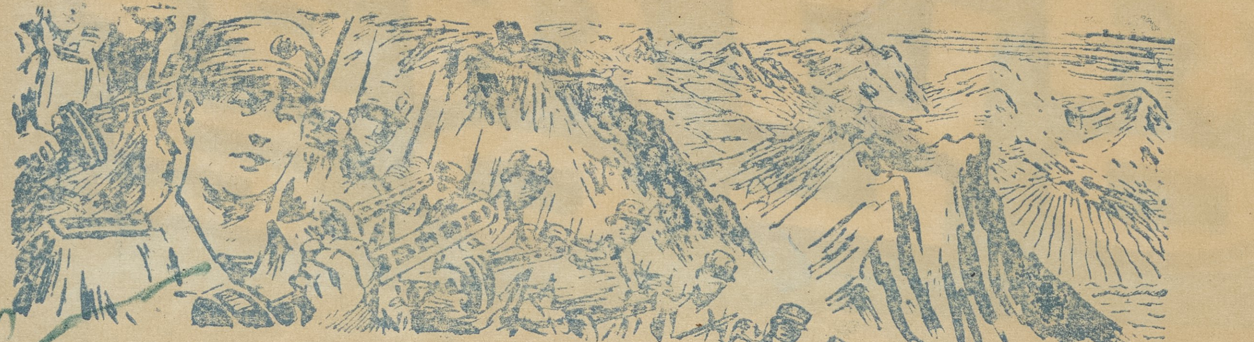
청년생활



一九四八년五월十一일제三종우편물인가
一九四九년七월十五일 발행 제二권 제七호

1949. 7



청년생활

(제二권 제七호)

목차



선언서

조선전체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들에게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친애하는 동포들!

친애하는 남북조선의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 당원들과 맹원들!

친애하는 형제자매들!

우리조국이 일본제국주의 기반에서 해방된지 벌써 근四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조국은 인공적 계선인 三八선으로 분렬된채 남아있다

이 四년동안에 우리조국의 남북은 각각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우리조국의 북반부에서는 민주건설이 성과있게 진행되였으며 또 진행되고있으며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이 실천되여가고있다

우리조국의 남반부에서는 반동도배들이 자기의 통치권을 수립하며 민주세력을 탄압하기위하여 온갖 대책을 취하고있다 경제적 방면에서나 정치적 방면에서 남조선은 점점 더 미국에 예속되어가고있다

누가 우리인민에게 통일을 방해하는가? 누구의 리익을위하여 이 분렬이 계속되는가?

우리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며 인민을 기만하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팔아먹으며 자기의 미국상전들의 리익과 자기의 정권을 보존하기위하여서는 조국과 인민을 망쳐먹기에 준비되어있는 그들의 주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다

우리민족은 마치 무지하기때문에 자기국가를 통치할수 없으며 자기국가를 발전시킬수없다고 우리를 모욕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근 四년동안이나 내려오면서 남조선을 원동에서 반민주 투쟁을 위한 자기의 군사 정치적 기지로 미국의 경제적 원천지로 월가의 독점자본가들을 배부르게하는 새 원천지로 전변시키려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또 계속실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국의 외교와 미정권 당국의전체노력은 四년동안을 내려오면서 이 제국의주적 략탈적 기도를 실천시킴에 목적을 두었던것이다

벌써 一九四五년말에 열리였던 모쓰크바 三국외상회의에서 미국대표단은 미국 중국 영국및 쏘련四개국대표들로 구성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 행정기관은 고등 판무관을 통하여 조선을 관리할 자기의 기능을 실행케하자고 제의하였다 이 미국제의에는 조선정부수립에 대한것이 예견되지아니하였다

우리조국에대한 사실상 이러한 위임통치는 미국초안에 의하면 十년까지 실천되여야 할것이였다

이러한 제의를 섭수하는것은 조선을 장구한 기간을 걸쳐 자기의 독립적 인민정권이없이 외국통치하에 있게 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 미국제의는 거부되었다 쏘련의 제의에의하여 모쓰크바 三상회의는 조선에 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며 조선을 독립국가로 부흥시키며 민주주의 기초에서 조선을 발전시키기위한 조건을 창설하며 조선에서 장구한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급히 숙청할것을 예견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을 조선인민이 자기의 수중에 틀어쥐고 우리인민 자체로 반드시 실천하자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 선언서에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결성 경축 평양시 군중대회▷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방해를주는 미군이 우리조선에서 즉시 철퇴할것을 요구한다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 선언서에서)

이 결정은 조선인민의 광범한 각계각층의 리익에 부합되는 결정이였다 그러나 이결정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우리국가에서 정권을 자기수중에 장악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국가관리에 참여하지못하게하며 국가를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발전되지못하도록 애쓰는 민족반역자들의 리익에는 부합되지않았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동분자들의 리해관계는 완전히 결합되였다

그렇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반동분자들과 동맹하여 모쓰크바 三상회의결정을 실천할목적을 가진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파탄시키기위하여 백방의 대책을 취하였던것이다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민족적 독립과 제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쏘련은 조선에서 쏘미 량국군대를 동시에 철거하고 미국과 쏘련의 원조와 참가없이 우리조선인민에게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자기손으로 수립할 가능을 주자는 제의를 함으로써 우리조국의 통일을위한 길을 또다시 열어놓았다

우리조선인민은 우리의 민족적 리익에 부합되는 쏘련의 이 정당한 제의를 한결같이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 제의를 거부하였다 그것은 이 제의가 미제국주의자들과 조선반동분자들의 리익에 반대되는 까닭이였다 미국정부는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비법적으로 넘길것을 강조하였다

유•엔총회는 조선인민의 의사도 듣지않고 쏘련대표들과 제민주주의국가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압에 의하여 소위 「림시 유•엔 조선위원단」을 창설하였다 미 침략정책의 도구인 「유•엔 조선위원단」은 그의 매조와 비법적 활동에 격분된 우리조선인민들의 리익을 반대하여 활동함으로써 조선에서 완전히 실패하였다

미국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대표들이 참가하지않은 소위 비법적 유•엔 「소총회」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할데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우리조선인민의 절대다수는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뽀이꼬트운동에 총궐기하였다 오직 폭력과 공개적 무력수단에 의하여써만이 미 군정당국과 반동분자들은 一九四八년 五월十일에 남조선에서 소위 「선거」를 위조하고 이 위조 「선거」의 결과 소위 「국회」와 조선인민의 악독한 원쑤이며 사형리인 리승만을 괴수로한 단독괴뢰정부를 수립하였다

소위 「국회」는 립법기관과는 비슷치도 않은 가련한 존재이다 이 「국회」는 조선인민을 대표하지못한다 「국회」에는 한명의 로동자나 한명의 농민도 선거되지 않은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남조선인민의 절대다수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한명도 없는 까닭이다 남조선 소위 「국회」는 대지주 자본가 일본총독부관리등 친일파 민족반역자 및 인민의 원수들 다수로 구성된 집단이다

미 정권당국의 비호하에있는 리승만도배들은 자기들의 반역적 죄악을 립법적으로 성문화하기위하여서만 「국회」를 창설한것이다

리승만도배들은 「국회의원」중에서 미군철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여 나서는 자들을 투옥하며 一부 「국회의원」들이 리승만 도배들의 반역적 정책을 반대하는 조그마한 시도라도 잔폭하게 진압하고있다

미국정부는 조선에대한 자기의 침략정책을 형식적으로 시인받기위하여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또다시 상정시키였다 유•엔총회는 미국대표단의 강압에의하여 우리조선인민의 진정한 대표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절하고 조선에도 소위 「신유•엔조선위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던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조선인민의 진정한 대표가 유•엔총회연단에 올라서서

남조선단독선거와 우리조국에 조성된 실지정세에대한 진실을 전세계에 성로하며 조선에서 미국의 침략정책을 폭로할까 무려워하였다

미국사람들과 민족반역자들은 우리조국의 남반부를 무엇으로 변하게하였는가?

미정권당국과 조선반동분자들의 통치 四년동안에 남조선은 민주주의운동을 반대하는 테로 추종탄압통치의 횡폭한 무대로되였다

남조선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가없다

민주주의적 제정당 사회단체들은 지하로 구축되였으며 그들의 출판기관은 파괴 분쇄되였다

인민의 숙망을 진정으로 표현하는자들은 남조선에서 무재판 무심사의 총살을 당하며 체포되며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있다

일본이 투항한후 三주일이 지나서야 조선에 진주한 미국사람들은 우리강토에서 한명의 일본군인도 축이지않고 그대로 남기어 놓았다

그러나 미국사람들의 지시에의하여 남조선에서는 민주개혁과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인민적위업을 위하여 투쟁한 수만명의 애국자들은 총살되며 투옥되며 고무을 당하고있다

미 정권당국과 민족반역자들의 통치의 결과 남조선의 경제는 계속파탄되며 공업생산은 지금까지 계속저하되고있다

미 독점자본가들은 소위 「경제원조」타는 미명하에서 남조선을 자기들의 잉여상품의 판매시장으로 리용하고있다 이러한 「원조」의 결과 남조선의 거리에는 수백만의 무직업자와 걸인의 떼들이 방황하고있다 농촌 경리는 퇴보되어가고있다

우리조국의 곡창 남반부인민들은 할수없이 기근과 반기아에서 신음하고있다 리승만 괴뢰 「정부」에 모인 반역도배들은 자기들의 상전인 미 제국주의자들과 각종 「협정」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과 「협약」에 의하여 남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미 자본가들에게 예속되고있다

반역도배들이 실시하고있는 남반부를 예속시키는 정책은 전체조선인민의 격분을 환기시키지않을수없다

우리 조선인민은 쏘미량국정부에 보내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요청서에 제기한 우리 조선인민의 요망을 쾌히 응락한 쏘련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쏘련군대가 북조선으로부터 철퇴한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계속주둔하고있는데 대하여 더욱 격분되어있다

인제는 미국정부에게는 남조선에 자기군대를 계속주둔시킬 아무런 구실과 조건도없다

전체 조선인민은 우리조국의 통일을 장해하는 미군의 철거를 위하여 투쟁하면서 민주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조선인민의 정당한 이 사업에 있어서 쏘련은 우리 조선인민에게 무한한 원조를 주고있다

조선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계단을 통하여 쏘련이 실시한 정책은 우리 조선인민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一九四五년 모쓰크바 三상회의에서 쏘련대표단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고수하여 미국대표단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조선문제에대한 쏘미 공동위원회사업에 쏘련대표단은 조선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三상회의 협정원칙을 시종일관하게 꾸준히 주장하였다 모쓰크바 三상회의 협정실천이 불가능하게되자 쏘련정부는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할것을 주장하고 자기군대를 솔선 철거함으로써 실지에있어서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자기의 정책을 보이어주었다 쏘련정부는 우리조국의 통일과 민주와 독립에대한 조선인민의 권리를 언제든지 주장하였으며 또 계속주장하고 있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미 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은 자기들의 탐욕적 목적을 위하여 우리조국의 분렬을 영원히 계속시키려고 시도하고있다 조국의 통일문제를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될때가왔다

그것은 四년동안이나 계속한 조국의 분렬이 우리 조선인민에게 참을수없는 불행을 점점 더 가져오고 있는때문이다

통일적 민주조선은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조선인민의 리익에 부합되게 자기의 경제를 발전시키게될것이다 지금 파괴적 상태에있는 남조선의 경제는 북조선의 경제토대에 기초하여 급속히 부흥되게 될것이다 경제관계에 있어 남북조선이 호상련결된 통일체라는것을 누가 모르는가?

북조선인민들의 성과는 통일적 민주주의 조선독립국가가 어떻게 급속히 발전될수있겠는가 하는데 대한 모범으로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비호하에서 우리조국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있는 반동분자들은 민주주의 기초위에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원하지않는다

리승만도배들은 군대를 준비하며 자기의 미국상전들에게서 군기를 요구하고있다 리승만도배들은 동족상쟁의 내란을 조발하려하며 민주와 통일을 위한 투사들을 피의바다에 잠그려고하고있다

우리조국 남반부에서 테로와 추종은 날이갈수록 더 혹심하여가고 있으며 인민을위하여 싸우는 수만명의 사람들이 죽고있다

우리조국의 민족반역자들의 상전인 미제국주의자들은 민주운동을 진압할 목적으로 동족상쟁을 조발시키는 경험을 풍부히 가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의하여 중국과 희랍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치렬하여가고있다 지금 그들은 조선인민을 피의바다에 잠그려고 시도하고있다

그들은 조선반동분자들을 전쟁에 광분하도록 충동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소위 남조선 『국방군』이 매일같이 三八선에서 충돌사건을 조발하는것이 우연한 일이아니다

제주도인민들과 전라남도 유격대들에게 대한 탄압과 三八선 충돌사건을 충동하고 조직한 자들이 미국사람들이며 그들의 주구 리승만 망국도배들이다

우리인민은 동족상쟁을 원치않는다 우리인민은 미 독점자본가들과 그들의 앞에서 당황망조한 민족반동분자들의 리익을위하여 피를 흘리려고하지않는다

조선인민은 자기손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시키려하며 또 통일시킬수있다

우리조선인민을 분렬할수있겠는가?

물론없을것이다

조선인민은 언제든지 하나이었으며 하나이며 또 하나로될것이다

우리조국과 우리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한 이시기에 남북조선의 진정한 전체애국자들과 제정당 사회단체 당원들과 맹원들은 그들의 재산여하와 사회적지위와 정견여하를 불관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총결집하여야 하겠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천할것을 남북조선의 전체민주정당및 사회단체들과 설체 조선인민에게 호소하며 하기의 평화적 통일방책을 제의한다

一、조국의 평화적통일사업을 조선인민이 자기의 수중에 틀어쥐고 우리인민 자체로 반드시 실천하자

二、우리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방해를 주는 미군이 우리조선에서 즉시 철퇴할것을 요구한다

三、우리는 비법적기관인 소위 『유。엔조선 위원단』이 우리강토로부터 즉시

물러갈것을 요구한다

四、우리는 남북조선을 통하여 통일적 립법기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것을 제의한다

五、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선거를 실시하자

六、조국의 평화적통일계획을 토의하기위하여 남북조선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에서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하자

七、립법기관선거는 一九四九년九월에 실시하며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비밀투표의 원칙에서 실시하자 일본통치시대에 일제와 열성적으로 협력한자들은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八、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은 대책들을 반드시 실시하자

가、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그의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할것

나、전체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며 그들에게 자유적 활동권을 보장할것

다、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 출판기관들의 폐간에 대한 지령을 취소하고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에게 자기의 출판기관을 가질권리를 보장할것

라、언론、출판、집회、군중대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것

마、전체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할것

九、선거지도위원회는 다음과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남북조선에 현존하여있는 정부와 그의 기관들에 선거준비와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지시들을 줄것

나、자기의 결정과 지시실행을 검열할것

다、선거지도위원회가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에서 외국군대의 철거를 감시할것

十、총선거 지도위원회의 구성과 합께 남북조선에 현존하여있는 경찰 보안기관들은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 관할하에로 넘어온다

선거지도위원회는 경찰대로부터 친일파 일본경찰과 헌병대에 복무하던 자들을 제대시키며 제주도인민항쟁과 남조선 유격운동탄압에 참가한 경찰대들을 해산시킨다

十一、총선거의 결과에 수립된 최고립법기관은 조선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며 그헌법에 기초하여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는 남북조선에 지금 현존하여있는 정부들로부터 정권을 접수하며 그정부들은 해산된다

十二、남북조선에 현존하여있는 군대들은 민주주의 기초우에서 조선공화국정부가 련합시킨다 제주도와 기타 지대들에서 인민항쟁과 빨찌산운동탄압에 참가하였던 남조선 『국방군』부대들을 해산시킨다 인민항쟁과 빨찌산운동진압에 참여하였던자들에게는 군대에 복무하는것을 금지하며 이 탄압을 추동한자들과 조직한자들은 처벌을 당한다

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와 전체인민들에게 제기하는 우리의 평화적 조국통일계획은 이러하다

우리는 전체조선인민들이 우리의 제의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리라고 확신하는바이다

만일 반동이 고집하고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하는때에는 그는 조선인민의 처단을 면치못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조국의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장해를주는 모든 놈들을 자기의 길에서 능히 소탕할것이다

통일적 민주주의독립조선만세!

영원히 통일된 조선인민만세!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결성대회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강령

독일파시즘과 일본제국주의의 격멸로 제二차 세계대전은 종국되었으며 그결과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해방되었다

조선인민에게는 자기의 민족자결권을 실천하며 통일적 조선민주주의 독립국가를 수립할수있는 가능이 조성되었다

조선에관한 모쓰크바 三상협정에는 조선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급속히 수립할것과 또는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조선인민에게 줄 동맹국들의 원조가 예견되었다

그러나 북미합중국정부의 배신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쓰크바 협정은 실천되지 못하였다

이결과 조선이 일제통치에서 해방된지 벌써 四년이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국토는 의연히 남북으로 분렬되어 있다

북조선에서는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우리 조국의 발전을 보장하며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장구한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숙청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수준 향상을 보장하는 제반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아무러한 민주주의적 개혁도 실시되지않았으며 민주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 테로제도가 횡행하고 있다

一九四八년초에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하고 우리 조선인민에게 동맹국의 원조와 참가없이 자기의 국내문제를 해결할수있는 가능성을 주자는 쏘련의 제의는 조선인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그것은 이 제의가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세하에서 조선문제를 가장 용이하고 정당하게 해결할수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북미합중국정부는 이 제의를 거부하였다 북미합중국 정권 당국은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또는 원동에서의 북미합중국의 군사전략상 기지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들이 우리 조국을 분렬하여 그 남반부를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키려는 정책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위한 광범한 전 인민적 운동을 야기시키었다 이 운동의결과 一九四八년 八월에 조선 최고인민회의의 총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조선 최고인민회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공화국 련립정부를 수립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인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조선반동분자들은 조선 분활정책을 실시하면서 남조선에 조선 반동분자들과 조선민족 반역자들로 괴뢰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괴뢰정부는 자기들의 상전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민주운동을 반대하여 탄압 테로 정책을 실시 하고있다 인민과 고립된 남조선 괴뢰 정부는 미군의 지지가없이 홀로 인민과 남아있기를 두려워한다

조선으로부터의 쏘련군대의 철거와 조선인민의 정당한 요구에대한 쏘련의 확고한 지지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한 조선 인민들의 투쟁에서 강력한 힘으로 된다

조선에서 북미합중국 정권 당국이 실시하고있는 제국주의적정책과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지하에서 조선 반동분자들이 남

조선에 창설한 테로제도는 조선 인민을 예속시키며 그의 창발력과 창조적 기능을 말살시키려는 목적을 가진것이다

우리 조국이 앞으로 계속 분렬되어있는다면 조선 인민에게 막대한 위험을 가져오게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며 국가의 민주발전을 보장하며 봉건적 잔재를 숙청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업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一、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즉시 철거케하며 소위 「유·엔 위원단」을 물러가게하고 조국의 완전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

二、통일을 방해하는 조국의 반역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을 급속히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인민들의 총력량을 동원한다

三、우리 조국의 북반부에서 이미 실시된 민주개혁들을 一층 확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四、一九四八년 八월 二十五일 총선거의결과 수립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며 조선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활동을 협조한다

五、전 조선적으로 광범한 민주개혁을 실시하며 전체 조선 인민에게 공민의 동등권과 언론、출판、집회、시위、결사의 유와 신앙의 자유등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六、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조선 반동분자들에게 의하여 탄압당한 인민들의 치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며 그 합법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七、일본국가 일본인 개인 법인및 조선 인민의 반역자들에게 소유되었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는 원칙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위하여 투쟁한다

八、일본국가、일본인개인、법인 또는 조선인 반역자들에게 소유되었던 산업 및 기타 기업소들의 국유화를 남조선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九、남조선에서 민주운동에 대한 탄압과 테로를 반대하여 남조선 감옥들에 투옥된 애국자들의 석방을 위하여 투쟁한다

一○、쏘련과 민주주의 중국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들과 및 기타 자유애호국가들과 친선관계를 발전 강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一一、일본을 제국주의적 일본으로 부활시키려는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一二、침략적 동맹을 조직하며 새전쟁 조발목적을 가진 제국주의국가들의 정책을 반대하며 평화와 국제적협동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一三、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조선 인민속에서 문맹을 퇴치하며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일본제국주의의 사상잔재와 기타 온갖 반 민주주의적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 ☆ ☆ ☆ ☆ ☆ ☆

공화국 남반부
토지개혁실시와 청년

일 민

공화국 중앙정부내각은 『공화국헌법과 공화국 정부의 정강에 기초하여 공화국 남반부에있어서도 속한시일내에 공화국 북반부에서와 같이 토지개혁을 실시하여야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지난 五월九일 『공화국 남반부의 토지개혁실시를 위한 법령기초위원회 조직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한 후 전체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리에 이 사업을 성과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 결정은 중세기적 암흑속에서 신음하는 남반부 농촌청년들을 자기들의 부형들과함께 해방시키는 투쟁적 대책이며 그들에게 새 희망과 광명을 던져주는 동시에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에 집결된 전인민적 승리를 일층 촉진시키는것이다 이 결정은 또한 『남반부 전체 농민들의 가장 적절한 요구에 수응한것이며 농민들은 이를 지지환영할뿐만 아니라 남반부 토지개혁실시를 위하여 결사적으로 싸울것입니다』라고한 전농중앙위원회의 성경에 표현된 바와같이 남반부 전체농민들과 농촌청년들의 의사의 반영인것을 확인할수있는것이다 오늘 남반부 토지개혁실시의 력사적거사를 맞이하여 우리는 문제를 력사적으로 간단히 고찰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경제적 해방은 민족해방과 밀접히 결부된 문제이다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투쟁을 조선혁명의 중심과제로 간주하고 이 전선을 영용히 밟아온 우리나라 선진투사와 청년들의 앞에는 항상 토지개혁 즉 토지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갈망하여온것이다 우리나라 전인구의 七○%는 농업인구며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농업이 점하고 있는것이 아직까지의 현상이다 식민지 착취와 봉건적 수탈에 거듭되는 신음을 강요당하던 조선 농민의 과거는 문자그대로 농노였다 경작지의 령세성, 농민의 말할수없는 빈곤, 그리고 농업기술의 원시적상태 등등은 농업생산력을 극히 빈약한 정체상태에 빠뜨린 일제통치의 결과였던것이다 그러기때문에 토지개혁은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력사적인 지망이었다 우리들은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만 봉건적 질곡을 제거하고 경제적자립을 보장할수있으며 농민들의 정치적 열성과 애국심을 고취할수있으며 반동지주의 경제적 기반을 숙청하고 인민적 새 질서를 확립할수있을뿐만아니라 농업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올수있으며 나아가서 공업의 발전을 기할수있다는 사실을 력사의 경험에서 확인한바이다

토지문제의 인민적 해결을 위한 투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몹시 긴 력사를 가지고 있다 리조봉건지대의 수차에 걸친 농민전쟁의 례는 그만두고라도 일제식민지통치하 조선인민의 이 투쟁은 격렬하였던것이다 일제는 조선농촌을 놈물의 원료공급지, 식량보충지, 그리고 과잉인구의 이식지로서 간주하고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내기에 온갖 략탈적 방법을 썼던것이다 그러기에 위대한 로씨야十월사회주의혁명의 영향을 받은 이후 특히 치결하여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구호에는 항상 토지문제의 인민적해결이 제기되었던것이다 특히 조선인민의 해방투쟁을 끊임없이 고무추동하신 김일성장군은 一九三五년 만주에서 조국광복회를 창설하고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시면서 그 十대강령을 선포하신바 그중에는 『일인 및 매국적 친일분자의 전재산 토지를 몰수하여 혁명운동의 경제의 기금에 충당하며 빈곤한 동지를 구제하고』 『일제 채무, 각종세금, 전매제도를 취소하고 대중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공동상업을 장애없이 발전시킬것이다』고 기록하였다 그러기에 이때를 전후하여 녀욱 고무 저려된 농민들은 一九三四년에 전라도 남하이도 소작쟁의가 一八○○건이나 있었으며 一九三五년 十개월간에 七二○○건의 소작쟁의가 있었던것이다

우리조국을 누구보다도 가장 자랑하고 피로써 지켜오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행동강령으로서 『지주、고리대、주식회사、총독부소유의 모든 토지 및 용지삼림、목장등을 무상몰수하여 이를 농민위원회를 경유하여 분배하고 근로농민대중에게 사용케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위하여 꾸준히 투쟁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있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는 조국이 해방된 그순간、더욱 현실적으로 제기되었다 당시의 조선공산당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 제정당과 사회단체 특히 청년단체들의 강령에는 반드시 무상몰수 무상분배원칙에 립각한 토지문제해결이 기록되었다

친일주구집단 『한민당』 까지 『토지문제의 합리적 재편성』이라고 기만적인 어구를 쓰지않으면 안될만큼 토지문제해결은 전인민적 지향으로 되었던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전후 조선문제해결에서 가장 정당한 국제적 로선이였던 모쓰크바 三상회의결정에도 『조선을 독립국가로 부흥시키며 민주주의원칙우에 국가가 발전할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또한 장구한 가간 일본의 조선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청산하고 조선의 공업、교통、농업、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방책을 시행할 목적으로 림시 조선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할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을 예견한것이다

우리나라 북반부에서는 이원칙에 서서 토지개혁이 실시된지 이미 오래다 일제 및 친일파와 五정보이상의 조선인 지주에게서 무상몰수한 九六만여정보의 토지는 토지적고 토지없는 六八만여호의 농민에게 무상분배되었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자만이 가질수있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실시됨으로써 수천년래 조선력사발전의 고질이던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는 청산된것이다 三五만九五○○여명의 청년들이 선전원으로서 또한 一만二천여개의 농촌위원회 위원과 공작원으로서 二二만八천여명의 청년들이 이사업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땅의 주인으로 된 농촌청년들은 一○%ー二七%의 농업현물세제의 보장과 아울려서 자기물의 해방된 재 생활을 노래하고 『한치의 땅 한고랑의 땅이라도 묵이지말자』 『식량이 부족하던 북조선을 식량이 여유있는 북조선으로』 라는 애국적 구호밑에 생산의욕을 고도로 제고시켜 이미 경지면적과 생산량에서 일제시대수준을 릉가하였으며 경이적 재 성과들을 쟁취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남반부의 사태는 전연 판이한것이다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의 파탄으로부터 시작하여 五・十망국단선을 강행하고 리승만 괴뢰 『정권』을 위조한 미제와 그주구반역도배들은 민주개혁의 기본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지않았다

농촌경리를 고의로 파탄시키며 경지면적과 생산량을 저락시킴으로써 놈들의 잉여농산물을 처리하는 시장으로 간주하는 미제에게 토지개혁의 실시를 기대함은 물론 어리석은 잠고대에 불과한것이다 남조선의 총경지면적 二四八만一四八八정보중 六三%는 농업인구의 三、四%에 불과하는 지주가 독점하고 나머지 三七%의 토지는 九六、六%의 농업인구가 경작하고있는 형편이다 지난 三년간에 경지면적은 一九四四년에 비하여 三一%나 감소되었고 미곡생산에있어서는 一九三○ー一九三六년평균에 비하여 一五○만석이 감소되었다 『땅을 달라』는 남반부청년과 농민들에게 미제와 그주구들은 각종기만적이며 교활한 술책을 썼으며 로골적인 탄압을 하였다 三・一제 소작료 규정、공출제、신한공사로부터 중앙토지행정처를 거쳐 최근의 소위 농지개혁법에 이르는 각종 기만수단이 즉 그것인것이다

해방직후、남반부 농민들은 초보적인 요구로서 三・七제소작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一九四五년 十월五일、미군정은 소위 『최고소작료결정건』이란 법령 九호를 발표하여 三・一제를 실시한다고 선언은 하여두고 실지는 五ー七할까지 소작료를 받게하며 심지어 소작권자체의 법적보장까지 히여치 않았다 그들은 미곡수집령 특히는 일제때에도 없던 하곡수집까지 가혹하게 강행하였다 一九四六년으로부터 작년도까지 추곡수집에있어서 四一九만석、五一五만六천석、七五○만석、하곡수집에있어서는 六一만九천석、六九만九천석、七五만석을 강탈하였다 『남조선의 대지주는 미

국인이고 온갖 정치요인은 일제의 전범자들이다」라고 한ㅣ지의 맥프 미인(米人) 제임스시게트가 이미 一九四七년 十一월五일에 폭로한바와 같이 미인은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 최대의 지주로 등장하였다 一九四六년 二월二一일부 법령五二호로써 공포된 신한공사령이 즉 그것이다 조선에대한 일제의 경제적 침략의 본영인 「동척」의 정체를 우리는 잘 알고있거니와 동척의 간판을 신한공사로 바꾼 미군정은 일제가 소유하였던 기본산업의 七四%와 三〇여만 정보의 경작지를 신한공사에 독점시키고 一九四五년 九월부터 一九四七년 三월까지 이미 二五억四四만여원의 순리익금을 획득한바 이는 모두 전남 하의도 농민학살사건과 같이 무고한 농민들을 학살하면서 그들의 고혈을 짜내어 얻어진 리익금들인것이다 전인민적 증오와 배격을 받은 신한공사는 다시 작년 三월二二일 소위 「파도정부」 一七四호법령으로써 토지불하를 유운하고 불과 二七만五천여정보의 일인토지를 四四만四九四四호의 막대한 농가에 유상불배한다고 떠들었다

一 미곡수탈에있어서 매입가격과 생산비간에는 현격한 차액이 있는 사실이라든가 또한 一九四六년도만 하여도 강제수탈의 불응자 八六〇〇여명을 검거하였다고 러ㅣ치가 발표한 사실이라든가 추수기와 할곡기에 테로단으로 구성된 농촌별동대를 파견하여 이동재판소를 설치하는등 악랄한 방법으로써 농민을 감금하고 一〇〇ㅣ천원의 속박료까지 강탈하는 만행은 더 참을수없는 현상들인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제적원조를 받기위하여서는 미곡수집이 계속되어야한다 불연이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것이다고한 미국특사 조병옥의 전보에접한 리승만은 금년봄에 들어와서 소위 미곡매입에있어서 강권발동문제를 국회에서 결의하고 쌀가진자는 「위범자」로 규정하니 이는 일찌기 一九四七년一〇월二七일 리승만괴뢰「정부」각원 및 각도지사련석회의에서 기한내 강제공출을 완납하지않으면 소작권을 박탈하고 비국민으로 취급하며 五년이하의 징역과 五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결정을 더욱 가혹히한것이었다

이와같이 략탈한 량곡을 원수들은 어떻게 처분하였나? 그것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일본제국주의의 재생을 위하여 일본에 수출하였나니 벌써 一九四六년에 三〇〇만석, 一九四七년에 八〇〇만석을 수출한것이다 이렇게 농민의 고혈로된 미곡은 외국으로 강제수출되는 반면에 一九四六년도 五월로부터 작년八월까지 량곡七四만톤 一六三억원 가격의 안남미 새우밀가루 옥수수 그리고 一九四七년도만하여도 四〇여원의 사탕등을 수입하여 강제활당하니 곡창 남조선에는 「풍년기아」가 들며 수백만의 집없고 굶주리는 요구호자(要救護者)가 거리에 헤매는 참상인것이다

토지개혁을 실시하지않는 그자들에게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사소한 대책이라도 기대할수는 물론 없었다. 작년도 괴뢰 「정부」에서는 토지개량자금으로 三九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六억四천만원을 출자하였을 뿐이고 작년가을 전남지방의 대수재로서 당국의 축소발표에의한 손실만하여도 인민사망이 一〇二三명 가옥파손 七四八四호 선박파해 一七六七척등 九〇억八四二만여원에 달하여 농민의 고초는 설상가상이었으나 당국은 이를 묵과하였으며 리승만은 「하나님 때문에 남한에는 대풍년이왔다」고 짖어대던것이나 五•十망국단선이후 리승만괴뢰도당이 정권을 장악하였다는 그때에 와서도 아직 토지행정처, 식량관리처, 적산관리처등은 미국인의 독점으로 남아있으며 소위 C•C•A•(씨、씨、에이)의 예속물로 되고있는것이다

토지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거세인 투쟁에 당황한 원수들은 금년봄 국회에서 소위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소위 「농지개혁안」을 토의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농민을 위한 토지개혁」이아니라 「지주를 위한 토지개혁안」이며 일제 시대의 자작농창설계획을 더욱 악질적으로 계승발전시킨 것뿐이며 농민들을 영원히 지주, 고리대, 모리배들에게 예속시키는 결박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마지막 팟쇼정책으로 넘어간 리승만괴뢰들은 근간에와서는 이것마저 유야무야하게 부인해버리고 있다

그러나 남반부인민과 청년들의 진정한 토지개혁실시를 위한 투쟁은 영용히 또 완강히 계속되었다 「북조선과 같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원칙에 의거한 토지개혁을 실시하라」는 요구는 「모든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는 투쟁적 요구와 함께 그들의 중심적 구호였다

더우기 조선의 정치경제생활에서 과거일제통치의 일체잔재를 철저히 숙청할것과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봉건적 토지잔재를 숙청하고 인민경제운영의 기본방향을 명시한 김일성장군의 二十개조정강은 그들을 더욱 고무격려하여 이 투쟁을 강화하였다. 그들의 정치경제생활에서의 극도의 궁핍에 못이겨 「앉아서 죽느니 서서 싸우자」라고 궐기한 영웅적 十월인민항쟁에 一〇〇만의 농촌청년과 농민들이 선진로동계급의 뒤를 따라 피로써 싸웠던것이다 「땅을 달라」「쌀과 자유와 독립을 달라」는 구호도 드높이 경북영천군의 례천 칠곡동 농촌 민애청원들은 반동지주들을 소탕하고 친일주구들을 처단하며 경찰서 행정기관을 점령하고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을 사수하면서 투쟁의기세를 충천시켰던것이다

작년二월 공화국헌법초안이 발표되자 남반부인민과 청년들의 정권쟁취와함께 토지개혁실시를 위한 투쟁은 더욱 고조되었고 북조선민전 二五차회의에서 「남조선반동적 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위하여」라는 김일성장군의 력사적연설은 그들의 투쟁을 새로운 계단에로, 올려세웠던것이다 「조선은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로 될것입니다」 「력사의 바퀴는 뒤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굶주리고 학대를 받는 불상한 남조선동포들은 벌써 미제국주의자들의 가면을 완전히 깨닫게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더한층 굳게 뭉칩시다」라는 호소에 그들은 궐기하였다 파업과 소작쟁의와 동맹휴학만으로써는 그들의 투쟁에 만족한 성과를 쟁취할수가 없었으니 투쟁은 새로운 단계ㅣ무장유격대투쟁으로 발전되었다

四월三일 제주도인민의 영웅적구국항쟁에 뒤이어 五•十망국단선의 완전파탄과 괴뢰국회 및 리승만괴뢰「정부」타도의 기세는 더욱 앙양되었던것이다

조선인민의 세기적투쟁의 결정체로서 남북조선의 총선거에 의하여(八•二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가 창설되자 그들의 애국적충성은 치렬한 구국투쟁속에 더욱 현저히 나타났다

이리하여 공화국헌법은 「전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수있다」라고 기록하였으며 다시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아니한 조선안의 지역에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남반부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튼튼한 승리의 담보를 주었으며 또한 공화국중앙정부정강에서 「남반부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기초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도록 보장할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투쟁을 치렬화시켰다

이리하여 인민정권회복과함께 토지개혁실시를 위한 그들의 투쟁은 현실적인 성과를 얻었다 작년十월 려수폭동사변에서 우리는 이를 찾아볼수있는것이다 十월二十一일, 오후一시 려수의 려사에서 처음으로 四만군중이 모인 인민대회석상에서 결정채택한 六개조항중에는 「려수의 모든 정권은 다수인민위원회에서 장악한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중앙정부를 절대 사수한다」와 함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즉시 실시한다」라고 지적되었었고 이를 二十六일까지에 완전히 실시한 사실은 남반부인민과 청년들의 력사적인 지망을 그대로 표시하여준것이었다

이때로부터 지리산 백운산 五대산 팔공산등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줄기 줄기를 타고 원수들을 진압하는 청년빨찌산들이 속속 해방구를 회복하여 인민정권의 확립과 토지개혁을 실시하고있다, 이미 구례, 광양, 하동, 함양, 산청, 거창, 무주등지대와 옹진부근에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이와같은 정세하에서 금번의 내각결정은 그들의 투쟁을 더욱 치렬히 결정적인 계단에로 인도하는것이며 승리를 촉진시킬것이다

공화국북반부청년들은 자기들의 유일조직인 민청강령에 기록된바 「남조선청년들도 북조선청년들과 같이 동일한 자유와 권리를 정치 경제 및 문화생활부문에서 보장받도록 하기위하여 투쟁한다」는 조항을 더욱 명시하면서 二개년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장엄한 건설투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반부청년과 인민들의 투쟁을 성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늘 력사적 전변의 시기에 처하고있다 미군철거 리승만괴뢰「정부」타도 조국통일과 국토완정을 위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에 전인민은 참가하여 영웅적 투쟁에 궐기하였다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강령 제七조에 명시된바와같이 남반부 토지개혁 실시는 오늘 우리청년들 앞에 가장 주요한 과업의 하나로 나섰으며 또한 청년들이 승리적 달성을 위하여 영용히 궐기하였다 그리하여 남반부 토지개혁실시를 위한 투쟁은 이미 착수되었으며 준비되고있다 봉건적 식민지적 착취와 노예의 기쇄가 우리나다 남반부에서도 영원히 단절되고야 말날이 바로 눈앞에 박두하였다

공화국 남반부 토지개혁의 실시는 우리청년들의 긴장된 투지를 더욱 가다듬고 사랑하는 조국 공화국의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끝―

동맹 조직사업 강화를 위한 동맹단체들의 과업

최 철 수

동맹 중앙위원회 제四차회의는 동맹조직사업 개선강화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동맹 중앙위원회가 오늘 동맹조직사업에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게되는것은 오늘의 조국정세로부터 출발하여 동맹앞에 제기되는 모든사업들을 수행함에 동맹조직을 일층강화하며 동맹사업에서의 제결점을 신속히 개선하며 모든 부면에서 우리 조직사업의 새로운 향상을 요구하기때문이다 동맹 제三차대회 이후 동맹 조직사업에는 물론 적지않은 개선들이 있었다

그간 동맹은 자기대렬내에 八六、二〇五명의 민주청년들을 새로 받아들이며 동맹내에는 열성분자들이 장성되었고 동맹원들의 조직적각성이 일층 제고됨으로써 제민주과업수행에서 동맹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항상 국가적 요구에 동맹원들의 자각적진출을 능히 보장할수 있었던것이다

동시에 대회이후 동맹단체들의 하급단체 지도사업은 적지 않게 개선되었으며 이것은 동맹의 지도가 동맹군중속에 접근되어가고 있다는것을 보이어 주었다 그러나 동맹중앙위원회는 우리동맹의 실제적 조직사업에는 부분적으로 결점들이 있었으며 그것은 동맹의 직과업수행을 보다높은 수준에서 원만하게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대회이후기간에 있어서 조직사업에서 나타난 부분적 중요결점들은

첫째로 一부동맹단체들이 아직도 청년군중들과의 련결이 부족하며 동맹대렬의 장성과 동맹내부조직의 질적 공고화를 위한 투쟁을 불만족하게 진행한데있었다

一부단체들은 자기동맹대렬의 장성을 책상에서강조만하고 그 실제적 사업을 초급단체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동맹대렬의 장성에서 一부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엄중한 결점은 특히 광범한 녀성청년들을 동맹주위에 집결시키는 주의를 부족하게 돌리는것이다

동맹내 녀성맹원수효는 남자맹원수효보다 훨씬 적은것이며 평남도 중화군 민청같은데는 아직까지 녀성맹원이 없는 농촌초급단체가 적지않게 존재하고있었다 一부동맹단체들은 동맹원들에게 그들의 조직적 관념을 제고하며 동맹규률에 자각적으로 복종하도록하는 일상적인 조직적훈련과 교양을 부족히하였으며 동맹원들을 一정한 동맹조직내에 결속시키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장악지도할수있는 중요한 근거로되는 맹적에관한 제대책들을 무책임하게 진행하였다

그결과는 대회이후 기간에있어서 동맹원으로서 동맹조직의 생활로부터 유리되고 있는자가 적지않으며 이것은 특히 함남도、평북도、평남도、민청단체가 더엄중하였던 것이다 동맹중앙위원회는 「一부지방단체들에서 이와같은 엄중한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제때에되는 대책을 강구하지않고 다만 간단하게 수천의 맹원들을 동맹명부로부터 제명하여버리는 것으로 모든것을 결말 지으려고 하는 경향은 허락할수없는 가장엄중한 사업태도」라는것을 특히 엄격하게 지적하였다

둘째로 一부 시군 및 면급 민청단체들의 초급단체 지도사업은 매초급단체들의 실정에 알맞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못하였으며 초급단체내에서의 빈번한 간부이동의결과는 동맹초급단체들의 사업에 많은 결점들을 초래시키었다 그것은 적지않은 초급단체들이 자기가할 사업을 명확히 인식하지못하고 기계적으로 사업하고있으며 총회의 교양적 내용이 극히 빈약하며 동시에 총회의결정을 추진함에 위원회와 반들의 개별적인 활동이 원만치못함으로써 많은경우에 과업을 결정만하고、실천이 따르지못하며 일상적으로 광범한맹원들을 동맹사업에 망라시키지 못하고있는 사실이다

셋째로 동맹중앙위원회는 조직사업에서 중요결점의 하나는 一

부단체들에서 동맹의 기본원칙인 규약상 민주주의적원칙과 중앙집권적 규률을 문란히하고 있는데있다고 지적하였다 一부단체들에서는 선거받은 간부들을 임의로 조종하며 부분적으로는 동맹규약에 엄연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되지않는 회의들을 진행하고있으며 심한례로는 자강도 후창군 민청에서와같이 一부군민청상무위원회와、평남 개천、신성천등 철도기관내 민청위원회들은 회의를 하지않고 소수간부들이 단독적으로 모든사업을 진행하고있는 사실까지 보게되였다 동맹내에는 부분적으로 회의에서 동맹간부들과 맹원들의 정당한권리인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비판을 억제하며 제한하는 사실이있다 이와같은 비민주주의적 사업들은 一부동맹초급단체들의 사업에서도 적지않게 존재하는바 그것은 동맹조직생활에대한 경험이 부족한 一부맹원들로 하여금 동맹사업에서 흥미와 창발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되었다 一부지방 단체들에서는 의무적으로 실행하여야할 상급의 결정지시들을 보지않고 사업하는 사실이있다 이와같은 단체들에서는 많은경우에 상급기관의 방침과 제규정들에 어그러지게 사업하며 제때에 상급의 결정지시를 수행하지 못하였던것이다 一부지방단체들에서는 상급이요구하는 문제들에대하여 제때에 보고를하지않으며 심지어 양덕、삭주、송림등 一부 시군민청에서 보는바와같이 허위적인보고를 실시함으로써 동맹의 통일적이며 정확한 지도사업에 지장을 준일까지있다

동맹내에서의 무규률적 사업태도는 특히 동맹 재정사업부면에서 적지않게 존재하였으며 그것은 상급에 납부하여야할 재정들을 임의로 중간류용、또는 랑비하며 一부 지방단체들에서는 부분적이나마 아직까지 맹원들에게 비법적부담을 가하는 가장 유해한 경향들까지있었다 이러한경향은 많은경우에 동맹지도기관과 동맹원들을 탈리시키었으며 동맹의 제반 정치사업수행에 지장을주게하였다

네째로 동맹조직사업에서 중요결점은 각초급단체들이 하급단체지도사업에서 존재하는 결점들이다 그것은 一부 동맹단체들에서 동맹사업을 집행지도함에 광범한 동맹조직과 전맹원들의 자원적열성을 조직적으로 발동시킬대신에 민청기관의 소수간부들만으로써 주관적으로 사업하려는데 있었으며、이는 一부 학교내동맹사업에 농후하게 존재하는바、부분적단체들에서는 중요한 동맹사업진행에서 전체간부들과 맹원들에게 그사업의 정치적의의와 내용을해석하고 그실천방법을 가르치는것이 아니라 상급으로부터 파견된 간부들이 덮어놓고 명령적으로 모든사업을 진행하려는 엄중한 관료주의적사업으로 표현되었던것이다 또한 一부단체들은 동맹사업을 진행지도함에 있어서 지방실정과 환경에 의하여 창발성있게 자기사업을 조직 지도하지못하고 상급의결정지시를 기계적으로 복사하는 형식적인 사업이 존재하였으며 이와같은 창발성없고 보편적인 지도는 하급단체와 맹원들의 사업을 그실정에 적응하게 구체적으로 개선하며 그들의활동을 보다 강화할수있는 실질적 대책으로 되지못하였던 것이다

一부 동맹단체들에서의 이러한 기계적인 사업작풍은 자기 하급단체들의 모든 실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서부터 출발하였던것이다 동맹지도사업에서 또한 주요한결점은 결정실행에대한 검열사업의 부족이다 一부단체 책임간부들가운데는 결정서와 지시문작성에만 자기의 기본적주의를 돌리고 그결정이 어떻게 하급에서 반영되었으며 그결정실행과정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으며 그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보충적으로 취하여야 할것인가에 대하여는 관심하지않는 사무실적 사업작풍이 존재하며 이와같은 단체들은 많은경우에 검열사업에 하급지도원들만을 참가시키고있으며 결정실행에서 고칠수없는 엄중한 오류를 범하게된 다음에야 당황하게 이를 캄파니아적으로 감독하며 처벌하는 관료주의사업이 존재하는것이다 동맹중앙 위원회는 一동맹조직사업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한 오류는 一부 단체들이 광범한 청년군중들과의 튼튼한 련결을 방해하였으며 그것은 동맹이 실시하는 제과업수행에서 동맹원들과 광범한 청년군중들의 열성을 보다 제고시키지못한 중요한 원인으로 되었다는것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동맹 중앙위원회는 동맹 조직사업부면에서 나타난 이상의 제결함들은 「一부 단체들에서 동맹 조직사업에 대하여 경시

하고있으며 조직사업을 동맹제과업과 분리하는 무계획적이며 비조직적인 사업들에 기인되였으며、또한 이것은 「동맹내에서 자기사업상 결점들과 오류들에 대한 비판과 자기비판이 부족하며 자만자족하고 긴장성없는 사업태도가 적지않게 존재하였기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동맹앞에는 항상 거대한 과업들이 놓여있다 오늘 이 과업은 조국정세의 가장 긴장된 제조건에서 더욱 과감하게 철저하게 수행할것을 요구하는것이다 동맹앞에 나선 과업이 크면클수록 그앞에 곤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조직사업의 새로운 향상이 요구된다 동맹단체들은 반드시 이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할것이다 동맹조직사업에서 나타난 결점들을 시정하며 그를 개선 강화하기위하여、첫째로 제기되는 과업은 동맹의 기본조직인 초급단체들에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그 사업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킴에있다 동맹 중앙위원회는 초급단체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민청단체들의 초급단체지도사업을 개선하며 초급단체총회의 역활과 총회와 총회사이에 있어서의 위원회와 반들의 개별적 활동을 제고시킬 구체적 대책을 취하였으며 또한 초급단체조직을 활성있게 그리고 경제과업 실행 활동에 적응하게 세분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 과업을 원만히 집행함에 있어서 위선 각급단체들은 하급단체지도사업에서 일반적인 지도를 청산하고 매초급단체들의 사업발전수준과 지역 및 생산운수직장、농촌、학교、사무기관、가두등의 각각상이한 조건들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하게 분석적인 정확한 지도사업을 전개하여야 할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초급단체들로 하여금 자기가 할 사업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신성있게 사업하게 할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또한 초급단체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향상시킴에 면민청들로 하여금 군민청의 방조적 역할을 一층 제고시킬 문제가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초급단체지도사업에서 면민청위원장들이 혼자서 초급단체들을 형식적으로 순히 하며 상급의 긴급지시나 기계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는 사업방식을 일소하여야할것이며 면위원들간에 사업분공을 옳게하며 면민청의 지도사업에 광범히 열성자들을 망라하며 특히 농촌단체에서의 문화계몽사업과 체육사업향상에 열성교원맹원들을 적극 인입하여 그들의 활동을 옳게 추진시켜야할것이다 시군민청과 면민청은 초급단체위원장들과 초급단체열성자 양성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릴것이며、매월조직하는 초급단체 위원장련석회의들을통하여 사업에대한 실무교육을 一층 강화함으로써 매초급단체간부들로하여금 창발성있게 자기사업을 조직할수있게하여야 할것이다 초급단체의 사업내용을 개선함에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초급단체총회의 조직적 교육적역활을 一층 높이도록하는 문제이다 매초급단체들은 총회를 준비없이 부결서하게 장시간에걸쳐 진행하며 상급의 지시를 막연하게 기계적으로 전달하여 매달 고정적으로 꼭같은 사업총결보고문을 랑독하는데 그치는 무미건조한 사업을 개선하여야 할것이다 회의에서는 학습회、반、청년작업반들의 사업정형과 개변적맹원들의 생산과 학습정형등 해당초급단체 사업에 제기된 구체적문제들이 취급되어야하며 맹원들의 요구들에 수응하여 체육사업 각종 문화적활동에대한 제문제들을 취급하며 동시에 총회에서의 집행 정치시사보고의 수준을 높이어야 할것이다 총회에서는 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비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며 문제토의에 열성적으로 참가케하며 충분한 토의밑에서 결정을 채택케하며 결정실행에 대한 분공조직을 명백히함으로써 결정된 과업실천에서 매개맹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시군 및 면급 민청들이 초급단체총회 지도사업을 강화하기위하여 초급단체위원장 련석회의등에서 충분한 토의를 가능한 한도에서 총회날자를 정하고 계획적으로 그 지도사업에 참가할수 있게하여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총회결정을 원만하게 끝까지 수행하도록 보장하기위하여 위원회와 반과 반장들의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그러기위하여 초급단체、위원들이 다만 총회준비사업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는데 그치는 경향을 청산하고 향상 초급단체위원들은 총회결정실행을 추진시키는 방향에서 맹원들과 반들의 사업결열지도에 참가하며 그과정에서 제기된 개별적문제들을 수시로 위원회에서 토의하며 그를 통하여 맹원들을 조직적으로 훈련교양주도록 하여야할것이다 동시에 반에서는 때때로 반회의를열고 초급단체총회결정과 위원회의 지시를 구체화하기위하여 토의하며 제반 동맹과업실행에서 반내맹원 호상간 원조사업들을 조직하도록 하여야할것이다

둘째、부분적단체에서 一부 혼란되고있는 동맹내부조직을 정비하고 하급단체와 맹원들의 사업을 조직적으로 정확히 장악하기위하여 동맹조직통계와 일상적맹적에 관한 사업을 명확히하여야 할것이다 그러기위하여 신가맹、부맹、적입、전출、사망、년령초과자에대한 제명 및 책벌에 대한 제명 및 책벌에대한 처리등、一제 동맹내부 조직정리사업을 一맹적에 관한 지시「 」에 의거하여 그사업처리에서 지정한 시간과 규정을 엄밀히 준수할것이며、一부단체에서 행방불명이란 확실치못한 근거로써 무책임하게 수다한 맹원들을 맹원명부로부터 제명하여버리는 경향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셋째로 동맹단체들은 비맹원청년들에 대하여 동맹의 영향을 강화하며 동맹대렬의 장성을 위한 백방의 대책을 강구할것이며 초급단체 공개회의들 통하여 비맹원청년들에게 동맹사업에대하여 발언할 기회를 주며 또는 동맹학습회에 참가시키는 방법으로써 동맹교양사업에 적극 인입하여야하며 동맹강령과 규약에 대한 해석사업을 시시로 조직하여야 할것이다 특별히 각급단체들은 여성청년들과 소년단을 거쳐서 재로 민청년령에 이른 청년들에대한 장성을 강화하기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것이다 동맹단체들은 동맹조직생활에 대한 경험이 어린 신입맹원들에대하여 동맹내부생활에 대한 충분한 교양을주며 수시로 맹원의 의무와 권리에대하여 해석하여주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넷째로 동맹단체들은 동맹원들로하여금 맹증취급을 존중히하게하며 동맹휘장을 꼭꼭 달게하여야 할것이다 맹증과 휘장은 그청년이 동맹원이라는것을 동맹으로부터 증명하는 확실한 증서이다 따라 기때문에 맹증과 휘장은 오직 우리 동맹원들만이 가질수있다 맹증과 휘장을 존중히 여기며 장화히 자기몸에 간직하는것은 그맹원이 동맹에 충실하며 또한 동맹을 사랑하고 있다는것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동맹단체들은 맹원들에게 맹증과 휘장취급방법을 교육하여야하며 신입맹원들에게 그것을 신속히 수여하며 수시로 그취급정형을 검열하여야 할것이다

다섯째 一부 단체에서 동맹내 민주주의적 원칙들을 위반하는 경향들과 날카롭게 투쟁할것이며 동맹내에서 광범한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에서 간부들과 맹원들의 창발성을 제고시키도록 하여야할것이다 동시에 동맹 一부지도기관내에 존재하는 긴장성없고 부화한 사상적 락후성들과 견결히 투쟁하며 동맹간부들과 맹원들로 하여금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케 하여야할것이다 동맹중앙위원회는 특별히 一부단체들의 동맹규률위반에서 가장 유해한 경향인 상급결정지시에 대한 존엄성없는 사업태도와 허위적인 보고실시 또는 동맹재정사업부면에서의 무규률을 개선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동맹 상급지시를 연구하지않으며 규정한 방침을 임의로 위반하여 상급위에 대하여 자기결점을 음폐하며 허위적보고를 진서하는 분들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조직할것이며 심한경우에는 엄격한 책벌을 적용할것이다、각급민청단체들은 一부단체들에서의 국가경제정책에서 어그러지며 동맹규률에 위반되는 동맹재정의 낭비 중간류용 맹원군중을 괄리하는 비법적부담등、업체재정상 부화현상들과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앞으로 동맹간부、또는 맹원으로서 이와같은 엄중한 오류를 범하였을때에는 엄격한 책임을 적용하되 출맹까지 시킬것이다」 이것은 즉 동맹단체들에서 동맹상급의 결정을 연구하지않으며 규정한 방침을 임의로 위반하며 동맹상급의 요구에대하여 자기결점을 음폐하며 허위하는 사실이 얼마나 동맹사업에 유해한 것인가를 말하는것이며 또한 재정사업에서 각종 부화한 현상들은 그과오를 범한자가 동맹간부 또는 맹원인경우에는 그가 맹원으로서의 자격까지 가지지못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여섯째、동맹단체들의 지도사업에서 군중을 탈리하는 一체 관료주의적 명령적 사업작풍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모든사업을 광범한 동맹조직과 전맹원들의 자원적열성을 조직하며 군중적으로 발동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도록 하여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하여 소수 기관간부들만이 동맹사업을 독단적으로 수공업적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려는 경향을 퇴치하고 모든동맹사업방침들과 대책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사업에 관계되는 간부들과 열성맹원들의 참가밑에 집중한토의를 거쳐 결정을 채택할것이며 일단 결정된문제들을 실행함에있어서도 역시 그에관계되는 간부 및 맹원들에게 그사업의 내용과 실행방법을 충분히 가르친 기초우에서 조직적으로 발동시키도록 하여야할것이다

일곱째로 각급단체들은 동맹사업 집행정형을 계통적으로 검열하여야하급단체에서 범할수있는 오류들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할것이다 검열사업에는 각급단체 책임간부들이 직접 참가하여야하며 검열에서 부정확성과 형식성을 없이하고 실제사업집행 현장에서 제현상들을 종합하여 심중한 연구를 거쳐 정당한 결론과 해결대책을 제시하여주도록 하여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맹조직사업의 향상에서 중요한 과업은 각급단체 간부들의 지도수준을 一층 제고시키기위한 투쟁을 강화함에 있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게된다 그러나 一부 우리간부들의 지도수준은 맹원들의 발전된 수준에서 멀어지고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동맹단체들에서의 넓은 사업조직을 청산하며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없이하기위하여는 동맹간부들의 지도수준을 제고하여야하며 간부들의 정치적학습과 실무교양사업을 일상적으로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동맹단체들은 동맹간부로서 학습하지않으며 자기 실무사업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한 노력들

을 하지않는 경향과 강력히 투쟁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동맹결정서、신문、잡지를 통한 지도론문、선전단、및 공청 동맹단체들의 사업경험들을 광범히 연구케하도록 조직적으로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

조국의 민주주의적 독립과 조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을 자기의 최고임무로 인정하는 우리동맹는 오늘날까지의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걸우었다

동맹은 이와같은 자기사업과정에서 조직사업의 부단한 향상을 보았으며 많은 경험들을 쌓았다 그러나 현하 조국정치정세하에서 우리동맹앞에 나선 과업은 一층거대하므로 이과업들을 능히 보다 성과있게 달성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동맹단체들의 역활을 더욱 제고하기위하여 각급동맹단체들과 맹원들은 자기사업에서 이상의 제과업들을 성과있게 집행하며 동맹중앙위원회 제四차회의 「조직사업개선강화」에대한 결정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할것이다

유·엔제三차총회 후반회의와 미영뿔럭의 패배

송 진 홍

유·엔제三차총회후반회의는 四월五일 뉴욕에서 개막되어 약 六주일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한다음 五월十八일에 끝났던것이다

유·엔 제三차총회후반회의가 뉴욕에서 개막되기 바로 전날 악명높은 북대서양조약이 조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필요가있다 이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었다 이 침략적인 군사적 정치동맹의 조직자들인 미영뿔력의 지도자들은 유·엔총회사업에 재개되려는 무렵을 기하여 북대서양조약의 조인식을 주비함으로써 유·엔기구에 도전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유·엔기구를 매장하려던 미영뿔럭의 기도는 전반적평화와 안전을 옹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유·엔기구를 설치한 평화애호인민들의 완강한 항거에 봉착하였던것이다

뉴욕에서 다시 계속되는 유·엔제三차총회후반회의 사업에 관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선전들이 책동하였던 비관적예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못하였을뿐만아니라 유·엔기구의 기초를 이루고있는 제원칙을 고수하는 쏘련의 단호한 결의를 조금도 동요케하지는 못하였던것이다

유·엔 제三차총회후반회의의 사업과정에있어서 미영 불三개국 대표단은 자기들의 타국내정간섭에대한 음폐물로서 총회를 리용하려고 시도하는 동시에 또한 그렇게함으로써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유·엔과는 전연 무관계한 문제들을 의정에 다수 상정시켰던것이다

유·엔 제三차총회후반회의의 의정에는 一九四八년十二월二十일 파리전반회의에서 중단된채로 결말을 짓지못하고 넘어온 제문제(十九개항목)와 새로제기된 많은 문제들이 포함되었는데 그중에서 주요한것은 다음과같다

☆ 파리전반회의에서 넘어온것

전 이태리식민지문제

소위「중간위원회」보고。

남아련방의 인종차별문제。

프랑코정권문제。

유·엔경비대 설치문제。

☆ 새로 제기된 문제

인도네시아문제

이스라엘국가의 유·엔가입문제

항가리의 민드셴티재판사건 및 불가리아의 련합복음교회 지도자들의 간첩사건

이상과같이 새로제기된 문제중에서 항가리의 민드센티재판사건과 불가리아의 련합복음교회 지도자간첩사건은 파리전반회의에서 칠리대표가 제출하였던 소위 쏘련의「외교관례무시」라는 문제와 똑같은 목적으로 제출된것이며 이는 완전히 유·엔헌법상에 위반되는 재로운 문제이었던것이다

유·엔총회가 열릴때마다 미영불뿔럭은 언제나 거수기계들을 리용하여 쏘련을 선두로하는 민주진영의 정당한 제안을 무조건하고 거부함으로써 반유·엔적 립장을 취하고왔던것이다

미영불뿔력이 이번 후반회의에있어서도 조작한바 그들이 「강대하다」는 인상을 주기위한 비렬한 수단으로 나온 한가지 실례를본다면 一九四六년十二월十二일의 유·엔제一차총회의결정을 무시하고 프랑코 서반아를 유·엔가맹국으로써 승인하려는 발광적인 시도를하다가 결국에는 참패한 꼴이라든가 「민드센티사건」과같은 전연 유·엔과는 관련성이 없을뿐더러 타국의 내정을간섭하는 비법적문제들을 의정에 상정시킴으로써 세계인민대중의 민드센티도당들의 죄상에대한 인상을 약화시켜보려고 획책하다가 도리어 바티칸파 전쟁상인들의 국제적인 반동음모가 폭로되는 결과밖에 가져오지못하였던 사실들을 들수있다

이와같이 미영뿔럭은 유·엔기구를 파괴해보려는 자기들의 공격을 계속하면서 강대국간의 일치가결원칙에 반대되는 결의초안들을 총회에 내놓았던것이다

식민지통치렬강들의 음모책동으로써 인도네시아문제에 관한 심의는 이번 후반회의에서 좌절되고말았던것이다

미영뿔력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일부국가 대표들에게 전례없는 압박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압박은 많은 경우에있어 미영뿔력이 희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못하였다 이것이 유·엔제三차총회후반회의의 현저한 성과라고 말할수있는것이다

히틀러독일이 패망한 이래 서반아의 소위「통령」프랑코는 새 보호자들과 후원자들을 얻었다 유·엔총회뉴욕 금차회의에서의 서반아문제에관한 토론은 이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게 되였다

프랑코 서반아의 미영비호자들은 유·엔제一차총회에서 파시스트 프랑코정권을 용인하는것은 평화와 안전에대한 위협이라고 단죄하고 유·엔성원국가들에게 마드리—드로부터 외교사신들을 소환할것을 결정한 동 총회결의안들을 취소시키는것을 목적으로한 제의를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및 볼리비아대표단으로하여금 제출시켰던것이다

파란대표단은 국제평화와 안전을위협하는 서반아의 프랑코정권을 반대하는 조치들을 취할것을 주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쏘베트대표단은 파란의 제안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성명을 하면서 어디까지나 프랑코정권이 파시즘의 보루라는것을 폭로하였으며 인민민주주의제국들도 파란결의안을 지지하였다

미영대표단은 기대하였던바와같이 파란결의안을 반대하여나섰던것이다 그러나 프랑코서반아를 유·엔에 가입시키려던 미영뿔력의 기도는 이번 후반회의에서 완전히 참패하고말았던것이다

미영대표단들은 서반아문제에 관한 四개국대표단(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및 볼리비아)의 공동결의안에대한 투표에서 기권하면서도 그와동시에 표면에서는 프랑코파시스트정권을 지지하여 투표하기를 원치않는 一부국가들을 강압하려는 비렬한행동을 취하였던것이다

만약 미영지배층들이 서반아문제에 관한 유·엔의 기왕의 결정들의 실천을 방해하지않았다면 프랑코는 이미 정치적으로 매장되지 오랬을것이다

그러나 다 아는바와같이 월가와 련던 써리구는 프랑코를 침략적 북대서양동맹의 장래의 적극적참가자로보고 그와 의식적으로 밀약을 체결한것이다

이번 후반회의에있어서 내밀적으로는 프랑코를 지지하고 비호하면서도 장술한바와같이 서반아문제에관한 四개국공동결의안투표에서는 기권한 사실과같은 술책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이베리아반도를 자기들의 군사기지로 전환시키고있는 미영반동층의 프랑코서반아정권을 후원고무하는 정책은 쏘베트대표단에의하여 백일하에 폭로되었기때문이다

미국과 북대서양동맹의 군사적 전략적 리해관계에의하여 추진된 미영의 전이태리식민지분활계획을 총회전원회의로하여금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려던 기도도 그와마찬가지로 성공하지못하였다 전이태리 식민지들에관한 쏘베트제안들의 기초를 삼고있는 정당한 원칙들은 식민지압박의 쓰라림을 자기경험에의하여 충분히 인식하고있는 국가들은 물론 이들식민지에 린접하고있는 국가대표단들의 지지를 받았던것이다

다 아는바와같이 전이태리식민지문제는 전반회의에서 그토의가 끝날 예정이었는데 쏘련대

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영뿔럭은 교의로 토의를 후반회의까지 미루어 금차후반회에서는 정치위원회에서 토의되었던것으로 전이태리식민지문제에 대한 미영불三개국의립장은 파리四개국대표자회의당시와 조금도 차이가 없었던것이다

이에대하여 이태리대표가 취한 립장은 미영불과더부려 미리부터 공동전선을 취할것을 결정하여 가지고 총회에 림하였다는것을 스스로 폭로하였다.

뿐만아니라 전이태리식민지문제는 그토의과정에서 미영뿔럭의 동지역에대한 야심을 반영하는 수다한 흉책들과 영군정의 악독한 착취통치의 결과들을 또한 폭로해놓았던것이다

미영의 야망에대하여 이를 지지하지않는 대표들의 수는 상당히많았다 우선 아프리가에있는 나라로서 영국의 통치의쓰라림을 누구보담도 몸소 체험하고있는 애급은 영국통치를 반대하는동시에 자기의 평화적관심도 표명하였다

에티오피아대표는 이태리통치의 잔혹성을 상기하면서 에리트레아와 쏘말리랜드를 자기국가에 합병시킬것을 강조하였다 하여간 이번후반회의에있어서 미영뿔럭은 전이태리식민지문제에 대한 해결을 짓지말고 이를 지연시킴으로써 동지역에대한 영군정을 연장시키자는 수작이었다

◎미국대표는 이스라엘국가의 유●엔가입문제를 특별정치위원회에 넘길것을 주장하면서도 칠리대표가 제의한 인도네시아문제와 남아련방의 인종차별문제를 동위원회에 넘기는것을 반대하였다 미영뿔럭이 인도네시아문제의 심의를 기피하는데대하여 쏘련대표말리크는 「인도네시아공화국과 그의 八천만인민들은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모모렬강들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외래침략자들의 기반하에 놓여졌다 인도네시아전체인민들에대한 이와같은 무관심한 태도를취한 정당한근거는 하나도없는것이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쏘련대표단은 인도네시아문제의 심의를 강경히 요구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쏘련대표는 이스라엘국가의 유●엔가입문제 남아련방의 인종차별문제와 강제이주민문제 아메리카대륙내의 토인의 지위 연구분과위원회설치문제등을 정치위원회에 넘기자는 파란대표의 제의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국대표의 강압에 못이겨 칠리대표는 인도네시아문제를 특별정치위원회에 넘기자는 자기제안을 취소하는 추태까지 연출하였다 표결에있어서 이스라엘국가의 유●엔가입문제만이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특별정치위원회에 넘어가게되었고 기타문제는 미영뿔럭의 책동으로 부결되었던것이다

「보도의 자유와 정보의 국제적전달」에관한 협정초안심의에있어서 쏘련대표는 「보도의 자유」라는 슬로간이 민주주의에 반대하며 제국가간의 평화와 우호적협조에 반대하는 투쟁을 음폐하기위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는것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정보의 국제적전달및 부인의 권리」에관한 협정초안은 미영의 압력하에 총회에서 책택되기는하였으나 여러나라들은 이협정에 조인하고 비준하는것을 거절하리라는것이 유●엔각계에서 지적되었다 왜 그러냐하면 동협정초안은 약소국가들의 신문및 라디오활동에 불리할뿐만아니라 미국의 선전이 이들국가의 내정을 간섭하는데 리용될수있기때문이다 유●엔제三차총회후반회의에있어서도 전반회의에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미영뿔럭의 발광을반영하여 유●엔을 파괴하고 약화시키려는 흉악한 기도와아울러 그들의 새전쟁선동을 위한 옳지못한 제안들을 채택시키기에 거수기계를 동원시켜 온갖 책동을 다하였으나 자기들의 희망대로 성과를 가져오지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더욱더 자체폭로하는 결과를 가져왔던것이다

그와반면에 전세계인민들의 지지와 성원밑에 유●엔헌장과 제원칙을 고수하며 미영뿔럭의 반인민적립장을 철두철미 폭로반대하는 쏘련을 비롯한 인민민주주국가들의 승리를 다시한번 과시하였던것이다

한편 유●엔제三차총회후반회의가 六주일간에 걸쳐 진행되고있는 동안에도 민주와 반민주와의 세력배치는 민주진영이 더욱더 장성강화된 반면에 반동진영은 더욱더 약화쇠퇴되어가고있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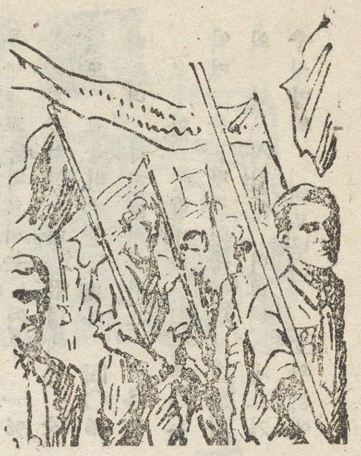
그것은 아세아에있어서의 중국인민해방군의 혁혁한 승리와 장개석국민당도배의 급격한 패망이 세계사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평화옹호세계대회에의하여 여실히 표명된 전세계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력량은 유●엔제三차총회후반회의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반동진영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는것이 또한 특징적이다

이리하여 유●엔제三차총회후반회의의 성과는 유●엔기구를 파괴하며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반하여 유●엔기구의 권위를 공고화하기위한 쏘련의 투쟁이 승리를 가져오고있다는 전세계 평화옹호자들의 확신을 더욱더 굳게하여주고있는것이다 ―끝―

평화와 민주와 훌륭한 미래를위하여 전진하는 이태리청년들

최 국 산



실업과 궁핍, 침략적 부대서양조약과 미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주구 데카스페리 반동정부를 반대하는 이태리민주청년들의 투쟁은 세계민주력량의 거센 일환으로 나날이 강화 장성되고있다

이태리민주청년들의 민주와 평화와 더 훌륭한 미래를 위한 열화같은 투쟁은 이미 제二차대전시기에 불타올랐던것이다 그들은 이태리공산당파 "청년전선"의 지도하에 팟쇼를 반대하고 민주와 평화와 진보를 위하여 빨찌산부대에서 민족해방위원회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청년전선"의 조직자 "오이게니오●큐리엘"을 위수로 하여 수많은 애국청년들이 조국해방의 성스런 투쟁에 생명을 바쳤던것이다

쏘련군대의 결정적역할로 인하여 제二차 세계대전이 민주진영의승리로 끝난후 二十년동안 팟쇼정권하에서 신음한 이태리인민들과 청년들앞에는 민주와 진보에대한 전망이 열리었다 지루하고 가혹한 전쟁과정에서 이태리청년들은 많은 경험들을 쌓았으며 자기들의 행복의 원천이 어디있는가를 확인할수있게 되었었다 一九四六년 상반기에있은 선거에 있어서 이태리청년들이 공산당립후보자들을 열렬히 지지찬동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이태리인민들과 애국청년들의 평화와 진보에대한 지향은 전후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조종하에 있는 반동정권에 의하여 무참하게도 유린당하였다 이는 특히 一九四七년 五월에 데카스페리정부가 공산당출신 각료들을 추방한 이후로 더욱 그러하였다 데카스페리는 공산당출신 각료의 추방을 실시하면서 "이태리는미국의 원조없이는 살수가 없다 그런데 미국은 공산주의자들의 대표가 들어있는 정부를 원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을 정부로부터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엉터리없는 변명으로써 자기의 립장을 정당화하려고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데카스페리의 이 "리론"의 허위성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 이태리인민들과 청년들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있다

허석높이 떠드는 마―샬안은 三개월동안에 이태리가 필요로하는 一○○만딸라의 기계대신에 二五○○만딸라의 낡은기계와 쓰지못할 물품들을 강제로 공급하고 있으며 一년동안에 一○○○여딸라에 해당하는 석탄 성냥등을 공급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 "자선심 깊은" 마―샬안은 一九四八년 중기에 二○○만의 실업자를 산생하게 하였으며 이중에는 十四세로부터 二五세까지의 청년실업자들이 八五만명이상이나 포함되고있다 년령범위를 十四세부터 三○세까지로 확장한다면 一三○만이란 방대한 청년실업자수를 보게된다 작년말에는 실업자의 수가 三○○만으로 증가되었다

데카스페리 반동정부의 반인민적 경제시책으로 인하여 근로인민들과 근로청년들의 생활형편은 날로 악화되고있다

一九四八년 말에와서 물가는 一九三七년에 비하여 五五배라는 살인적 고등을 보여주었으나 로동임금은 一九三八년에 비하여 三五%로 저하되었다 로동자들의 최저생활비를 一○○으로 한다면 구매능력은 겨우 四九%밖에는 안된다

국내에는 민주개혁이 실시될대신에 데카스페리정부의 비호하에 대자본가들이 근로인민들에대하여 가혹한 착취를 계속하고있다 뭇소리니가 권력을 쥐고있은 때와 꼭 같이 五천내지 六천명의 지주가 전체경작면적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七천명의 대자본가들이 국내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이러한 결과로 전쟁종말로부터 三년반이 경과한 一九四八년 말에와서도 생산고가 겨우 전쟁전의 七五%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태리헌법은 "동일로동에대한 동일임금지불"에대하여 똑똑히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휴지에 지나지 않는다 동일로동에 종사하는 十四세의 소년은 十八세의 소년보다 五〇%나 낮은 임금을 받게된다 남녀로동자간의 임금차이는 더욱 혹독한바 녀성로동자의 임금은 동일로동에 종사하는 동년령의 남성로동자임금의 겨우 三분지一 내지 二분지一밖에는 되지못한다

학교문은 여전히 근로인민의 자제들앞에 굳게 닫혀져있으며 학원에는 파시즘의 잔재가 그냥 횡행하고 있다

一九四八년도에 전체 예산의 三〇%를 군사비로 지출한 정부는 교육비로서는 겨우 一%를 계상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도 교육비예산액보다 四〇%나 더 적게 계상하고 있다

로―마 종합대학 의학부에는 악명높은 팟쇼인종론의 대변가의 한 사람인 니코라스펜드가 수십명의 테로단의 호위하에 반동적 의학강의를 실시하고 있는것이다

이태리인민들의 보건 상태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바 폐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一九四八년에와서 전쟁시기보다 一〇〇%나 증가된 사실만으로도 넉넉히 알수있는것이다 이상과같은 이태리청년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비참한 형편은 필연적으로 그들을 데카스페리 반동정권을 반대하고 평화와 온갖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로 궐기시키고 있는것이다

이태리의 전체 애국청년들은 그들의 제반 요구가 이태리공산당을 중심으로한 전체 국내의 민주력량파의 단결위에서만 이 더우기 청년대렬의 통일위에서만이 가능하다는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투쟁을 실시하여왔던것이다

그들은 반팟쇼투쟁 시기에 북부이태리에서 거대한 역할을 감행한 애국청년단체이며 四〇만의 맹원을 가지고있는 "청년전선"을 위수로하여 "가리바르지 전위대" 一五〇만의 로동청년들을 집결시키고있는 "직업동맹 청년부" 一〇만명의 맹원을 가지고 있는 "소년동맹" "전국대학생평의회"등을 통합하여 一九四七년二월에 이태리 "청년련합"을 조직함에 성공하였다 청년련합에 통일되고 있는 각 단체는 각기 자기의 하부조직을 가지고있으며 공통적 투쟁에 있어서 청년련합의 각급동격위원회를 통하여 통일적으로 사업하고있는것이다

우익사회주의자 기독교민주주의자들의 청년통일 파괴음모는 서구라파의 수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이태리에도 존재하고있다

청년통일 파괴음모는 이태리에 있어서 가장 반동적인 청년단체인 이태리 "카토릭크청년"을 중심으로하여 "공화청년련맹" "이태리 사회운동"등의 단체들을 소굴로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통일파괴음모는 서구라파 각국에 있어서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청년통일 파괴음모와 꼭같이 무참한 실패를 맛보고있으며 그들은 오직 극소부분의 락후한 종교청년들과 청년운동가들층에 자기의 기반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이태리청년들은 자기들의 민주권리와 평화를 위한 투쟁을 가강히 전개하고 있다 이태리로동총련맹 청년부는 "미숙년공안"과 농업로동청년들에게 일요일 휴식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대학생 전국평의회를 중심으로하여 학비저하와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一九四八년 四월十八일 국회선거이후 이태리청년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파업투쟁에로 넘어갔다 선거실시에 있어서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조종하에있는 데카스페리 반동정부 경찰의 공개적 각서는 이태리 애국청년들의 의분을 격동시켰다 도처에서 시위와 동맹휴학이 조직되었으며 이는 이태리 공산당 지도자이며 이태리 애국인민들의 령수 도리앗치 조격사건(七월)을 계기로하여 더욱 고조에 달하였다

도리앗치조격을 반대하여 八〇만 영웅적 이태리 로동계급은 항의파업에 총선 참가하였다

금년봄에 열렸던 "이태리청년련합"회의에서 위원장 엔리코 베르링게르는 데카스페리정부가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하에 전체 이태리인민들을 멸망의 구렁에로 이끌고 가는것을 규탄하면서 평화와 청년들의 리익옹호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을 맹서하였다 이맹서는 전체"청년련합"의 각급조직을 통하여 토의되었으며 전체 "청년련합" 맹원들은 이맹서에 열성적으로 호응하였다

전체"청년련합"맹원들의 이 맹서는 그후에 계속된 침략적 "북대서양조약"반대투쟁과 "평화옹호 세계대회"지지투쟁에서 여실히 반영되었다

금년三월十二일 로―마시의 로동청년들을 중심한 전체 애국청년들은 의무성의 입구를 봉쇄하고 침략적 북대서양동맹조약을 찬동하려는 정부의 반동적 시책에 반대하여 一대시위를 감행하였다 여기에서 이태리청년련합은 전체 청년들에게 "이태리를 북대서양동맹에 가입시키려는 정부여당들의 기도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리익을 주기위하여 우리나라를 재전쟁에 가담시킬 위협이 있다 로―마의 청년남녀들이여! 우리는 우리에게 비극을 가져온 뭇소리니의 강철동맹을 잘 기억하고있다 우리는 우리를 다시 살륙장으로 보내려는 그자들에게 "아니"라고 대답할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독립을 위한투쟁에서 단결하자"라고 호소하였다

이호소에 호응하여 평화옹호



미국에 있어서의 진보적 청년운동

그・에・드월드

미국에 있어서 전후시기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대한 더한층 심혹한 박해와 미국인민들의 민주수의적 진보적세력을 반대하는 제국주의반동의 횡폭한 진군(進軍)으로써 특징지어져있다

평화시기에 있어서 처음으로 월가의 두목들의 강압아래 지난 여름에 징병법이 채택되었다 一九四八년―一九四九년의 미국군사비는 국가예산의 三六、一%를 차지하고 문화비는 겨우 〇、八%에 불과하다

헨리●월레스는 그의 연설에서 인민의 세금중 한 딸라에서 七八센트가 전쟁준비비로 지출된다고 말하였다

이 거대한 군사비의 증가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의 부단적인 저하와 함께 집행된다

실업자는 증가되고 임금은 저하되고 물가등귀는 장성된다

一九四八년 九월二七일 미국로동성은 합중국에 있어서의 생활기준은 새기록적 낮은수준에 달하였다고 승인하지않을수 없었다

최저생활비는 로동통계국의 공식적자료에 의하여서 보더라도 一九三五―一九三九년의 평균수준에 대비하여 一七四、五%로(一九四八년 八월十五일에) 상승되었다

지난 九월초에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대학생련맹 회의에서 아메리카대학생대표 베르나르드로위는 미국의 수천만청년들이 처하여있는 형편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미국에 있어서의 대학생활은 다수학생에게는 도달키 어렵게 호화로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하버드대학에서는 수업료를 一년에 四〇〇딸라로부터 五〇〇딸라로 올리었으며 마사슈제드주 공과대학에서는 六〇〇딸라로부터 七五〇딸라로 올리었다

흑인청년들의 형편은 특별히 엄중하게 되어있다

그들은 다만 미제국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받을뿐만 아니라 인종적학대를 받고있다 흑인청년들은 백인청년들보다 일자리를 찾기에 한층 더 어렵다 흑인들 가운데서의 실업자수는 언제든지 백인청년가운데서보담 더 많다 七〇만명이상의 흑인귀환병사들은 남방제주(州)에서 직업을 찾아 헤매지않으면 안되게되었다

태평양과 구라파전선에서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에 그들의 청춘을 희생한 많은청년들에게는 전후의 온갖 행복이 우선적으로 약속되었었다 청년남녀들은 전쟁의 종결과함께 직업과 학업의 가능성을 얻으리라고 공상하였다 그러나 파시스트독일과 일본제국주의자가 격파된지 이미 三년이상을 경과하였는데 근로청년들의 상태는 모든것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아메리카 청년들은 지배층들이 새 세계전쟁을 일으키려고 열망하는 독점자본가두령들의 리익을 위한 정책을 쓰고있는것을 알았다 새 전쟁선동의 환

경에서 청년들은 자기들의 운명에대하여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있다

×

아메리카청년 운동에 있어서 세력배치는 복잡한 정세아래서 출발되었다 선진적 진보적 청년들은 전쟁과 파시즘에로 국가를 이끌고가는 반동에대한 반항을 항상 더 강화하고있다 국내에서 민주주의세력의 거대한장성에 놀랜 아메리카 반동층은 청년들을 자기들의편에 끌어넣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리용하면서 청년들의 의식을 중독시키고 있다

전후 몇해동안에 카톨릭교 청년단체중에서의 반동의활동은 특히 강화되었다 최근에 그들은 귀환병사들 속에서 사업하는 「카톨릭 학생구루빠의 련합위원회」「카톨릭교도—귀환병」등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내었다 다른 반동단체들도 청년들의 이부분을 자기에게 유혹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것을 지적할 필요가있다

청년들 가운데서의 「제三세력」이라고 자칭하며 「사회주의자」이라고까지 자칭하는 트로츠키파적인 「민주주의행동을위한 학생들」과 같은 단체들의 각종 군소집단이 활동하고있다

이단체들은 아메리카 청년운동의 진보적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특별히 지향하면서 반동적 카톨릭교 승려들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반동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 청년운동이 엄연히 강화되는것은 피할수없었다 북미합중국의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한 진실한 투사로서 출현한 민주주의적 진보적 력량은 장성하고 견고하여졌다 이에대한 명백한 증거는 청년들가운데서의 사업에서 그들이 도달한 성과들이다

一九四八년 八월에 파란에서 열린 국제로동청년대회에 모든 난관을 돌파하면서 도착한 아메리카대표들은 세계민주주의 청년대표들에게 성명하였다

즉 「우리는 두달전 七월二五일—二六일 〃아메리카 진보적 청년〃단체가 창립되었다는것을 커다란 기쁨으로써 공포한다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친선과 행복된 생활을 위한 우리나라 청년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반팟쇼 청년단체들이 탄생되었다 흑인과 백인의 수천명 미국 젊은 항부들 철강부문과 자동차부문과 기타 다른 공업부문의 청년로동자들 농장청년들 학생들 젊은 실물가들은 미국의 四四주로부터 필라델피아에 회집하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광범한 로동청년과 흑인청년들을 대표하는 성원으로써 자기들의 지도부를 선거하였다」

〃아메리카 진보적 청년〃단체 창립대회는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미국민주청년들의 거대한 준비사업의 총화이었다 이대회의 소집을 위한 준비와 〃아메리카 진보적 청년〃단체창립에 二백개이상의 각종 청년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대회사업에 一、二〇三명의 정식대표자와 七二七명의 방청대표들이 四四주와 뽀르또—리꼬에서 참가하였다

월가의 주인들의 푼푼한 도움을 받고있는 부르죠아 청년단체들과는 달라서 압도적 대다수의 대표들은 푼전을 모아서 대회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떻게 하여서든지 필라데르피야에 도착하였다

〃아메리카 진보적 청년〃단체 대회는 자유애호 청년들의 통일을위한 확연한 지향을 등시하였다

모든 대표들은 새단체는 반

와 침략적 북대서양동맹가입반대를 위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궐기하였다 三월十六일 헤자시에서는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조약에 찬성한데대한 반대항의 회의등이 성공적으로 조직되었다 이태리 〃청년련합〃은 또한 평화옹호대회를 지지하여 파리에 행진한 평화대렬에 수만명의 〃청년평화대오〃를 조직하여 참가시켰던것이다

절째 이태리애국청년들은 자기들의 투쟁이 세계민주청년들과의 튼튼한 련계위에서만이 가능하다는것을 똑똑히 알고있다 그들은 세계민청의 창립당시로부터의 열성적 一원이었으며 평화와 민주를 위한 세계청년들의 투쟁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있다 그들은 평화와 민주를 위한 세계청년들의 단결된 력량을 다시한번 시위할 세계청년축전사업을 열성적으로 준비하고있다 그들은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로써 축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명예의장으로는 十八년동안이나 뭇소리니감옥에있은 유명한 반파시스트투사、암베르트・테라시니가 추대되고 있는것이다

세계민주청년들의 평화와 민주를위한 투쟁에서 이태리청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것이다 그들은 승리에 여명기가 가까워지고있음을 똑똑히 인식하고 이태리공산당의 전투적 기치하에 승리의 확신도 투터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끝‖

三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청년들에게 협각하여야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문제는 평화를위하여 병역(兵役)폐지를 위한 투쟁의 문제와 함께 대회의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사업에서 중심적 문제였다

로동청년에대한 결정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 결정에는 다음과같이 지적되었다 즉 「아메리카에있어서 민주주의적 지향의 근간인 조직된 로동계급이 지지한 진보당의 성명에는 〃아메리카 진보적 청년〃단체는 조직된 로동청년이다 비조직 로동청년들도미국인민의 주요한 세력으로 인정되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미국청년의 전투적 부대들을 우리들의 단체에 인입할것을 노력하며 그들의 지지를 받을것을 열망한다

아메리카 로동청년을 자기편에 끌어넣으려는 미국반동들의 깡빠니야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들의 계획을 분쇄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대책을 시급히 채택할것을 호소한다

1、우리는 탚트—할틀리법령의 폐지와 최저임금제실시 즉 한시간에 한딸라의임금(정부에서 규정된 생활최저비는 한시간에 八七、五센트)로동계급의 형편을 완화하는 실업에대한 보조와 기타 로동계급의 처지를 개선하는 대책들을 보장하는 권리를 요구한다

2、우리는 동일로동에 동일임금을 요구한다 우리는 직업교육사업에 있어서 정기적 방조와 청년들의 직업보장을 위한 기관의 설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로동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후 단번에 취직할수없는 사정에 비추어 학교졸업후 六개월간 로동청년의 보조금 설정을 요구한다

〃아메리카 진보적 청년〃단체의 지도기관 성원에는 一〇명의 직업동맹대표가 들어있다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에는 다음과같이 씌어있다 즉 〃우리는 두개의 낡은정당—공화당과 민주당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요구와 기대의 진정한 표현자가 되지못하는 것을 안다 그들의 강령은 다만 절망의 씨를 뿌려줄뿐이다 그들은 영웅적인 전쟁판에서 돌아온지 오래지 않는 젊은 귀환병에대하여 제三차 세계전쟁을 강제로 준비시킨다 인류에게 복무하는 첫길에 들어선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그들은 전반적 병역에대한 법령을 들고 나선다 기술을 습득하며 가정을 꾸미고 행복한 살림을 갈망하는 젊은 로동자들에게 그들은 인종적 차별과 잔혹한 사형(私刑)의 격화를 들고 나선다 우리는 평화와 자유와 풍족한 생활을 위한 투쟁을 위하여 새로운 정당으로 전향(轉向)한다

새 정당은 오늘의 미국청년들의 요구에 대답한다

군국주의를 강화하며 독점자본의 팽창을 장려하는 두정당의 강령에 반대하는 이 당의 립장을 고수하는것을 우리는 찬성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무장해제 실시에대한 새당의 적극적 제의와 쏘베트동맹과의 친선관계를 보장할데 대한 제의를 찬성한다〃

대회는 만장일치로 〃아메리카 청년들의 요구와 권리에관한 헌장〃을 채택하였다

거기에는 평화와 자유와 더좋은 물질적 생활조건을 위한 투쟁에서의 아메리카 청년의 요구가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술되었다

병역법을 격렬하게 비난하며 그것을 폐지할것을 호소한 결정과 평화와 민주를 위하여 투쟁하는 학생및 청년들이 민주주의적 국제단체들과 협력하는 결정이 채택되었다

공민권에대한 결정에는 〃十二명의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정지할것과 반미행동 조사위원회등의 해산〃요구가 포함되었다

대회는 합중국의 흑인주민들의 대다수가 사는 남방제주의 청년들속에서의 사업에 특별한 고려를 돌릴것을 제기하였다

〃아메리카 진보적 청년〃단체 대회는 첫 의장으로서 젊은 흑인—태평양전선에서 돌아온 귀환투사 알뷔나・드쥰사를 선출하였다 그는 또한 진보당의 부의장이 되고있다

헨리・월레쓰씨는 대회의 사업총화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아메리카 합중국에 씨원한 바람이 불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데일리 워커」지는 다음과같이 썼다 즉 「그들은 三〇〇〇마일의 거리(距離)를 돌파하여 이곳에왔다 그들이 하여놓은 모든것은 적의(敵意)에찬 출판계의 중상적 공격을 받고있었으며 또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온갖 장해를 극복하는데 그들은 자제력(自制力)을 조금도 잃지않았다 그들은

아메리카의 장래에 중대한 역활을 담당할 청년단체를 창건하였다 그들은 아메리카청년의 미래를위하여 투쟁할것을 전적으로 결심하고 대회를 끝마치었다 미래는 그들의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쟁취하고야 말것이다」

×

〃아메리카 진보적 청년〃단체는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의 실천을위하여 나섰다

젊은 흑인 도로찌•스미트제일리를 위수로한 많은 청년대표들은 징병령의 즉시 폐지와 흑인에대한 사형(私刑)금지법을 채택할것을 요구하는 강령을 국회의원에 제출하기위하여 워싱톤에 도착하였다 진보적 국회의원 마르칸또뇨와 이작손은 하원에서、상원의원 헤일려는 상원에서 징병법 철폐를 요구하고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림시 국회회의는 징병법 철폐안을 거부하였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위원들은 아메리카청년들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아메리카 진보적청년〃단체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청년들의 권리와 요구를 위한 투쟁에 궐기하였다 뉴•드제로시주안」(州)의 단체는「귀환병 권리만기되는 보조금대신에 귀환병을 항구적으로 보조하는 지불금을 위한 투쟁을 개시하였다 보스톤과 뉴—욕 기타 많은 도시에서 떼•엠•아(「아메리카 진보적 청년단체」)는 청년들을 군대에 등록하기 시작한날 새전쟁준비를 반대하여 청년들의 거대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보스톤에서 시위자들은 아래와같이 쓴 뿌랑카—트를 들고 나왔다 즉「군대는 우리 남편을 대포밥으로 만들려 한다」「등록할테면 하라 그러나 징병법 폐지를 전취하자!」「떼•엠•아의 대렬에 가입하라」 경찰은 시위운동을 파괴하고 시위운동 참가자들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검거하였다 뉴—욕에서는 등록하는 첫날에 망핫뗀구역의 떼•엠•아 지방단체에서 개최된 몇개의 집회에서만 미국의 반동적 대내 대외 정책을 폭로하는 十만매의 격문이 산포되었다

민주주의 세력의 장성에 놀랜 반동들은 채포 위협 테로의 박해등 방법으로 민주주의 단체들의 장성과 강화를 적퇴하며 진보당에대한 로동자 농장고용인 인테리청년 기타 미국인민의 다른층으로부터의 지지를 백방으로 박탈하려고 광분하고있다

미시간(州)의 뽄짜크시에서는 마음대로 날뛰는 팟쇼청년들이 진보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전에 봉사하였다는 리유로 十八세의청년 칼•오브레인에게 고문을 내리었다 경찰은 이사건에 대하여 수수방관하였다

시카고에서는 월레쓰를 지지하는 十五명의 청년이 진보당 후보자선거를 위한 방조에대하여 심의하기위하여 어느 지방대학의 기숙사에 집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의견교환을 하지못하였다 숙사에 란입한 경찰은 참석자들을 체포하였던것이다 이 경찰에 의한 시민권의 비법적 침해는 시민들의 격분을 일으키었으며 그 다음날 법정은 이「업무」(재판)를 정지하고「형사피고」를 석방하지 아니할수없었다

체포와 공갈은 민주주의 청년들과 그들의 단체인〃아메리카 진보적 청년〃의 력량의 장성을 막지못할것이다 그들의 다방면에 뻗힌 열성적인 활동은 이것을 확실히 증시한다 떼•엠•아 아메리카 진보적청년의 권위는 청년들 가운데서 거대하다 이단체가 출현된지 세주일사이에 二十四주(州)에 지방 단체가 형성되었다

〃아메리카 진보적 청년〃단체의 창립은 미국에서 민주주의 청년운동의 장성과 발전을 증명한다 국제민주주의 단체들과의 련결의 확대 및 강화와 그 단체들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것은 미국진보적 청년들의 통일을 실현하는 필연적 조건이다

아메리카 민주청년들은 아메리카인민의 선진적 부문과 함께 전세계근로자들의 유일한 민주주의적 반제국주의적 진영의 대렬내에서 평화를 위하여 민주를 위하여 투쟁할것이다

(몰로도이 불쉐위끄)

김 용 역

☆ ☆ ☆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헌신적 충실성은 공청원의 신성한 의무이다

응 덕 譯

조국에 대한 열애(熱愛)의 정은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인류의 제 덕성(德性)중의 한가지이다 공민의 영웅성과 조국에 대한 자기희생적인 공헌、 실례는 외래침략자들과 여러번 결전을 맞았던 영웅적인 우리 인민의 력사상에 풍부한것이다 사회주의 쏘베트국가의 위력의 공고화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표시된 수백만 쏘베트인민들의 애국심은 실로 그 류례(類例)를 보지 못할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인민들과 모든 민족들 쏘베트사회의 모든 계급들과 계층들에 널리 침투되어있는 이와같은 애국주의는 이전의 사회에서는 리해하지도 못하였었으며 디해할수도 없었던것이다

자기들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쏘베트인민의 열애— 이것이 쏘베트사회에서만 생성(生成)하였으며 발전한 최고형태의 애국주의이다 그는 자본주의국가들의 부르죠아지—가 자국의 청년을 그 정신으로 교양하는 소위「애국주의」와 또한 강도적 침략으로써 인종적 불평등과 타민족들의 노예화와 억압을 공언하는 야수적 민족주의와는 하등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것이다

쏘베트애국주의는 완전히 다른 로대위에 서고있다 쓰딸린동지는 말씀하기를 쏘베트애국주의의 위력은「그가 종족적 또는 민족적인 편견이 아니라 자기의 쏘베트조국에 대한 깊은 헌신성과 충실성 및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의 근로자들의 형제적인 협조를 자기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있는것이다 쏘베트 애국주의에는 여러인민들의 민족적 전동과 쏘베트동맹의 모든 로력자들의 전반적이며 사활적(死活的)인 리익이 개화적(諧和的)으로 융합(融合)되어있다 동시에 쏘련인민들은 외국인민들의 권리와 독립을 존중하고있으며 린접국들과 평화적이며 우호적으로 생활할수 있는 준비성을 항상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쏘베트인민들은 자기의 민족적 긍지(矜持)들로 가득차있다 우리인민의 이 긍지의 주요한 원천으로 되는것은 레닌—쓰딸린당의 령도밑에 그들이 쟁취한 거대한 승리이다 자기민족의 연원(淵源)을 법적으로 자랑하면서 쏘베트 인민은 자기가 세계에서 최초로 자본의 기반(羈絆)을 국내에서 분쇄하였고 로력자들의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지구의 六분지一에 사회주의를 건설한데 대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더 자랑하고 있는것이다 쏘베트인민이 인류에게 바친 어떠한 공헌에도 대비(對比)할수없는 가장 훌륭한 공헌(貢獻)이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쏘베트애국주의— 이것은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쏘베트 사회 및 국가제도의 거대한 우월성과 부르죠아 문화에 대한 쏘베트문화의 막대한 우수성에 립각한 깊은 자존심인 것이다

우리인민들은 쏘베트공민으로서의 영예와 위신을 고상하게 유지할줄 알고있다 저명한 쓰따하노브 운동자 아•부쉬낀은「나와 나의 동무들의 생활」이란 자기의 저서(著書)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다 때는 一九三六년 여름 그가 피서지에서 휴식하고 있던 당시였다 그의 면전(面前)에는 포—드회사(미국의 자동차회사)의 한 대표라는자가 나타났다

—「부쉬낀씨 나는 포—드씨로부터 당

신에게 보내는 부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당신을 데트로이드시(市)에있는 자기공장에서 일하여 달라고 당신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가면 당신을 위하여 가장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황금의 홍수(洪水)를 일으켜 드릴 작정입니다」―포―드씨에게 전하십시오―하고 부쉬낀은 대답하기를―「쏘베트로동자는 자기자신을 결코 황금에 팔지는 않습니다 나는 쏘베트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조국을 위하여 일하며 나의 전생애(全生涯)를 통하여 조국에 복무할것입니다 나는 자본가들의 옆차기에 돈을 불룩하게 채워주기 위하여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환경은 나에게는 나의 조국에 이미 구비되여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우리사회내의 개별적인 락후한 인물들은 아직도 자본주의적인 서방(西方)의 썩어빠진 문화에대한 비굴성(卑屈性)과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이것은 쏘베트공민의 영예와 위신을 모독(冒讀)하는것이다 쏘베트인민들은 이 수치스러운 과거의 잔재를 어떻게 하루속히 근절할까하는 결정적 지향으로 일관되어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외래문물(文物)에 대한 비굴성의 어떠한 표현에 대하여서든지 무자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것이다

쏘베트애국주의는 현실적이며 활동적이며 창조적인 감정인것이다 자기의 행동에서 실제로 애국적 감정을 표현하지않고 다만 말공부에만 그치는것은 결코 애국자가 아니다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며 자기의 조국을 자랑한다는것은 조국의 리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며 쏘베트국가의 륭성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쏘베트애국주의의 고상한 감정은 우리 인민들을 조국전쟁의 곤난한 수년간을 통하여 고무하여주었다 후방에 있어서의 쏘베트인민들의 로력공훈은―하고 쓰딸린동지는 말씀하시기를―전선에서의 우리 병사들의 영원불멸의 군사상의 공훈과 마찬가지인 것이며 열렬하고 생기발발한 쏘베트애국주의를 자기의 원천으로하고 있는것이다―라고 하시었다

전쟁을 승리적으로 종결지은 후 자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 불타오르는 쏘베트인민은 인차 전후 五개년계획의 기한전 완수와 우리국가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자기 희생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쏘베트애국주의는 우리사회발전의 강대한 원동력의 하나로되는 것이며 우리인민들의 세계관의 유기적(有機的)인 일부분으로 되는 것이다 쏘베트청년에게 조국과 자기인민들에 대한 열렬한 애정과 자기 조국의 창조적 로력(勞力)및 자기 문화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배양한다는것은 쏘베트사회의 자각적이며 사상적으로 확고한 공민과 공산주의의 자기희생적이며 적극적인 건설자를 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 즉 볼쉐위끼당이 우리국가를 인도하는 로장에 있는 어떠한 곤난도 극복할만큼 준비되어 있는 레닌―쓰딸린의 대업의 열렬한 옹호자를 육성함을 의미하는것이다

이렇기때문에 청년을 쏘베트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주는것은 공청의 모든 사상적 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 것이다

X

레닌공산청년동맹은 쏘베트청년의 선진부대이며 쏘베트애국청년들의 조직체이다 공청은 자기조직의 성원으로된 매개 청년에게 전력을 다하여 쏘베트조국의 영예와 위력을 배가(倍加)하며 쏘베트사회주의 제도를 불요불굴(不撓不屈)하게 공고화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국(母國)과 자기 인민과 불쉐위끼당과 우리의 령도자 쓰딸린동지에 대한 열렬한 애정속에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공훈과 투쟁으로 수백만(數百萬) 청년들을 궐기시키고있는 창조적 령감(靈感)의 무진장한 원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 조국에 대한 쏘베트청년의 헌신성과 조국의 리익을 위한 배려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에서 표현되어야하는가? 우리청년의 주요한 애국적인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일 첫째로 레닌―쓰딸린당의 대업(大業)에대한 복무에 있는것이다 공산당의 령도밑에 당의 영명한 계획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가 건설되었으며 인민들의 우의(友誼)와 전체 쏘베트인민들의 도덕적 정치적 통일이 공고화 되었다 당의 지도밑에 우리 인민들은 자기의 도상(路上)에 가로 놓여있던 온갖 난관을 타개하여 나왔으며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있어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현재에 있어서는 쏘베트국가의 위력(威力)을 공고화하고 있는 것이다

매개 공청원들의 애국적 의무는 불쉐위끼당의 정책을 끊임없이 충실하게 실생활화(實生活化)하는것이며 자기의 로력과 자기의 실천적 활동으로써 당의 결정과 지시를 실천하려고 투쟁하는데 있는 것이다

쏘베트 인민들의 의식(意識)중에서는 공산주의와 조국은 혼연일체(渾然一体)로 되어있다 이것은 쏘베트인민의 애국적 의무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기때문이다 자기의 월간 년간 및 五개년 계획량을 기한 전으로 완수하며 고도로 로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있는 청년로동자들, 고도의 수확을 거두고있는 청년 꼴호즈원들, 해외과학의 성과를 릉가(凌駕)하고 있는 청년과학자들―그들 모두가 쏘베트조국의 열렬한 애국자인 것이며 공산주의를 위한 선진적인 전사이다 모든 쏘베트청년 남녀들은 그들이 어떤 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아서는 안되는것이다

우리조국의 부강한 원천과 쏘련의 근로자들의 복리의 원천과 쏘베트 제도의 경제적 기반으로 되는것은 생산 수단과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사회재산을 보호 강화하며 전력을 다하여 이것을 증가시키는것이 바로 매개 쏘베트공민의 신성한 의무인 것이다 불쉐위끼당과 레닌과 쓰딸린은 근로인민들을 사회재산존중의 정신으로 교양주었다 그리고 사회적 인민재산을 절약하는 태도에 대하여 수백만 쏘베트인민들의 의식속에 깊이 뿌리박아 놓았다 사회주의적 재산에대한 자기희생적인 보호의 혁혁한 모범을 쏘베트인민들은 조국전쟁시기에 보여주었던 것이다 원쑤들이 우리국토에 침범하였을때 로동자들은 최대의 용감성을 발휘하면서 공장시설과 기계 기구 원료를 구출, 하였으며 이 모든 것을 국내의 안전지대로 이송(移送)하였던 것이다 꼴호즈원들은 집과 개인재산을 포기하면서도 공유(公有)가축은 그것이 강점자들에게 리용되지 않도록 이동시켰다 수천명의 무명영웅(無名英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서 적군의 강점지역내에 있는 국가재산을 은익(隱匿)하였던 것이다

전후(戰後)의 건설이란 조건하에서는 절약과 경제를 위한 투쟁이 가장 큰 의의(意義)를 가지게 되었다 五개년계획에 의하여 거대한 건설계획이 예정되었는바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물자와 금전상의 막대한 소비가 필요한 것이다 쏘베트의 한루불리와 한 킬로그람의 금속, 석탄, 석유, 곡물도 이 모두가 최대의 리익을 가져오도록 지출되어야 할것이다

공청원은 사회적 사회주의적 재산을 보호하며 증가시킬 의무를 지고있다 이것은 국가재산을 사용(私用)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며 인민의 복리 재산에대한 무관심하고 용서할수없는 태도에 대하여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청원은 자기주위의 청년들을 과거의 유해(有害)한 잔재에서 구원하며 그들에게 국가재산에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여줄 의무를 지고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경제성과 랑비와 태만과 투쟁하여야 할것을 의미하며 기업소 기계 뜨락또르 정류소 및 꼴호즈의 관리자들에게 경리를 경제적으로 또한 열심히 진행하도록 원조하여주며 금전출납을 정확히 하며 국가재산에 대하여 가장 절약하여 취급하며 인민재산의 일전한푼을 보호해주도록 도와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 로동생산성을 부단히 제고하며 생산품의 원가를 저하시키며 기업소들의 수익성제고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청원의 신성한 의무는 쏘련 헌법을 준수하며 쏘베트법령들을 준수하는데있다

쏘베트법령들은 인민의 리익과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것이다 그들은 인민의 재산— 즉 사회주의적 국가재산을 보호하며 쏘베트인민의 제권리를 보장하여주며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생활하며 근로할것을 가르쳐주며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주고 있는것이다

뽈호즈농촌의 환경에서는 농업아르쩰리(농업협동조합)규약의 엄격한 준수가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농업아르쩰리의 쏘딸린적 규약은 뽈호즈생활의 기본법이다 뽈호즈의 공청원은 다만 규약의 모든 요구를 자기 자신만이 충실하게 준수하는데 만족할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뽈호즈 농장의 공고화를 위하여 이 규약에대한 온갖 위박에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공청원은 쏘베트 제법령의 엄격한 준수와, 이에 대한 위반과의 결정적인 투쟁없이는 우리공업과 농업 국가기관 및 국내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정상적 발전은 도저히 보장할수 없다는것을 리해하여야 한다 공청원은 항상 혁명적 순법(遵法)의 전초(前哨)에 서있어야하는 것이다

×

쏘련의 매개공민의 애국적 의무의 고상한 표현은 손에 무기를 들고 조국을 방위하는데 있다

쏘딸린 헌법중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明記)되어있다

「조국의 방위는 쏘련의 매개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一三三條)

이 조문(條文)의 심오(深奧)한 진의(眞意)는 전쟁의 위태(危殆)에 빠졌을때에는 매개 쏘베트공민은 쏘베트국가의 명예와 독립을 고수하기위한 투쟁의 대열속에서 자기의 일터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위대한 조국전쟁의 첫 시기를 회상하여 보기로하자 一九四一년 七월 三일에 쏘딸린동지는 모든 쏘베트인민들을 조국방위에 궐기하도록 호소하였다 그리고 쏘베트애국자들은 령도자의호소를 받들어 평화적 사업에 남아있으면서 자기들의 모든 생활을 전쟁에 수응(隨應)시켜 개조하였으며 자기생활을 진성한 조국전쟁의 리익에 복종시켰던 것이다

자기조국을 위하여 그처럼 곤난한 시기에 있어서 레닌—쓰딸린적 공청의 육성자(育成者)들은 조국에 복무하였던 것이다

수백만의 공청원들은 지원병(志願兵)으로서 전선으로 출전(出戰)하였다 공청원들은 공산당원들과 어깨를 겨누고 가장 책임이 중하고 위험한 분야에서 투쟁하였었다 공청원인 전사(戰士)들과 공청원인 빨찌산들은 허다한 전투에서 애국주의를 표명하였다 조국전쟁시기를 통하여 三천명의 공청원들이 쏘련 영웅의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수만명의 공청원들이 훈장과 공패를 받았든 것이다

현재 쏘베트군대는 쏘베트인민의 평화적 사업의 전초에 서있으며 전 세계의 여러 인민들간의 평화의 전초에 서고있다 「쏘련 헌법에는 「쏘련 무력의 대렬에서의 병역복무(兵役服務)는 쏘련공민의 영예스러운 의무로 된다」(一三二條)고 명기되어있다 이 영예스러운 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공청원들은 쏘련 무력의 대렬로 소집(召集)되기 오래전부터 자기자신을 준비하여 두려고 호응하고 있는것이다

전련맹 레닌공산청년동맹 맹원은 병사이전 장교이전 부대의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사령부와 당기관을 보조한 의무를 지고 있다

어떠한 특성을 공청원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쏘련의 무력이 하는 전쟁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조국에대한 애정과 레닌—쓰딸린당의 대업에대한 충실성과 호담(豪膽)과 용감성과 투쟁에서 공포를 모르는것과 조국의 원수를 반대하여서는 전체인민들과 함께 전사(戰死)할수있는 준비성에 있는것이다 이것은 의지와 훈련의 힘이며 조직성과 교양이다 규률없이는 군대가 없다고 레닌은 말씀하였다 규률은 군대내에서 실시되고있는 쏘베트정부의 제법령에 기초를 두며 또한 생명과 생활양식과 군대의 군사행동등을 규정하는 군규(軍規)의 체득과 엄격한

준수에 있는것이다 공청원인 매개의 군인은 군사규률이 요구하는 바는 바로 쏘베트국가가 요구하는 바임을 똑똑히 인식하고있다 군대규률을 확립한다는 것은 인민의 의사를 집행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용감성과 대담성외에도 기지(機智)가 필요하다 현대전(現代戰)은 그의 가장 복잡한 기술과 아울러 또한 해박(該博)하고 심오(深奧)한 지식에서 나오는 숙달(熟達)을 요구하는것이다 공청원은 자기의 군사기술을 일상적으로 향상시키며 통요(通曉)하며 군사경험을 백방으로 습득하며 그속에서 교훈을 얻어내며 청년병사들속에서 군사경험을 광범히 선전할 의무를 지고있다

군대의 고도의 전투능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군사상 및 국가적 기밀(機密)의 엄수에 있는것이다 군대복무자는 군사기술에 매일같이 접촉하고 있으며 군대조직을 숙지(熟知)하며 다만 자기부대 뿐만아니라 린접한 부대의 배치까지도 알고있으며 군용창고를 보위하고있는 등등이다 어떤 병사나 장교에게 군사기밀이 보지(報知)되었을 때에는 그는 이것을 절대로 엄비에 부치며 눈동자처럼 귀중히 취급하며 항상 이에대하여 경각성이 높아야한다

쏘베트군대에 복무할 준비를 하는 한편 공청원은 자기 자신속에 견고한 의지와 결단성과 대담성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특성들을 소유하며 육체적으로도 단련되는것을 보조하는것은 체육과 스포—츠이다 평화적인 경기장에서나 또한 군대의 대렬에 쉬이어서나 공청원은 선진적인 체육인이 되어야하며 스포—츠단체 및 쏘베트군대 해군 공군의 협조단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쏘련 무력의 전자의 전투적 준비는 그의 정치적 준비와 불가분(不可分)적인 관계를 가지고있다 전련맹 레닌공산청년동맹의 맹원은 병사들의 모든 정치교양사업에 있어서 사령관의 충실한 지주(支柱)이다 공청원인 병사의 과업은 정치지식을 꾸준히 소유하며 자기의 동무들의 정치적 장성을 도모하여 주며 병사와 장교들을 조국에 대한 헌신성및 모든 원수들로부터 조국을 방위하여낼 준비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있어서 당단체의 제일 첫째가는 보조자로 되는데 있는것이다

공청원인 병사들에게 있어서 범(犯)할수없는 철칙(鐵則)으로 되는것은 전사선서(戰士宣誓)—즉 청년 병사들이 병역에 복무하는 제일기(第一期)를 끝마친후에 하는 엄숙한 맹서이다

선서를 하는 동시에 청년 병사는 자기의 조국인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련맹을 용감하게 에지로써 또한 위신과 영광으로써 보위할것을 맹서하며 자기의 피와 자기의 생명을 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쟁취를 위하여서는 아끼지 않을 것을 맹서하는 것이다

공청원에게는 군사적 의무의 위반과 선서의 위반보다 더 중대한 수치와 불명예가 없는것이다 쏘베트애국자는 전쟁의 더전에서의 비겁과 소심을 경멸(輕蔑)하며 또한 그는 자기가 쏘베트군대의 병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는것과 자기의 무기와 자기 련대의 영예를 보전(保全)한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다 군사적 의무와 선서에대한 충실성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대업인것이다 근위대원인 공청원 유리이·스미르노브를 회상하여 보자 적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그에게서 물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부상당한 그를 포로로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유리이·스미르노브는 선서를 굽히(違背)지 않았으며 군사기밀을 넘겨주지 않았으며 그는 쏘베트 병사답게 공청원답게 행동하였던 것이다

매개 부대마다 각자의 독특한 군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부대의 력사상에 기록되어있는 병사와 장교들의 영웅적인 공훈들과 최고사령부의 포상장(褒賞狀)과 련대 및 사단기(旗)위의 훈장들 및 그들의 허다한 칭호—스몰렌쓰고 제와 쓰뜨릴리 개니히스빠르그 려순등이 모두가 청년병사들을 고무시키고있다

공청은 쏘베트군대에 복무하는 공청원에게 영예로운 전투적 전통을 보전하여 나가며 만사(萬事)에 있어서 그 전통을 계승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단체들은 전련맹 레닌공산청년동맹의 매개 맹원들에게 쏘베트 인민에게는 자기의 조국보다 더 고상하고 귀중한것은 없다는 고귀한 자각을 배양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기에 조국 방위자임을 위하여서는 그는 자기의 전체 력량과 뿐만아니라 요구만된다면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완료(完了)되어 있는것이다

(공청뿌라우다 一九四九·一〇·一四)

都市와 農村사이의 대립성과 쏘련에 있어서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도

아·꾸로빠뜨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있어서 쏘베트인민들에 의하여 해결되고있는 중요한과제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과학적 공산주의의 창시자들인 맑쓰와 엥겔쓰는 벌써 공산주의사회는 계급사회의 산생물의 하나로서의 이대립성을 종국적으로 소멸시키지 아니하면 안된다는것을 가르키셨다 그러나 푸로레타리아혁명이 승리하기 오래전에 살아있던 맑쓰와 엥겔쓰는 다만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을 극복하는 일반적 개괄만을 지적할수가있었다 새로운 사회적조건하에있어서 레닌과 쓰딸린은 우리나라에있어서 사회주의건설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러한 대립성을 완전히 극복하는 구체적방법과 수단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지시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의 로작에의하여 쏘베트동맹의 근로인민들이 볼.위끼 공산당의 지도하에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있는 공산주의건설의 프로그람이 선정되었다

×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은 인간사회의 먼옛날에 발생하였다 이대립성은 원시공산사회로부터 노예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로동의 사회적분업이 성장함과함께 개인소유가 발전하여 사회가 계급으로 분렬함과함께 산생되었다 이대립성이 앞으로 더 발전한 결과로서 도시는 물질적 정신적문화의 중심으로 되었고 농촌은 국단적으로 락후할 운명에 처하였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단계에있어서도 시에비한 농촌의 이러한 락후성은 자본주의조건하에 있어서는 더욱 격심한 성격을 띠게되었다 농촌을 자기의 지배하에 예속시킨 자본주의는 농촌을 신음과 몰락과 기아에로 몰아넣었다 농노를 착취한 봉전주대신에 도시에 고리대(高利貸)가 출현하였고 봉전적 현납대신에 농민을 휩쓸어 그들을 완전히 자본에 예속시킨 저당변상(抵當辨償)이 출현하였다 맑쓰의 표현에의하면 자본은 소농의 심장과 머리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아(吸血兒)로되고있다

자본주의하에있어서는 농촌과 도시간의 대립성은 더욱 격심하여지고있나 왜 그런가하면 자본주의는 완전히 공업을 농업으로부터 분리하며 쌍방의 발달이 아직 충분치 못한 형태를 서로 결합시키는 그들의 동맹을 분렬시키고있기때문이다

레닌은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 「공업으로부터 농업의 완전한 분리에서만 거대한 기계공업이 산생할수있다」(선집三권 四七一페지) 거대한 기계공업은 방대한 인구가 집중되는 공업 중심지의 형성을 초래한다

생산력발전과 아울러 자본주의는 인구를 주로 도시에 집중시킨다 이와반면에 농촌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락후한 발전수준에 남겨둔다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된 자본주의국가 미국에있어서도 역시 농촌로동의 기술적용구는 공업로동의 기술적용구보다 뒤떨어지고있다 미국농업에있어서는 전농민수의 다만 二三、一%가 뜨락또르 콤바인 물로젤크를 소유하며 一五、五%만이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며 一五%의 고정적발동기를 소유함에 지나지않는다

농민경제의 절대다수는 계속적으로 원시적인 농촌경리의 도구로써 토지를 경작하고있는것이다

공업으로부터 농업의 부단적락후성은 자본주의발전의 불가피한 법칙이다

부르조아 어용경제학자들은 농업이 공업보다 락후하는 원인은 따라서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은 농업발전의 자연학적 특성에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견해의 비정당성을 폭로하면서 맑쓰·레닌주의는 농업이 공업보다 락후한 원인이 토지의 비옥도가 「감소하고있는데」있는것이아니라 생산방식의 자본주의적 성격에 있다는것을 증명하였다 맑쓰는 다음과같이 기록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에서 생산은 공업을 농업보다 더 빨리 발전시켰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결론은 토지의 본질에서가 아니라 토지는 자기의 본성에 적합하도록 경영되기위한 다른 사회적관계를 요구하는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칼·맑쓰 잉여가치리론 三권 二三三페-지)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는 농업에있어서 기술의 적용을 방해하며 소작료의 형태로서의 거대한자본을 농업생산리용으로부터 다른데로 돌리며 따라서 농업은 공업으로부터 더욱 락후하게된다

제국주의단계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더욱 격심하여진다 「주로 무역계와 산업계에서 형성되는 자본의 압박은 농업에대하여 나날이 더욱 심하여간다」라고 레닌은 말씀하였다 (선집十七권 六三九페-지) 거대한리윤을 짜내면서 무자비하게 소중생산자들을 착취하는 독립적유일체를 구성하고있는 은행가의 압박이 산업자본가 대지주 토호들의 압박에 첨가된다 미국 농민의세금 一九二九년도에 三八억六천八백만루불리이었는데 저당채금은 一九一〇년도 三三억二천만루불리이던것이 一九三二년도에는 八五억만루불리로 증가되었다 독점 자본의 압박이 심하여진 결과로서 소농업자들의 파산과정이 격화되고있다 그들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제를 내버리고 무수한 빈농과 무수한 실업농민을 가증시키며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 방랑하지 않으면 안되게된다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의 소멸은 역시 물질적 정신적문화의 근거지가 비할데없이 매우 확대되는데있어서 표현된다 자본주의는 농촌주민들의 장생을 억제하며 그들이 교육을받고 문화생활에 참가하려는 가능성을 금한다

레닌의 표현에의하면 「자본주의적 도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농촌을 타락시켰다」(선집二七권 三九〇페-지)

이리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은 자본주의제도하에있어서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첨예화되고있다 도시자본가와 토지소유자에 의한 근로농민들의 착취는 더욱 강화하여간다 농업은 자기발전에있어서 더욱 도시로부터 뒤떨어지며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적간격은 더욱 벌어진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함과동시에 이러한 대립성을 소멸시킬 전제조건이 발생하였다 도시에있어서 농촌의 근로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갈수있는 혁명적 푸로레타리아계급이 장성되며 로동계급과 농민대다수가 받고있는 자본의 공동적압박은 그들간의 동맹의 토대를 지어준다 푸로레타리아지도밑에 실현되는 자본주의의 혁명적인 전복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을 소멸시킬 기본적조건이 생기는것이다

×

위대한 十월사회주의 혁명은 처음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을 소멸시킬길을 열어주었다 사회주의혁명의 결과로써 자본주의적 기업소、은행、철도、토지、기타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었으며 제二차쏘베트대회에서 결정된 토지법령에의하여 농민은 지주 부르죠아황제의 손에있던 一억五천만제샤진(一제샤진은 一정一단四보八-여자주)이상의 토지를 분배받았다 토지국유화가 실현됨에따라서 농민들은 一년에 거의 五억루불리에 달하는 인채료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러한 모든 혁명적변혁의 결과로서 로농간의 우의적동맹 도시로동자의 농촌근로인민들에대한 지도 지주와 자본가를 반대하는 그들의 공동적투쟁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그들의 공동적과업을 수행하기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새로운관계가 설정되었다 사회주의정권하의 도시는 농촌과 무관계하며 적대적세력으로서 출현할것을 용납하지않는다 도시는 농촌을 위하여 친목과 헌신적 원조의 화신(化身)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혁명의 결과로서 나타난 변화는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관계에 있었서 아직 그의 대립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十월사회주의 혁명은 도시와 농촌간의 적대적관계를 소멸시키기는하였지만 이혁명은 아직 일시에 그들간의 대립성을 소멸시킬수는 없었다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은 농촌의 경제적 문화적 락후성에 관련되는것이며 이 대립성의 극복은 다만 공산주의사회의 가장 높은 계단에 있어서만 실현되는 장구한 과정을 요한다

우리들의 인민경제가 두개의 경제적기초에 서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첫 시기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을 완전히 극복한다는것은 더구나 불가능한것이다 도시에있어서는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법칙에 의하여 발전하고있는 국유화된 대공업이 우세를 차지하고있는 한편 농촌에있어서는 단순재생산까지도 실현될 가능성이 경상적으로는 보장되지못하는 개인소유의 소농경제가 우세를 차지하고있다 원시적인 기술과 락후한 로동조직을 가지는 개인소농경제의 수많은 대중들의 존재는 공업으로부터 농촌경리의 락후성을 극복할 가능성을 주지못한다

다만 국가를 공업화하는 방법으로써만이 농촌경리를 가장새로운 기술에의하여 재무장할수있으며 기계로써 토지생산을 가능케한다 소농경제를 사회주의적인 혁신의 방법으로써 거대한 집단적경제로 만드는데서만이 이러한기술을 농촌경리에 있어서 리용할수있으며 공업으로부터 농업의 락후성을 극복할수있으며 이리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의 근본적인 로대를 전복시킬수있는것이다

레닌—쓰딸린의 협동조합계획에 의하여 지도하면서 우리당과 정부는 협동조합과 여산매부의 단순한 형태를 백방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써 근로인민을 농촌경리의 집단적정책에로 참가시켰다

이렇게함으로써 소농적농촌과 사회주의적도시와의 접근이 발생하였다

국가공업화로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개혁을 위한 물질적 기술적토대의 창설을 보장하였다 一九二九년말에가서 쏘베트국가는 대공업을 계획하였다 이렇게함으로써 농촌경리의 전면적집단화를 개시할수있었던것이다 이 시기에있어서 농민들에대한 커다란 교양사업이 우리당과 로동계급에의하여 제기되었다 이교양사업은 농민들로하여금 토지의 집단적경작의 우월성과 가장새로운 농업기술의 우월성을 설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재건설사업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집단적 로동과 토지를 경작하는데있어서 기계사용의 모든 우월성을 실제로 보여준 기계 뜨락또르지정소와 쏩호즈는 거대한 역할을 놀았던것이다 곡물수매사업과 농촌경리의 집단화를 실패에돌리려고하는 부농파 투쟁하는 가장 중요한방책이 당과 쏘베트정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수백만농민대중의 지지에 립각하여 쏘베트정부는 『그 결과로보아 一九一七년十월의 혁명적 변혁과 동등의 의의를 가지는』 농촌에 있어서의 가장 심각한 혁명적 변혁이 발생되었다 (쏘련공산당력사 (볼쉐위끼) 간략독본 二九一페—지)

수백만근로농민대중은 자신있게 사회주의의길에 들어섰다 전면적집단화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최후적인 착취계급—부농—이 청산되었다 쏘베트정권은 인민경제의 가장 광범한 령역에있어서 즉 농촌경리에있어서 사회주의적 기반을 획득하였다

一九二九년十二월 맑쓰주의적 농촌지도자대표회의에 출연한 쓰딸린동무는 『꼴호즈의 장성과 아울러 도시와 농촌간의 관계에대한문제는 새로운 기반에 올랐을것이며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은 급진적속도로 소멸될것』이라고말씀하였다 (레닌주의제문제 二八六페—지)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촌경리의 집단화는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의 급속한 극복을위한 현실적 조건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농업집단화에의하여 농촌경리는 공업부면과 동일한 사회주의적 기초위에서 발전하기시작하였다는데있어서 표현되었다 이리하여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생산수단에대한 개인소유는 청산되었으며 모든 착취계급과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데서부터) 생기는

제요소들이 소멸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있어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의 기본적원인 즉 생산수단에대한 개인소유는 청산되었다

두가지형태로서 존재하는 사회주의적 소유—국가소유(전인민적 소유)와 꼴호즈협동조합소유는 도시에있어서 혹은 농촌에있어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농촌경리의 집단화로 말미암아 농업의 발전속도는 훨씬 강평하였고 공업발전속도에 가까워졌다 농촌에있어서 대집단경제는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에 의하여 발전하였으며 해마다 수확고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서 농촌경리는 급속한 보조로 전진할 가능성이 이루어 지었다

국가의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는 농촌경리에있어서 신식기술과 선진적농학을 적용하기 위한 광범한 가능성과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을 극복하는 사업에서 역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농촌의 문화적 앙양을위한 광범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一九三四년 볼쉐위끼 공산당 제十七차 대회에서 쓰딸린동무는 우리들의 업적을 다음과같이 특징지었다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은 사라질것이다 도시는 농민들에게 그들을 착취하는 중심으로 될것을 중지할것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문화적 련대성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농촌은 뜨락또르 농촌 기계 자동차일군 물자등을 도시와 그의 공업으로부터 원조를 받고있다 농촌자체도 지금에있어서는 기계뜨락또르 지정소 기계수선소 꼴호즈의 각종 공업기업소 조그마한 발전소등의 형태로서 자기의 공업을 소유하게되었다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적 장벽은 점점 해소되어간다』 (레닌주의 제문제 四五八페—지)

×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이 벌써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말할수있는가?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수없는것이다 왜 그런가하면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의 극복은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의 물질적 기술적기반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쓰딸린적五개년계획중에 꼴호즈농촌에있어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을 급속히 극복함을 보장하는 거대한 물질적 기술적 기초가 창설되었다 이 시기에있어서 농촌에서는 기계뜨락또르지정소의 광범한 망이 나타났으며 수만의 발전소와 여러가지 부공업적 기업소들이 건설되었다 생산수단을 집중시키고 로동을 기술적으로 무장함으로 써 꼴호즈생산은 공업생산에 현저하게 접근하였다 『현재 새로운 현대적기술은 우리공업과 농업의 재로운기초를 설정하였다』라고 쓰딸린동지는 말하였다 (레닌주의 제문제 五七五페—지) 쓰딸린적 국가공업화 정책과 농업집단화정책의 성공적실현의 결과로서 우리농업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기계화되었다 조국전쟁시기에 꼴호즈에서는 五二만三천의 뜨락또르와 一八만二천의 콤바인과 二十만이상의 화물자동차가 일하였다 一九三九년에 중간적 꼴호즈의 생산수단은 九만八천五백루불리였는데 一九四○년에는 一二만四천九백四四루불리에 도달하였다

거대한 뜨락또르공장은 一九四○년도에 꼴호즈에있어서 춘경의 七五%를 기계화하며 휴전의 八○%를 발전시키며 춘추과종의 五二、四% 콤바인에 의한 五三、四%의 곡물수확을 기계화할수있는 가능성을 지어주었다

농업에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로력이뜨는 작업을 과거에는 상상치도못하던 정도도 기계화할수있는 농업기계 一○二종이 전쟁시기에 있어서 기계뜨락또르지정소에 배치되게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히틀러 독일의 배신적 침공은 농촌경리의 물질적 기술토대를 파괴하였다 다량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는 전선수요를 위하여 제공되었고 나머지 농업기계들은 더 쓰지못하게 아주 헐어졌었다 독일파시스트 점령자들은 농촌경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놈들은 一三만七천의 뜨락또르 四만九천의 콤바인 五천만이상의 기타 농업기계들을 독일로 탈취하여갔다

전쟁이 종결되자 당과 정부는 제五개

년계획기간에 있어서 전쟁에서입은 상처를 부흥시킬뿐만아니라 농업생산의 기계화를 전전수준까지 제고시키기위한 모든방책들을 채택하였다 새五개년계획기에 있어서 기계제작공장들은 농촌경리를 위하여 三二만五천의 뜨락또르 一九만五천의 꼼바인 수백만의 각종농업기계 수단의 화물자동차 경자동차를 생산하지않으면 안된다

전후 五개년계획의 종말에가서는 농업생산의 기본적과정에 있어서의 기계화는 달성될것이다 파종사업의 기계화는 곡물재배에있어서 七〇% 가축사료에 있어서 九〇% 목면재배에있어서 九五%에 달할것이다 농촌경리에있어서의 기계의 적용은 농촌과 도시간의 대립성을 극복하는데 막대한 의의를 가진다 기계화는 농업생산의 모든부문을 백방으로 발전시키며 농업과학의 새로운달성을 광범하게 응용하며 농촌일군들의 로동을 일층 더 덜게하며 그들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로 말미암아 농촌로동은 공업로동의 다면성으로 전화하여간다 이사실은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의 하나인 것이다

전후시기에있어서 광범히 발전되고있는 농촌경리의 전기화는 물질적 기술적농업토대를 향상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을 청산하는데있어서 막대한 의의를 가진다 엥겔쓰는 지적하였다 「농촌의 전기화는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공간이 될것이다」 (맑쓰 엥겔쓰선집 二七권 二八九페—지)

다만 一九四五년만하여도 농촌경리에있어서 六九만七천킬로왓트나 되는 방대한 농촌전기화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기계뜨락또르 지정소 六七九개소 꼴호즈 二천四백二十二개소를 전기화하였다 현재 우리들은 수만의 전기화된 꼴호즈와 기계뜨락또르 지정소를 소유하고있다

야로슬라브(주)(州) 모쓰크바주(州) 기타 쏘련의 여러 주(州)들이 완전한 농촌전기화에 접근하고 있으며 스웨르드로브주(州)는 벌써 농촌전기화를 완수하였다 새五개년계획에 의하여 七만의 꼴호즈와 전기계뜨락또르 지정소가 전기화될것이다 사회주의경제는 더욱 지방발전소의 전기에네르기를 리용하기 시작하였다

농촌의전기화는 농촌에서의 로동을 다면적인 공업로동에로 전변하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꼴호즈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백방으로 가능케하며 농민들의 문화적 면모에있어서 막대한 변화를 야기시키고있다

농업과 축산업에대한 새로운 소여의 과학의 광범한적용 농촌경리의 화학화 관개공사의 건설등도 역시 농촌경리의 생산력발전을 가능케한다

모든 이러한것은 토지수확고와 가축생산의 현저한 향상과 농촌경제에 있어서의 로동생산률의 급속한발전을위한 튼튼한 토대가 되는것이다

×

농촌경리에 있어서의 물질적 전제조건의 창설과 생산력의발전과 아울러 농촌주민들의 문화적발전은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을 극복하는데 막대한 의의를 가진다

꼴호즈제도에의하여 벌써 농촌의 문화와 그의면모에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농촌의 경제적 문화적면모가 변화한것은 물론 인간의로동과 모든 생활양식도 변화하였으며 인간자체도 변화하였다 기계뜨락또르 지정소、 발전소、 구락부、 문화회관、 학교、 영화소、 식당、 빵판매점、 아동공원、 탁아소、 라디오、 도서관이 있는 새로운 꼴호즈농촌이 출현하였다

우리농촌의 경제적 문화적 면모가 사회주의승리의 결과로써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위하여 그의례로서 우리나라의 입의의농촌을 들어보기로하자 실례로서 모쓰크바주(州) 나스따시노농촌은 혁명전까지는 五七농가가 있었는데 그의 대다수는 빈곤한생활을 하였고 그들은 쏘하(로시야 시대에 사용하던 보섭)를 가지고 경작하였으며 굴뚝이없는 조그마한집에 광솔나무에 불을케고 살았다 겨울에도 아마포로 만든옷과 보의를 입었으며 천으로만든 신을 신고있었다

그러나 지금에와서는 이농촌은 모쓰크

바주(州)중에서도 우수한꼴호즈의 하나이며 九一개농가를 단합시키고있는 「승리」의 꼴호즈인것이다 꼴호즈에 있어서의 모든 기본적경작로동은 기계뜨락또르 지정소의 뜨락또르와 꼼바인에 의하여 수행된다 꼴호즈에는 자기의 발전소、 탈곡기 四개、 刈禾機 三개、 草刈機 三개、 신식보섭 써레 각종 탈곡기계 七〇개 有角家蓄 八〇두 돼지 四〇두 과수원 養蜂所를 가지고있다

一九四七년도 이 꼴호즈에서는 소맥、 과맥、 과실등 풍부한 수확을 거두었다 이꼴호즈의 대표적 이·씨·에고로브는 헌신적 로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로동영웅의칭호를 받았고 기타 꼴호즈원들도 훈장과 메달로 포창받았다 거의 매개 꼴호즈원은 집울타리를 판대기로 둘러싸고 조각물로 장식된 새롭고 견실한집을 가지고 있다 꼴호즈령토에는 벌판、 야채원、 유목장、 꼴호즈원들의 주택을위하여 수도본선이 건설되었고 거대한 곡물간조기 오양간 연와공장이 설치되었고 二층학교 구락부 도서관을 소유하고있다

다른 한개의례로서 끼로브주(州)의 갈리군(郡) 「붉은十월」이라는 꼴호즈를 들어보기로하자 높이발전된 곡물경작 축산 채원 경제를 소유하는이외에 「붉은十월」꼴호즈는 두개의 고기(肉)공장 당밀생산 제분기、 면재통、 지물사、 마구공、 화공、 수개의 온상、 여름의 침실 두개의 식당 두개의 빵판매점을 소유하고있다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부차적기업소와 목축연구소에 전기에네르기를 제공하며 꼴호즈원들의 주택과 문화적 생활시설을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고있다 꼴호즈에는 아동공원 탁아소를 소유하며 증기난방장치(蒸氣煖房裝置)나 전등 영화설비 도서관 농업연구소 전화 교환소를 비치한 二층문화회관을 소유하며 자기의 교양소 영화극장 라디오 설비를 소유하고있다 방금 이꼴호즈에서는 증기난방장치 수도 목욕탕을 가지고 꼴호즈원들의 열화주택들이 광범히 건설되고있다

이러한 례들은 쏘베트 농촌에서 일어난 그위대한 변화들에대하여 무엇보다도 웅변으로 말하고있다 농촌은 경제관계에 있어서 혹은 문화적관계에있어서 도시를 따라가고있다 과거에는 락후하고 암흑한 농촌이 지금에와서는 사회주의도시를 본받아서 부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건설하고있다 꼴호즈농촌은 수백 수천의 학교 구락부 문화회관 극장 도서관·독서실등을 건설하려고 계획하고있다

사회주의국가는 꼴호즈원들을 도시의 높은기술과 사회주의문화에 결합시킴으로써 꼴호즈농촌을 도시와 긴밀히 련결지었다

생산력의 시이적절(時宜適切)한 배합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국가는 지금까지 락후하였던 변경들을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문화적인 지방으로 전환시켰다 운수교통기관—철도 수상운송 공중운송 륙지우편、 라디오、 전신、 전화등—의 광범한발전은 공업중심지를 가장 산간벽지의 농촌에까지 긴밀한 련락을 취할수 있게끔 하였다

농촌의 경제적 문화적 면모의 一신은 동시에 농촌거주민들의 사회적 정신적 생활의 변환을 의미한다 쏘베트정권이 수립된후 몇해동안에 꼴호즈농촌을 위하여 수만의 꼴호즈간부들과 기계뜨락또르 지정소를 기계화하는 간부들이 준비되었다 농촌에 있어서는 과거에 보지못하던 직업 뜨락또르운전수 꼼바인운전수 전기기계 조립공 기계운전공등과 같은 일군들이 출현하였다 볼쉐위끼당의 거대한 교양사업의 결과로서 쏘베트농촌의 인간들은 자본주의국가의 농민들이 일찌기 알지못하였고 또한 알지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독특한 도덕관념을 얻게되었다

높은 수확고를위한 전꼴호즈경쟁운동의 행정에있어서 쏘딸린동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타난 자기의무의 완수에있어서 도달한 농촌경리의 제성공은 꼴호즈농민이 자기네들의 정치적각성과 로동의적극성에의하여 로동계급의수준에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건설의 수년간은 꼴호즈농민들의 문화적 기술적수준의 장성에있어서 거대한 제성과를 거두었다 꼴호즈의 선진분자들은 벌써 때때로 일반적인 농업기술인테리겐차와 구별하기가 곤난하여졌다 그들은 놀라울만한 지식을 소유하며 기술적으로 자기의사업을 옳게 처리하며 높은 생산로동에 도달하고있다

높은 수확의 숙련자들은 다만 소여의 과학을 리용할뿐만아니라 학자들에게 농학기술의 새로운 적용을 암시하고있다 꼴호즈농촌일군들은 도시문화의 급격한 장성을 주의깊이 연구하며 이러한 문화를 꾸준히 자기네것으로—만들고있다

우리농촌은 벌써 정치계몽기관—수백수천의 학교、 구락부、 극장、 독서실、 실험실등—의 광범한 각종형태의 망을 계획하고있다 전후 새 五개년계획에 있어서는 문화건설사업에 가장 큰 주의를 돌리고있다 五개년계획에 의하여 농촌에있어서의 초급학교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의 비약적증가 구락부、 극장、 영화설비 병원의 앞으로의 건설사업이 예견되었다 그뿐만아니라 농촌주민들의 대다수는 각종강의를 청취하며 특수학교에서 학습하게될것이다

이러한방책들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극복하는데있어서 한걸음 더 빠르게할것이다 이리하여 농촌과 도시간의 문화적수준의 접근은 급격한속도로써 달성될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의 물질적부유의 발전은 더욱 커다란 정도로 사회주의문화의 개화와 농촌의 문화적 향상을 가능케 할것이다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전환은 이러한 생산력 발전수준의 달성을 예상한다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이야말로 다량의 물품생산을 보장하며 이러한 생산품을 분배함으로써 공산주의원칙에로의 전환을 보장하는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제五개년계획중 다량의 기본적필수품의 생산을 보장하지아니하면 안될 사회주의 농촌경리는 막대한 역활을 놀아야한다

×

쏘련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소유의 두가지 형태—국가소유와 꼴호즈협동조합 소유—의 존재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않았다는 한개의 표현이다

본질상 사회적소유의 이두개의 형태는 유일형태인것이다 왜그런가하면 생산수단에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적소유형식의 유일형태성은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며 더욱 접근할수있게한다 이러한소유형식의 가일층의 접근, 따라서 도시와 농촌간의 접근과정은 국가소유와 꼴호즈협동조합소유간의 유일형태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적 소유형식간에는 생산수단에대한 로동자와 농민의관계의 특수성, 로동의사회화 정도의 불동일성, 로동조직과 로동지불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차이가 아직 존재한다

가장 성숙한 가장높은 소유형식으로서의 국가소유는 꼴호즈협동조합소유형식을 강화하며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지도적이며 방향을 가르치는 역활을 한다

쏘딸린적 五개년계획기간중에 두가지사회주의적소유형식을 공고화하며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성과를 보게되었다 이기간에있어서 국가소유는 무한히 증가되었다 조국전쟁직후 국가소유는 국가의 생산자금에있어서 九〇%이상을 점하였다 농촌경리에있어서 국가소유의 비중은 매우 장성되었다 이것은 꼴호즈농촌에대한 관계에있어서 사회주의적 도시의 지도적역활의 증대를 명백히 보여주는것이다

사회주의적소유의 매개형태—국가소유와 꼴호즈협동조합소유—는 사회주의의 조건에 있어서 력사적으로 규정된 고유한 방법으로써 공산주의소유에로 발전될것이다 그들의 발전과 공고화의 과정에있어서 이러한형식의 가일층의 접근을위한 조건이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사회주의적 소유형식이 유일적 공산주의소유에로의 전환에의하여 로동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간의 계급적 차이의 소멸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여기에 도달하는길은 꼴호즈에대한 국가적지도의 기본적공간을 형성하고있는 기계뜨락또르 지정소의 앞으로의발전과 꼴호즈협동조합소유의 백방적강화와 증가를 통하여 가능한것이다

농업아르쩨리의 경제조직에있어서의 백방적강화 꼴호즈협동조합소유의 증가 로동생산성의 제고의길만이 농촌경리에 있어서 생산력의 앞으로의 발전을 보장하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풍부한생산을 걷을수가 있다

쏘딸린동무는 말씀하였다 「장래의 꼼무나는 一층발달된 기술과 一층발달된 아르쩰리의 토대위에서 생길것이다」(레닌주의제문제 四六九폐ー지)

꼴호즈협동조합소유의 발전과 공고화는 락후한 꼴호즈원들의 一부분에서부터 꼴호즈로동에대한 태만적태도를 취하는사실에서 또는 꼴호즈재물을 존중히 여기지아니하며 이를 략취하는사실에서 또한 개인리익과 사회적리익을 대립시키는 사실에서 나타나고있는 개인소유관념의 경향과 결정적투쟁을 전개할것을 요구한다 당과 쏘베트정부에의하여 꼴호즈협동조합소유의 백방적강화와 공고화를위한 꼴호즈농민들을 로동에대한 사회적관계의 정신으로 태만분자 기생충 꼴호즈재물의 략취에대하여 참을수없는 정신으로 교양시키기위한 가장중요한 대책들이 채택되었다

전후시기에 있어서의 농촌경리의 발전대책에 관한 볼쉐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 二월전원회의의 력사적제결정과 「꼴호즈에있어서의 농촌아르쩨리규정을 침범하는 행위를 청산하는 제대책에 관한」 볼쉐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와 쏘련내각회의의 결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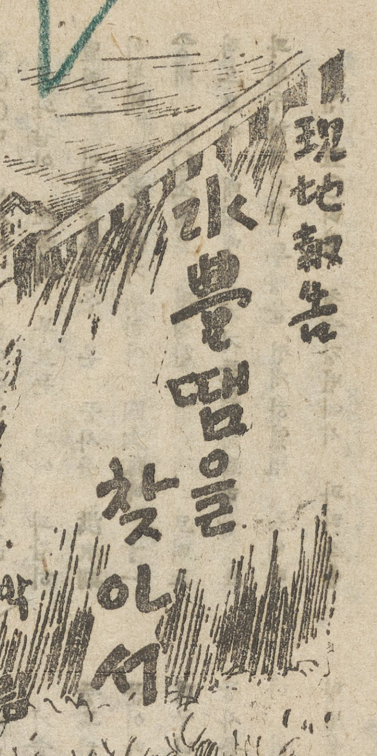
×

도시와 농촌사이의 대립성의 극복은 결코 큰 도시를 업재고 소부분으로 분산시키며 또한 도시의 수준을 농촌의 수준까지 저하시킴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도시와 농촌사이의 대립성을 업재는 과정은 도시를 청산하는 방법에서 수행되는것이 아니라 낡은도시의 광범한 재건설 새로운도시의 건설의 방법으로 꼴호즈농촌의 경제적 문화적발전 및 농촌의 경제적 문화적수준을 사회주의적도시의 수준까지 백방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에서 수행되는것이다

공산주의에로 력사적전진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적도시는 꼴호즈농촌문제에대한 자기의 지도적역활을 가일층 강화할것이다

당의 지도하에 도시와 농촌사이의 대립성을 소멸시키는데 있어서 거대한 성과를 걷운 쏘련의 근로인민들은 사회주의의건설의 완수의길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전진하로 점차적인 전환의길은 성과있게 전진하고있다 이러한 길로써 우리들은 오는세기에 결친 도시와 농촌사이의 대립성을 종국적으로 극복하는데로 나아가고있다

—끝—



現地報告

水풍땜을 찾아서

박

명말길을 넘어서부터는 紺碧色 푸른 물빛이 손에 잡힐듯 압록강이 내려다 보인다

몇十리 밖에서도 보인다는 장대한 수풍땜!

자라나는 새 민주조선의 거대한 원동력으로 되어있는 웅장한 땜은 하늘을 가로 막을듯이 높이 一一五메ー터와 길이 연연 一k의 육중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있는것이 바라보인다

지난해 四월부터 시작되었던 이땜의 보수건설공사도 제돌을 맞이하면서 전체인민들과 청년들의 거대한 력량으로 드디어 지난 五월十五일날 준공의 개가를 올렸다 다시 말하면 조국의 경제건설에 다시없는 커다란 새로운 승리의 하나로서 공화국인민들의 영예로운 기록으로 남았다

「이 모든것이 우리들의 것이다!」다부지게 그욱해지는 영예감과 후련한 심금에 가슴이 뛴다

아직도 잔여작업에 바쁜 공사장 현장근처에 터잡은 민청위원회를 거쳐 위원장 조련수동무의 뒤를따라 숨가쁜 층층다랄 허덕이다싶이 올랐다

높고 낮은 구릉(丘陵)과 산등의 저목이 굴곡진 갈피마다 무성한 이나라의 림산자원—백두산기슭의 원시림다운 수목이 푸른빛짙고 땜 저편 중국땅 곡석구배(勾配) 가 심한 산에선 뻐꾹새 울음소리마저 장한히 들려온다

처다보면 하늘이 낮아지는듯하고 내려다보면 지면이 가물거리는 땜은 실로 웅장하기 이를수없는 장엄한 자연의 정복자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땜을 중심으로하여 위로는 잔잔한 湖水요 아래로는 四〇〇여척 절폭을 드리운듯한 비폭이 펑펑쏟는 콩크리트 단애이다 二〇여문의 수문을 넘을때까지 푸른빛의 물결은 순시에 백옥으로 햇발무지개를 뻗히며 떨어진다

내려다보면 케 상자만하게 적게보이는 발전소에서는 一〇만마력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땅을 울리며 하늘가에 사무친상싶게 웅장한 소릴 훌퍼뜨리군한다

아직도 부분적으로 다져지는 공사장엔 건설과 창조의 기계성이 으릉으릉 울어댄다

오늘 인민정권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베풀은 시책과 막대한 국가적 배려와 해방의 은인 쏘련 기술자들의 형제적방조로 이땜이 더욱 굳건하게 건설되었다

지난날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와—경제적 략탈의 손아귀에서 리용되던 땜이다

그러나 오늘! 쏘련군대의 영웅적승리와 쏘련인민들의 어엿한 지성의 손길로 내조국 부강 새민주조선에 다시없는 원동력으로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땜!

민청위원장 조련수동무와 나는 다시 민청위원회로 돌아왔다

지난 一년동안 본 에푸롱공사를 완수하기위한 전체로력일군들의 로력투쟁에 있어서 우리청년들이 조국에 이바지한 힘은 다대한것이 있었다

×

본시 왜놈들이 八년이란 장구한 시일과 막대한 조선인민들의 로력을 강제로 공출하여 오직 침략적기도아래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기술능력의 전부를다하여 구축하였다는 이땜에는 벌써 준공된지 이태가 지나지못해 커다란 파탄과 龜裂이 생기게 되었던것이다

즉 매초(每秒)에도 해아릴수없을만한 수량(數量)과 억척스럽게 내려쫑는 강대한 수력으로 말미암아 땜 바닥 콩크리트는 최대 四메ー터의 깊이로 三만ー천五백립방메ー타나 침식파손되었고 익수로의 토사는 五〇〇만립방메ー터나 물에 류실되었을뿐만아니라 익수로 문앞은 깊이가 약 十八메ー터에나 달하도록

패워져갔던것이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공화국 인민경제발전과 무진한 번영의 담보로되며 전력생산에 원동력이며 원천으로되는 수풍댐을 一층 견고한 땜으로 확보하기위하여 올바른 시책과 적절한 조치로 막대한 국가예산과 로력자재를 다하여 본 땜의 보수 건설공사에 착수하며 공화국 전체 인민들의 끓이넘는 창조적로력에 호소하여 불굴의투쟁으로써 마침내 휘황한 조국창건사에 또 하나의 승리를 기록하게 한것이었다

풀매미소리섞이는 강바람을 시원한 이마에쏘이며 자기들의 업적을 말하는 민청동무들의 말에 의하면

본 공사의 준비계단에 있어서부터 공화국 전지역에서 소환배치된 청년기술자들—평북, 벽동, 창성, 구성, 삭주 동지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동원되어온 민청원들은 매일 동원된 숫자만하여도 무려 二五〇〇명 이상에 달하였었던 것이었다

이와같이 조국이 부르는 길에 과감히 떨쳐온 민청동무들은 본 공사를 洪水期이전에 준공시키기위하여 四大隊에 十一중대 四〇소대로 편성한 합리적 로력조직으로써 매일매일 자기들의 계획량을 초과완수하기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위험 五〇미터 청수장벽에서 파라스를 채취하는 사업으로부터 선별공장, 洗條混合공장 콤페아운선—탑 크레—ㅇ, 기중기운전등 실로 광범한 범위에서 자기사업을 완수하였던 것이다

민청원은 이것을 실천하기위하여 자기들의 민청조직을 강화하는 一면 본공사가 갖는 국가적 의의를 인식하고 공사사업과 결부시켜 동맹 정치 교양사업을 부단히 전개하여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견고부동한 조국의 심장—수풍땜 에프롱을 승리적으로 건설하기위한 건설의욕을 품고 눈부신 투쟁을 전개하였다

열어제친 창문으로 「까츄샤」의 로씨야 민요소리가 어디선가 굴어 들어온다

「저노래가 바루 쏘련기술자 씨뽀후니꼬프 동무가 이곳 동무들에게 가르쳐준 노래입니다—쏘련기술자들은 특히 우리민청동무들과 퍽 가까웠던 것입니다」

이번 공사에 있어서 쏘련기술자 일곱동무의 역활은 탁월하고 선진된 과학적 기술방조로써 우리들에게 기여된바 크다

기술적지도와 과학적 분석밑에 그들은 풍부한 학리적 경험을 토대로 배수시설부문이라든가 혼합공장 시설등에 있어서나 더구나 파괴된 에푸롱면전에 콩크리—트 공사를하기위한 물막이작업은 세차례적이나 실패한것을 그들은 과학적인 계획과 방법을 제시하여 방지하였고 또한 엄동기(嚴冬期)에 있어서도 능히 콩크리—트를 할수있는 전기공법을 가르쳐주는등 온갖 난관을 극복하여 본 공사의 빠른 진척을 보장하도록 하여주었다

울려다보이는 땜의 수문으로는 비단결이 바람에 나붓기듯 백결같은 물줄기가 떨어지는것을 바라보면서 위원장 조련수 동무는

「저 땜에 에푸롱을 입히는데 있어서 그중 자랑할만한것은—」하고 계속하는 말은 탑 그레—ㅇ의 역활에 대한것이었다

하루에도 八백十립방米의 콩크리—트를 운반하고 그밖에 중요하고 중량있는 물자운반에있어서 막대한 역활을 다한 탑 그레—ㅇ 운전공들은 우리 동맹이 낳은 정의윤 리상전 동무이다

이 동무들은 본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의 사고도없이 근근一〇〇米나되는 고공을 솔개미날아다니듯 압록강을 횡단하며 운전공작을 담당하였다

두동무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크레—ㅇ 운전사업을 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보장하기위하여 먼저 자체교양을 높이며 자기기술을 질적으로 제고시키기위한 대책으로 기술경험의 교환을하며 일상적 기대의 점검 고장부분의 사전발견과 기계

애호동으로 동맹이 준 고상한 자기사업을 높은 성과로 보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제一대대장 홍몽식동무는 자기사업을 원만히 집행하기위하여 민청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구체적이며 조밀한 자기계획을 수립하여 일상적으로 맹원동무들을 조직지도하며 자기들의 사업을 집행하여 가장 우수한 업적을 쌓았고 선봉적인 위치에서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였다



—전기는 흐른다…—

제때에 조직하였으며 제때에 과업주었고 제때에 검열하였는가?

이와같은 사업지침을 세워놓고 동맹결정을 구체화하기에 노력하였다 초급단체회의를 제때에 개최하며 실제 자기들의 실정에 알맞는 구체적인 사업조직과 그 집행을 토의하여 웃점을 一층 제고조장하며 나타난 결점은 제때에 퇴치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또한 교양사업을 정상적궤도에 이끌어올려 매개 맹원들로 하여금 교양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자기열성을 다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열성맹원들로된 핵심체로하여금 모범적 실천으로 자기들의 계획을 매번 一二〇%—一五〇%를 확보하도록하였다

아직도 잔여작업을 계속하는 공사장에서는 기겟소리들이 들끓는 로력속에 무르익는다

한때에는 애놈들이 우리들의 손으로는 복구불가능하다고 호언하면 이곳 수풍땜 에푸롱공사는 기여이 우리들의 손으로된 자재와 우리들의 애국적로력으로 총면적 三만평방메—터—의 웅장한 위용의 땜으로 보수되었던것이다

우리손으로 굳건해진 땜!
우리손으로 길이 지켜져갈 땜!

四년간에 자라난 우리의 힘은 강철이라도 녹일듯 장성했다

땜은 우리나라의 무진장한 힘과 부강한 발전을 상징하는 國家의 모습 그것이다

×

由緖깊은 압록江畔에도 황혼이 깃든다 곳곳마다 휘밝은 전등이 축광대로 불탄다

어둠속에서도 白幅의 땜은 雄姿그대로 어둠을 기입하려는듯이 장대하다

발전소 배수로를 몸태질치며 쏟아져나오는 흰 물결은 용드림치며 분류와합치어 뗏목을 밀고 어둠속으로 어둠속으로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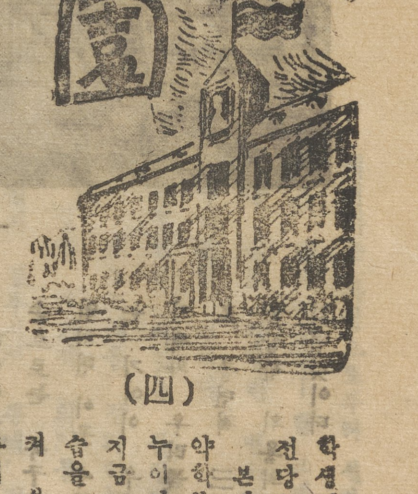
땅을 울리는 수십만킬로 발전기의 전동소리는 전장한 땜과 더부러 더욱 우렁찬 음향으로 기어드는 정막을 찢는다

그 소리는 영원히 사라지지않을 조국의 찬가인듯 소리를 떨친다

—으릉! 으릉! 정녕 승리의 래일을 지향하는 위대한 음향인것이다

—끝—

자라나는 學園 (四)



평양 의학 대학 편

김 항 식

기자가 평양 의학대학을 찾은것은 六월도 거의 지난 그 어느날이었다

콩크리트 담장이 둘리선 평양의학대학은 그곁에 부속병원을 끼고 三층 철근콩크리트건물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나 마당주위에 무성한 록음밑에는 학습에 여념이 없는 본대학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벌어져 눈에 띄운다

인민정권의 따뜻한 시책아래 더할없는 자유와 행복속에서 자라나면서 있는 이곳 민주학도들은 지금 선진적 보건의학기술습득에 온갖 정열을 기울이고 있나

본의학대학은 一九四六년 김일성종합대학창립과 동시에 종합대학 의학부로 소속되어 있다가 一九四八년七월부터 평양의학대학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대학은 오늘날 공화국의 보건의학기술을 습득 련마하는 최고학부로서 七백여 학생청년들의 배움의 전당으로 되고있다

본대학은 의학부, 약학부, 위생학부로 나누이어 의학부에서는 지금 인체해부의 실습을 리론에 병행시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四, 五학년은 대학부속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있다 그리하여 금년七월에는 대학이 창립되어 첫번으로 五〇명의 졸업생을 치료의사로서 사회에 내어놓게되었다 그리고 약학부에서는 과거 조선사람의 손으로 약을 만들지못하고 외국에서 사오던 조선약학기술의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이에대한 과학적 최고지식으로 교육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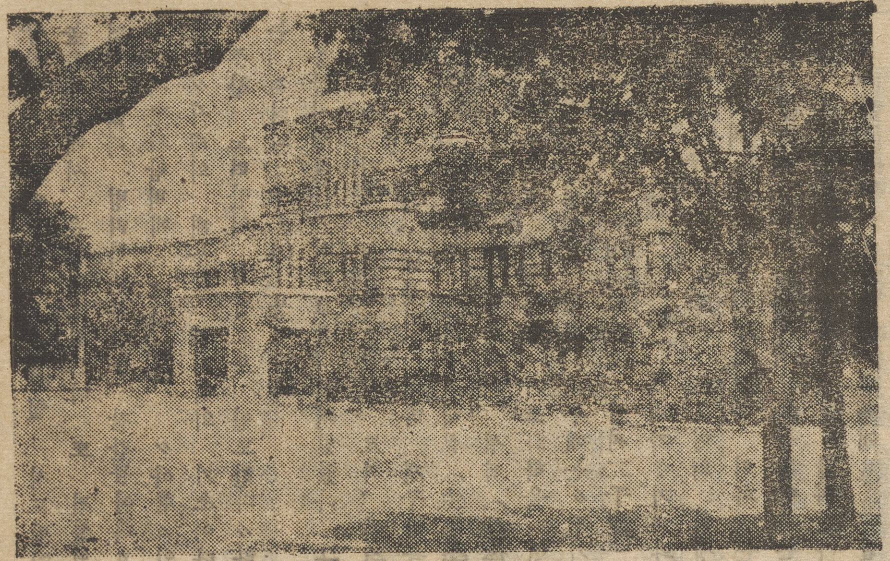
본대학 위생학부는 인민보건사업에있어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의학으로서의 위생의학을 연구하는 학부로서 종래의 조선의학이 주로 치료의학에만 치중하여왔기때문에 위생의학이 극히 비약함을 극복하기위한 연구를 거듭하고있다 그러므로 이 학부 전체학생들은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충실한 새세대의 과학일군이 되기위하여 선진쏘련의 위생의학을 연구습득하고 있으며 영양위생학, 공중(公衆)위생학, 로동위생학, 학교 위생학등, 생활과 장가 밀접한 사회위생에 관한 학문을 닦고있다 그리하여 오래지않아 그들은 민주새조선에서 처음생기는 전문 위생의사로 사회에 진출하게 될것이며 이에대한 학계와 정부의 기대는 자못 큰바있다

전체학생청년들은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남겨놓은 「돈벌기 위한 의사」의 낡은 리기주의적 부패성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오로지 인민의 리익을위하여 새로운 민주사상과 도덕관념으로 무장하고 고상한 보건과학일군으로서의 지각있는 강력한 부대로 자라나고 있다

×

본대학 전체 학생청년들은 대학민청위원회의 지도밑에 十九개초급단체로 나누어 동맹중앙이 제시한 제반과업을 성과있게 추진시키고 있으며 동맹중앙의 지도방향을 자각적인 규률로써 강력히 실천에 옮김으로써 대학내의 모든 사업을 추진시키며 자체를 련마하면서있다

그리하여 "과학에는 대로가 없다 누구든지 피곤을 겁내지말고 험한길을 올라가는 사람만이 과학의 절정에 도달할수있다" 라고 한 칼·맑쓰선생의 말씀을 명기하고 매개학생들은 앞날의 우수한 보건 민족간부로서의 튼튼한 토대를 닦고있다 이제 여기에 본대학 민청위원회로부터 「모범학생」으로 지적받은 몇동무를 간단히 소개하면 의학부 리수원동무는 재학 三년간에 걸쳐 언제나 모든 학생들의 선두에서 학업성적제고에 노력하여 최우등생의 영예를 쟁취하였고 대학민청 조직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평양 의학대학 전경▷

또한 의학부 황기여동무는 남조선 대구의전(大邱醫專)에서 공부하다가 민주학생으로 판정되어 축출을 당하여 박동경찰의 경계망을 뚫고 입북하여 민주학원 본대학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다 이동무는 항상 자기학업성적과 실지 실험기술을 제고시키기위하여 면밀하게 자기계획을 수립하여 최우등생의 영예를 쟁취하고있으며 전체학생들의 모범으로 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동무는 현재 교양지도원으로 동맹사업에있어서 김장군께서 동맹제三차대회에서 말씀하신바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준비시킨다는것은 청년들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민주사상으로 교양하며 과학적 선진리론으로 무장시킬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라고 하신 정신을 높이받들고 정치교양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다음 의학부의 리금순동무는 一九四九년四월 중국신민주주의청년단 전국대표대회에 초빙을받고 북조선 학생대표의 한사람으로 참가하였었다 그는 학원의 생활을 너욱 명랑히하는 문화사업에도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학업성적에있어서 최우등의 모범을 보여주었나 또한 의학부의 홍전희동무는 재학三년간 계속 최우등생으로 그의 학리적연구와 탐구욕은 전체교수들의 칭찬을 받고있으며 전학급생들의 학업지도에 중심지도자로서 신망과 위신이 두텁다

×

본대학에서는 방금 국가졸업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앞두고 一명의 락제생도없이 五〇%이상의 우등생을 보장하기위한 자체학습지도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 락후생에 대한 개별적 지도반을 八〇여개에 절쳐 조직하고 각반마다 우수한 학생을 배치함으로써 학업성적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그리고 학술써-클 연구발표회를 一주一차씩 정상적으로 가짐으로써 임상적으로 연구습득한 학습리론의 기초와 토대를 더욱 견실히 하고있다 이와같이 시험기를 맞이한 본대학 민청위원회의 꾸준한 사업은 매개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더욱더 충동시키면서 그들로하여금 이번 학기말시험과 국가졸업시험에 四점이상을 쟁취함으로써 전체인민앞에 보답하겠다는 결의를 날로 새롭게하게한다

×

이와같이 줄기차게 자라나는 민주학원의 기풍은 七〇여명의 교수와 학생간의 형제적 친목으로도 명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친절한 일상적인 질의문답으로 학습실력을 더욱 높이고있으며 우리조선의 보건의학발전을 위하여 친히 지도해주며 쏘련에서오신 알쥬난박사의 지도밑에서 각강좌의 교수사업은 질적으로나 량적으로나 높이 보장되고있으며 학생들은 알쥬난박사의 직접지도를 받으면서 미츄린학설을 위시한 쏘련의 저명한 학설을 연구하며 또한 발표회를 수차 조직하여 많은 수확을 걷우었다 또한 병리학교실의 약 三〇명의 쿠루쇼크원들은 一주에 一차씩 쿠루쇼크회의를 조직하여 학술써-클 연구발표회에도 자기의 연구를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

지금까지 쿠루쇼크원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페니시링의 작용에대한 새로운 해명과 신장(腎臟)에 발생되는 특이한 병 一반신(斑腎)一에대한 새로운 병리학적 발견은 앞으로 학계에 큰도움을 줄것이다 이 모든 연구사업에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각종 과목별로되는 十一개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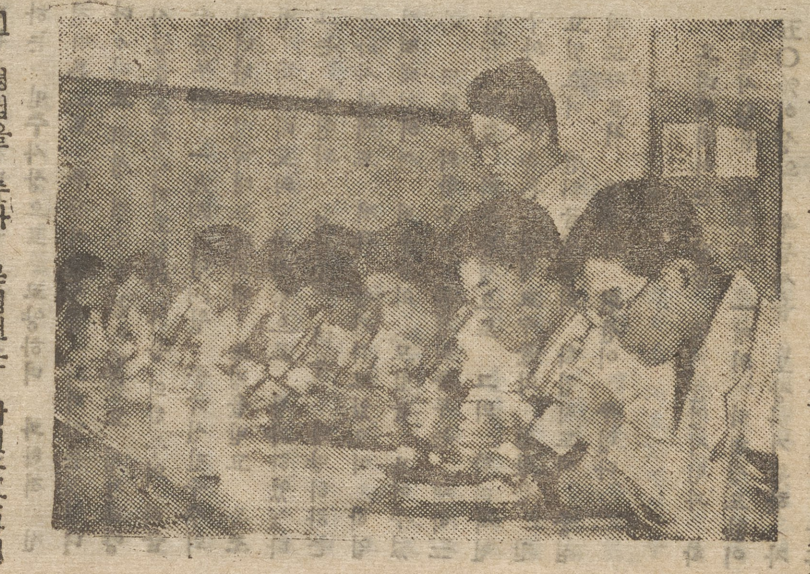
구실들은 교수들의 책임적인 지도밑에 높은수준에서 운영되고있으며 또 건설되면서 있다 병리학해부실을 잠간들여다보니 저편바람벽에 병리학자 "아쇼프"의 말—"시체의 해부는 병리학의 기초이다 꾸준한 노력만이 목적으로 인도한다"라는 격려의 구호가 붙어있다

동물사양실은 병리교실 옆에있었다 그가운데는 각종 시험동물—토끼、백쥐(마우스)、개、비둘기、기타 개구리들이 사양되고있었다 생화학실험실(生化學—)에서는 유기화학부분에서 생체(生体)에 응용되는 림상적인 기초화학을 연구하기위한 실험을 한다 내부에는 "진기자동증류기" "전기고온로(섭씨二千度)" "원심침전기(遠心沈澱器)" 등 각종기계와 약품들이 구비되어있으며 四〇명의 학생을 일시에 수용할수있게되었다 이와같은 설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문것이라는 것을 본실험실의 리상룡선생은 말하였다

세균학교실에 들어서면 "실험에 묻고 실험에서 답을 구하라"는 학술구호가 더한층 학생들의 연구욕을 긴장시킨다 실험대우에는 여러가지 시험관들이 놓여있고 세균을 배양하기위한 육즙(牛肉汁)과 한편선반우에 역시 고형배양기(육즙에 다른 물질을 가하여 굳게한것)가 보인다 그리고 본교실에는 현미경이 약一二〇대 비치되어있다 다음 조직학실험실에는 인체의 병적조직체를 분류하여 표본으로 풍부히 저장하고있다

계통해부실엔 태아(胎兒)의 발육형태를 순차적으로 나타낸 모형과 표본 수없는 인체골 두골들이 각기 제자리를 찾아 놓여있는 것이고 한편옆 땅크실(시체저장실)에는 푸오르마린액에 담기워진 인간시체들이 있다

이 모든 완비된 실험실에서와 아울러 동대학부속병원은 또한 학생들에게 림상적인 경험을 준다 본병원은 각전문분과에 걸쳐 완비되어있으며 환자입원실은 五〇〇명을 수용할수있는 넓은 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금년六월부터는 현재동평양에 신축중에있는 본대학 부속병원이 대규모적건물로 완성되어 평양의학대학 전체



◁실험에 전 정신을 집중시켜…▷

학생들의 커다란 자랑으로 될뿐만아니라 전체 인민의 자랑으로될것이다 그리고 본대학 도서관에는 고금을 통하여 조선의학계의 보물로되어온 의학서적 十만부가 장비되어 학생들은 시간만있으면 열람실에서 학습하고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서적들을 대출할수도 있게되어있다 그리고 본대학 기숙사는 현재 전체학생의 五〇%를 수용하고있으며 앞으로 대학부속병원이 신축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병원건물은 기숙사로 사용하게 될것이며 五〇〇명이상의 인원을 수용하게 될것이다

이밖에 본대학에서도 내각결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대다수 학생들이 받고 있어 공화국 중앙정부의 따뜻한 시책아래 더없는 영광속에서 학습하고있다

×

이와같은 행복된 환경가운데서 본대학 전체 민청원들은 명랑하고 건강한 민주학원의 기풍속에 날로 젖어들어 자기들의 본신임무인 학업성적제고에 더욱 힘쓰고 있을뿐만아니라 또한 본대학 민청에서는 써ー클사업을 활발히 추동하고있다 부문별학술써ー클과 문예써ー클들이 자못 활발하다

그리고 체육써ー클에서는 륙상、축구、럭비、배구、롱구、정구、빙상등 각부문에 걸쳐 전체학생들을 써ー클에 집결시켜 체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있다

그리하여 평양의학대학 전체 민청원들은 선진과학지식으로 보다 튼튼히 무장하고 불꽃튀는 학습일가운데서 날로 자라나고있다

青年講座



美術과 青年

김 종 식

미술이라함은 혼히 조형예술(造形藝術)을 말하는것이며 이는 회화(繪畵) 조각(彫刻) 도안(圖案) 건축(建築) 등을 포함하는것이다

미술은 우리인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가지며 또한 우리인간생활의 一부분으로 되는것이다

인간은 자기들의 고상한 정신적 발선과정에서나 또는 자기들의 로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미술과 관련을가지며 또한 훌륭한 미술적 유산(遺産)과 창작속에서 문화적생활의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면 이같은 조형예술—미술은 우리 인류사회에서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물론 미술이 한개 사회적 이데오로기—형태인만큼 이것은 일정한 경제체계와 련결을 가지고있다 즉 사회적 이데오로기—형태로서의 조형예술은 그의 사회적 하부구조인 경제적 제관계와 합법적으로 일치하고 있는것이다

원시적인 조형예술—미술은 인간들의 체취(採收) 수렵(狩獵) 등 로동과정에서 자기들의 생(生)을 위한 로동도구를 제작함에(주로 석조、목조、골조) 점차 그 로동요구에다 보기좋고 편리하도록 조형감을 갖추기위한 노력으로부터 생겨났다 즉 다시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로동도구에 일정한 장식(문양、형식、기교)을 하게되었던것이니 이것이 곧 그들의 미술이었다

또한 원시적 수렵경제시기에 있어서 그들이 수렵할 또는 수렵한 동물등을 동굴(洞窟) 벽이나 암석(岩石)우에 그려놓거나 재겨놓고 자기들의 의사를 소통하였으며 의지를통일시켜 공동노력을 조성하였다

례로서 피레네산맥중에서 발견한 "에루따미라"동굴속에는 지금부터 약一五,〇〇〇년전에 그렸다고 추측되는 들소(野牛)의 모양이 남아있는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그림과 조작으로서 그들은 동물에대한 자기들의 승리와 지배를 상징시켜 일종의 우월감과 쾌감을 느꼈다

이와같은 회화 조각은 또한 직접적이 실용적 목적으로 원시인간들의 자기들의 의지를 발표하는 수단방법、즉 금일의 문자와같은 역활을하게끔 리용하면서 더욱 다양으로 발전시켜 갔던것이다

이와같이하여 회화 조각형상은 그들의 집단내에서 一정한 련락을 설정하는 수단으로 되었으며 나아가선 어떤 단체나 어떤 종족에있어서의 중대한 "력사적" 사건들을 기록하며 기억할수있는 방편수단으로서도 리용되면서 발달하였던 것이다

이상 말한바와같이 미술의 발생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생을위한 로동과정에서 직접적인 생산용구인 로동도구의 발달과 아울러 그들의 사회적 생활에서 一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위한 창의적 노력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발달하였던것이다.

이와같이하여 발생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미술은 계급사회의 출현이후 드디어 계급적인 성격을 갖게되었으며 따라서 지배계급에 복무하는 선진수단 또한 오락수단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까지 어떤 사조를 걸쳐왔으며 오늘 우리들이 지향하고 창작하는 새로운 사실주의적 미술이란 어떤것인가 라는것을 간단히 이야기 해보자

여기서 미술이 걸어온 허다한 사조에 대하여 이야기하기전에 먼저 미술이 걸어온 二대방향 즉 인민대중을위한 진정한 인민적미술과 이와 상반되는 반인민적인

미술로 대별(大別)하여 고찰해보자
계급사회에서는 그 시대에 상응한 계급투쟁이 다종다양한 형식으로 예술상에 반영되어있다 마찬가지로 조형예술도 역시 각이한 시대성과 계급적 대립성을 가지고있었다 특히 조형예술ㅡ미술에 있어서는 고대의 소박하면서도 명쾌한 수법에서 점차 종교적 의식성(儀式性)을 띄어왔으며 부르죠아사회에 들어와서는 봉건적、신비적、종교적 색채를 어느정도 물리치면서 다시 그것은 공리적인 탐미적(耽美的)목적을 갖고 발달하였으나 이것은 지배계급들이 자기들의 지배권력을 시위하며 그 지배적리념을 합리화시키기위한 위선적인것이였고 나아가선 그들의 퇴폐적인 향락수단으로까지 전락해버렸던 것이다

례컨대 고대 〃에지푸도〃의 미술은 저의 전부가 왕후 귀족을위한 종교적 례배적(禮拜的)의식(儀式)의 한수단이였으며 따라서 그 내용이 그들의 종교적 이데오르기ㅡ와 합치된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그들은 〃비라밋도〃를 건설하였으며 그속에 〃미이라〃를 두었으며 또는 〃스핑크스〃를 만들어서 군주권의 강대를 상징시켰던것이다

또한 희랍 로ㅡ마의 미술에 있어서는 희랍의 신화적 조각이라든가 〃로ㅡ마〃의 건축등 많은 유산(遺産)들이 당시의 지중해 노예문화상을 보여주는것으로 이것 역시 종교적의식을 떠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와같은 예술적창작품은 당시의 노예주인 귀족들만이 독점할수 있었던것이며 모두가 원시적인 종교적、미신적 교리에 의한것에 불과하였던것이다

그다음 소위 게루만민족 대이동이후 중세기 종교만능시대에 와서는 모든 예술이 완전히 신(神)에 종속되었으며 소위 만능을 부르짓던 신을위한 예술이었다

때문에 회화에있어선 신의묘사와 종교적세계의 비현실성을 묘사함이 최고의 가치로서 인정되었다 또한 조각에있어서도 모두가 신을 형상화한 조각이었으며 신의 절대권을 나타내기위한 것이었다 건축에있어서도 종교적의식을위한 교회사원(寺院)의 건축이 그의 전부였다

이같이 교회 사원의 건축과 기독(基督)을 조각한것과 또는 교회사원의 천정 벽에다 그린 회화는 그것이 모두 신을 유일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의 대변자이며 그의 대리자인 특권적 왕족、승려、귀족을위한 완상물이었다

그후 십자군 전쟁이후 새로운 〃휴ㅡ매너즘적〃사조(思潮)는 어느정도 신의 세계를 부인하는 〃이데오르기〃와 합치되어가지고 신을위한 미술을 반사하고자하면서 문예부흥시기에 몇몇 작품들을 내어놓았다

그러나 아직 이시기의 작품 례컨대 회화에있어서 레오날도・다빈찌의 「모나리자」라든가 〃라파엘〃의 「마돈나」〃미께란제로〃의 「최후의 심판」등이 어느정도 인간개성의 자유를 부르짓으면서 신에서의 해방을 그의 의도(意圖)로 하였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그들은 종교적 색채를 벗지못하였던 것이다

그후 十五세기ㅡ十六세기후부터 점차 봉건적귀족을 물리치고 대두(擡頭)하게 된 신생부르죠아 계급들이 력사의 새지배자로서 무대에 나오게되자 다시 예술은 많은 근로대중을 자본주의적인 예속하에 몰아넣으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지배를 역시 영구(永久)히하며 또한 합리화시키기위한 온갖 예술적사조가 나타났던것이다 다시말하면 중세기의 봉건적 경제체계가 붕괴되고 이것이 점차자본주의적인 도시문화에로 추이(推移)함에따라 종교적쇠퇴(衰頹)와 아울러 과학적리론의 발달은 종교적 의식적예술(儀式的藝術)이 깨뜨려지고 다시 새로운 사회적사명을 가진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이것은 신생부르죠아 계급의 각 성원에게 공리적(功利的)인 목적으로 사용될수있는 사회적사명을 갖게 되었던것이다

부르죠아계급은 자기들의 승리를 찬양(讚揚)하기위하여 예술을 리용하였으며 나아가선 부르죠아계급은 정권획득이 완료되고 지배계급으로서 많은 부(富)와 권리를 독점한후에는 물질적향락을 위한 공리(功利)주의적사상에 물들면서 예술은 소위 〃순수예술〃로서 변천하게 되었던것이다 이와같이하여 점차十八세기ㅡ十九세기이후의 부르죠아예술ㅡ미술은 다른 예술적 이데오로기ㅡ와같이 「미를 위한 미」「예술의 순수성」「예술의 독립성」등 온갖 지상주의적(至上主義的) 언사(言辭)를 말하면서 미술을 개인주의적인 향락도구ㅡ 즉 새로운 사회적주인공인 근로대중과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은 온갖 예술이 자기들을 위한것 또한 자기들의 독점적인것으로 만들었던것이다 더구나 이와같은 부르죠아적 미술은 혹시는 봉건적 신비적 사상과도 타협(妥協)하면서 반인민적 사조(思潮)우에서 부르죠아사회를 찬미(讚美)하였으며 그들 지배계급에게 복무하는 미술가들은 비현실적 작품을 창작하면서 소위탐미주의적 耽美主義的)인 사조에 빠져버렸던것이다

이와같은 사조는 여러가지 류파(流派)로 다시 분렬되어 고전(古典)주의 랑만주의(浪漫主義) 인상파주의(印象派主義) 자연주의(自然主義) 등등이 전후하여 혹은 동시에 생멸하였다

례컨대 고전주의에선 〃붓산〃 〃다빗떼〃 〃앙굴〃、랑만주의엔 〃도라꾸로아〃、인상파엔 〃마ㅡ네〃 〃끕호〃 〃도가〃등이 이에 속하며、〃미레ㅡ〃와같은 자연주의적인 사조에서 다시 종교적 색채를 띈것은 특징적인것이다

그후 자본주의의 내부모순의 격화와 자본주의체계의 위기앞에 서게된 그들은 회의(懷疑)와 랑만과 불안 초조가운데서 자기위안을위한 극단한 주관주의적 「데까단」으로 흐르게되었다

즉 〃세잔누〃를 지나선 다시 〃비까소〃 〃마치스〃등 여러 화가(畵家)들은 야수파(野獸派)니 립체주의(立体主義)이니 표현주의이니 구성파(構成派)니 하는 사조 우에서 초현실주의적(超現實主義的)인 조류가 흘렀고 심지어는 따따이즘이니미 래파니 하는등등 작가자신도 내용을 잘 모르는 미술 유희에까지 떨어져버렸던것이다

요컨대 이상에 라렬한 온갖 미술상의 류파는 그것이 부분적인 사실주의적 요소들이 있는것도 있으나 거의 전부가 주관주의적이고 탐미적이며 퇴폐적인것으로 반인민적인 것들이었다 따라서 그것들은 지배계급에게 복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몰락해가는 부르죠아의 애달픈 심리묘사이었던것이다

다음으로 전체 근로인민에게 고상한 사상적 계몽(啓蒙)과 교양을 주는 인민적 미술에 대하여 언급하려 한다 물론 인민적미술은 먼저 위에서 말한 온갖 반동적예술사조인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지상주의적리론이 부르죠아 이데오르기이므로 이를 반대하는데서부터 출발하여 나아가선 부르죠아 지상주의적 예술이 가지는 정치적무관심과 무사상성 심지어는 염세주의적인 우울성과 인간타락을 초래하는것임을 강박하면서 출발하는것이다

오늘의 인민적미술은 고상한 사실주의적인방법과 리론의 합치이다

다시말하면 미술은 다른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다만 그것이 인간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뿐만아니라 인민들의 위대한 력사적 주인공으로 재사회력사를 차전하며 행복스러이 생활하는 본질적 측면을 옳게 반영하여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최후적인 추태(醜態)와 그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영웅

한모습들을 반영할때에야만 그것이 심오하고 고상한 예술— 즉 진정한 미술이 될수있는 것이다

실로 우리는 위대한 로씨야 十월혁명후 이와같은 진정한 미술 창작의 선구자(先驅者)들을 볼수있으며 오늘날 쏘베트에 있어서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사조위에선 위대한 미술들을 보는것이다

예술이 선진적 과학리론에서 출발하지 않는곳에선 예술은 쇠퇴하며 그것은 반동적 목적에 복무하는 것이다

실로 쏘베트 미술은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위에서 진정으로 인민과 조국에 복무하는 〃사회주의 리아리즘〃에 립각(立脚)하여 출발하였으며 또한 인류문화의 새롭고 가장 높은 수준에 발전되었으며 또 발전되면서 있는 것이다

위대한 十월혁명이전에 있어서 전제적 황제정치의 야만성을 폭로반대하면서 나온 위대한 로씨야 혁명적 화가 〃레삔〃 〃쑤리꼬브〃 〃베삐딴〃등은 오늘 쏘베트미술 창조의 선구자인것이다

또 현시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과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쏘베트인민들의 창조적 노력과 고귀한 전형적(典型的)모습과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향해 전진하는 쏘베트력사의 진실성을 훌륭히 묘사하며 쏘베트인민들을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도덕으로 교양주는 허다한 미술가들의 미술창작품은 오늘 우리 청년들이 널리 감상해야 할것이다

특히 우리조선에 있어서는 과거 려사상에서 부분적인 불교적색채를 띤(佛敎的藝術인) 조형예술(造形藝術)유물들을 가지고 내려왔다

특히 악랑시대이후부터 점차 중국으로부터 수입(輸入)된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회화、조각、건축등의 조형예술의 우수한 것들이 많다 강서고분(古墳)에있는 벽화에서 찾아볼수있는것은 그색채에있어서나 또는 그의 기술적 우수성에 있어서 자랑할수있으며 경주의 석굴암 불상(佛像)도 역시 그의 기술에 있어서 자랑할수있는동시에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숭불사상 崇佛思想)에 인해 건축된 불사(佛寺)도 또한 훌륭한것이 많다 특히 고려시대에 들너와선 유명한 고려도자기(高麗陶磁器)에서보여주는 도안장식(圖案裝飾)도 자랑할수 있는것이다

물론 이모든 미술적 창작은 당시의 전제적봉건하에서 사람대우를 받지못하던 근로계급 평민)출신에 의한것이다.

그후 고려말 리조초부터 기들의 지배적 이데오로기—로서 유교(儒敎)=(朱子學)사상을 수입함으로써 사대사상과 문약(文弱)에 빠졌으며 전혀 우리조선민족의 민족적감정과 우리들이 소유하고있는 전통적 미술적 소양(素養)들이 발현되지 못하였던것이다

때문에 해방된 민주새조선의 청년미술가들과 미술써—클원들은 과거 우리민족이 남겨놓은 미술적유산을 비판섭취하며 선진국가의 고상한 미술을 많이 수입하여 선진적 과학리론위에서 새로운 자기의 미술창작과 학구(學究)에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지금 우리북반부에서의 미술은 인민들의정치적 투쟁과 직접 결부되어 애국주의사상과 생산의욕을 북돋아주며 청년들의 새로운 정서훈육을 담당하면서 인민들속에서 또는 인민들의 손에 의하여 날로 발전하고있다 여기에있어서 각학교내 미술써—클원들과 각직장내 미술공작원들은 자기의 기술적력마에 더욱 노력하며 특히 선진적 사상의식으로 무장하며 과학적인 리론탐구에 노력하여야할것이다

—끝—



原子世界探險記

(제 회)

므·이리인 述

류 충 길 譯

一、원자설의 유래

누가 우리들 중에서 정면 공간에 마음을 휩쓰리지 않았으리! 누가 끝없는 저 별세계에 마음을 달리지 않았으리!

그런데 한눈안에 드는 가까운 세계가 여기에 있다 이 세계는 밤 하늘에서, 번쩍거리는 저 별세계보다 적지 않은 비밀들을 품고 있다

이 가까운 세계는 유리들 주위에 또 우리들 자체내에 어디든지 있다 그들은 덧문(雨戶)의 틈을 새서 방안으로 들어오는 햇빛가운데서 여물거리는 작은 조그마한 먼지안에 수십억개가 들어 있다 그들은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종이 우에 나의 철필끝에서 떨어질까 말까하는 잉크방울안에 수십억개가 들어있다

면 세계— 이것은 별세계인데 누구나 볼수있는 것이다 가까운 세계— 이것은 원자인데 아직 누구든지 보지 못하였었다

수 세기동안 사람들은 원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고 알아 내려고 많은 공상을 하여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그의 근본을 풀수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실험실 안에 틀어 앉아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끝내 이 탐험(探險)을 완수하였던 것이다 이 평게하여 그들은 이 탐험에서 여러가지 희귀한 것들을 발견하였으며 많은 수확을 얻게되었다

이 학술탐험(學術探險)은 그리 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원자세계에서 살아 왔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계에서 로인(土人)과 같이 미개하게 살았던 것이다

그들은 화로에 불을 피울때마다 언제든지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를 화합(化合)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 그들은 광석(鑛石)에서 철을 용해시킬 때마다 언제든지 수많은 철원자를 획득하였던것이다

야장(冶場) 유리공 도기공(陶器工) 및 강철공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자와 원자를 결합시켰으며 또는 분리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원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다 그야말로 누구나 그당시에는 원자를 알지 못하였다 단지 원자의 대한 억측(臆測)만이 있었다

모든 물체는 원자로써 구성되었다고 처음으로 가정한 사람들은 가리샤(희랍)학자 레쁘끼뿌와 데모크리트였었다

그들은 원자들이 결합할때에는 물체를 형성하고 원자들이 분리할때에는 그물체를 파괴한다는것을 배워주었다

이렇게 가정한것은 벌 옛날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二〇〇〇년전이었었다 그

그러나 그뒤 여러세기가 흐르는 동안에 이 사태는 가정(假定)의 범위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였다

학자들은 두개의 대렬로 갈리웠다

즉 그 하나는 원자가 있다고 말하였고 다른 하나는 원자가 없다고 말하였다 잔인한 론쟁이 이들사이에 벌어졌다

이 론쟁은 원자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을 무자비하게 비난하였으며 또 원자에 대한 책들을 불에태워 버리기까지 가혹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박해들을 돌보지 않고 자연의 연구자들은 원자의 개념을 음폐하여버리려고 하지 않았었다 그야말로, 이 박해는 어떻게 그 물체가 발생하며 또 어떻게 그들이 파멸되는가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하고 명리한 방법은 음폐하려는 것이였다

이 가정이 정당하다는것을 확신하기위하여 론쟁과 사고(思考)의 범위를 벗어나서 실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 주먹만 불끈쥐고 떠나는것이 아니라 려행객들이 준비하듯이 장구(裝具) 도구(道具)

기구(器具)들을 가지고 떠나야 한다

학술탐험을 수행하기위하여 사람들은 기구와 천막(天幕) 콤빠쓰와 지도들을 가지고 떠나는것이 보통이다

원자세계의 려행객은 고르부와 레또루드蒸溜가마 및 사장관식냉동장치(蛇狀管式冷凍裝置)들을 가지고간다 화학자들은 이려행에서 물질을 증발, 혼합, 증류, 용해, 침전(沈澱)시켜 보았다 이와함께 그들은 실험에서 무엇이 얼마나 소비되었는데 무엇이 얼마 생겼는가 알기위하여 물질을 며(秤量) 보았다

이와같이 레도루드며 고루부 안에 생긴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려고 화학가들은 원자의 무리(群)를 취급하였는데 이때에는 벌써 태고(太古)에 있어서의 야장이나 유리공에 하듯이 무의식적인 취급은 아니었다 돌이켜보건대 화학은 긴 동안 비과학적이었으며 기교적(技巧的)으로 남아 있었다

화학자에게는 합성물질(合成物質)이 단순한 물질로써 구성된다든가 반대로 합성물질은 단순한 물질로 분리하든가 할때에 그물질 내부에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명백한 제의가 없었다 화학을 이름뿐만 아니라 실지로 과학적으로 체계있게 건설한 최초의 사람은 위대한 로씨야의 학자 미하일●와씨례위치●로모노쏘브였다

그는 원자 세계를 들여다볼줄을 알았으며 그가 말하듯이『가장 훌륭한 현미경을 사용하여서도 보지 못한다』는것을 가장 예리한 시선(視線)을 가지고 알아내게 되었던것이다

그는 물질을 구성하고있는 눈에 보이지않는 〃무감각의〃 미소자(微小子)를 알아냈으며 그리고 처음으로 물질중에서 합성미소자(合成微小子)―분자와 분자를 구성하고있는 단순한 미소자―원자를 분 하였었다

그는 이〃무감각의〃 미소자(微小子)들은 공기를 례를들어 말하면 공기가 팽창할때에는 그가 서로 멀어지고 압축할때에는 서로 접근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또 고체를 더워(熱)면 그의 미소자가 더욱 더 빠르게 운동하게 된다는것을 알아냈다 여기서 미소자가 사방으로 멀어질때에는 이 물체는 용해하여 액체상태를 이루고, 미소자(微小子)가 날아나면 이 물체는 기체상태를 이룬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는 화학자의 고루뿌와 루도르드 안에 생긴 분자가 원자로 나누이고 또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이룬다는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는 이사실만 안것이 아니라 저울질 함으로써(秤量) 또 계산함으로써 이것을 검토하였었다

당시 반박을 예측하면서 그는『화학의 응용에 대한 이야기』란 책에 다음과 같이 썼다『여기서 나는 화학은 합성물로써 구성된 물질만을 취급하고 특수한 미소자 각개는 취급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현대까지 연구하여온 화학의 첨단(尖端)은 물체의 내부에서 확실히 엄청나게 멀리 멀어져 있어서 그 본질을 들추어 낼수 없었다

그러나 만일 언제든지 물체내부의 경이(驚異)가 공개된다면 화학이야말로 자연과학의 전당(殿堂)을 처음으로 개막하는 선구자(先驅者)가 될것이다라고 나는 여기서 능히 말한다』

이와같이 로모노쏘브는 그후에 많은 학자들이 뒤를 이어서 걷게된 길을 백년 앞서 예언하였던 것이다

학자들은 두개의 서로 틀리는 원소(元素)의 원자로 합성된 물체를 제조하거나, 혹은 반대로 합성물체를 각 구성 요소(要素)로 분리하기에 성공할때마다 점점 깊이 원자세계로 끌어 들어갔던 것이다 一七八一년에 화학 실험실에서 산화수소 기체를 폭연(爆燃)하였다

―이것은 수소와 산소의 화합이다

이때 폭음(爆音)을 내면서 물이 형성하였다

그후 三년이 지나서 화학자들은 물을 두개의 원소로 분해하였다 즉 수증기를 붉게 단 쇠끗(鐵屑)과 함께 관을 통하여 보내즉 열은 물의 미소자(微小子)를 분해하여, 수소원자와 산소원자를 갈라냈다 산소는 철과 화합하여 철재(鐵滓)를 이루며 이 관의 다른 끝에서는 분석시키지 않은 증기와 함께 수소가 나갔다

원자에 대한 학설은 여기저기서 승리를 거두었다 물질을 분석하면서 화학자들은 각 종류별로 원자들을 모았으며 그들을 저울로 떴으며 어떤 종류의 원자가 다른 종류의 원자 보다 몇배 더 무거운가를 알아냈다

화학자들은 이것이 원자하나하나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아니라 많은 원자들의 모임(集積)에 의하여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방울의 용액, 한줌(一握)의 소금에는 전은하계(全銀河系) 전우주의 별수(星數)에 해당하는 원자들이 들어있다

그러나 은하계는 별을 그종류에 따라(푸른것은 푸른것으로 붉은것은 붉은것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고르부에 넣을수 없다

그런데 한 줌의 소금은 그의 용액에서 침전시킬수 있으며 로과기(瀘過器)에서 로과시킬수 있으며 저울(天秤) 접시(皿)에 놓을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원자세계의 별세계의 비교는 화학자들의 머리에 번번히 떠올랐다

멘델례브의 말에 의하면『원자학설에 있어서는 원자세계는 그구조에있어서 태양, 유성, 및 위성(衛星)으로된 천체와 같다고 일반화한 개념이 첨고하게 인정되게 이르렀다』

원자 세계―이것은 별세계에 류사하다

이러한 개념이 당시 물질의 내막을 깊이 들여다 보려고 동경한 사람들의 머리를 핑돌았다 원자세계에서 개별적인 서광(曙光)이 더욱 명백하게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원자는 그 이름을 가지게되었다

十九세기에 달―톤은 천문학자들이 유성을 표시하듯이 부호로써 원자을 표시하였다 즉 달―톤은 산소원자를 표현하고 류황원자를 십자가형(十字架形)으로 표현하였다

「태양계」의 하나로써 원자세계(무수한 류황분자)를 그리기 위하여 화학자들은 십자가를 가진 원형을 중심에 그리어 류황의 원자를 표현하고 이「태양」의 주위에 세개의 원형―세개의 산소―를 배치하였다

이와같이 학자들의 사상은 분자들 속에 깊이 침투하였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원자의 내용을 깊이 엿보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그우에 그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원자를 한개의 분활(分割)할수 없는 구(球)의 뎅어리라고 추측하였다

달―톤은 새로 유성을 만들수도 없으며 또 벌써 존재하는 별을 파멸시킬수도 없는것이다고 자기저서(著書)에 썼다

사람들은 원자를 가지고 물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학자들은 원자가 보다 더 적은 미소자들로써 조성되었으며 또 그를 미소자로 마술(破)데 대하여서는 공상조차 하지못하였었다

2、원자세계의 지도

그 옛날에 데모크리트는 학구(學究)의 목표 즉 눈에 보이지 않고 가설적인 목표―원자를 교시(敎示)하였었다 이 목표로 향하여 수천명의 학자들이 갖은 애로를/타개하면서 돌진하였다

그러는중에서 길을 잃은적은 그리 드물지않았다 그것은 세상에는 지도도 있었고 성도(星圖)도 있었다 그러나 원자세계의 지도는 아직 없었던 까닭이다

화학자들은 모든 가능한 물질을 연구하면서 새롭고 새로운 원소(元素)의 여러가지 원자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 발견한 원자에 이름을 붙였고 그들의 성질을 연구하였다

각 원소에는 각각 특징이있었고 독립적인 특색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원소에 대하여 너무도 많이 있었으므로 그들의 정체(正体)를 일일이 가억하는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화학연구자들은 엉기엉기 진전(進展)하였다 허 어(亂脈)진 원자의 무리에서 그들은 번번이 다른 원자에 숨기운 한개의 원자를 관찰하게 되었으므로 무수히 많은 그들의 성질에 혼돈했었다

이런 무질서한 성질가운데서 어떤 질서를 얻어내야만 되었다 그야말로 학자는 이 혼란을 눈앞에서 당할때 마다 자기가 아직 넓게 알지못한다는 점을 자탄하였다 즉 이 혼란은 자연계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있는것이었었다

여기서 一八六八년에 〃베제

르브르그"의 공업대학 교수 더미뜨르•이와노뷔치•멘데레브는 『화학의 기초』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는 여기에 『과학의전물』을 세우려면 단지 재료만 아니라 그 쁘란도 요구된다는 것을 썼다

당시 재료들은 많이 준비하였었다

그러나 쁘란은 아직 없었다

그러면 이 쁘란은 어떻게 세울것인가?

지리학자가 지도를 그릴때에는 평행선들과 자오선(子午線)들의 그물(網)들이 지도를 그리는데 도움이 된다. 지리학자들은 각 도시에 있어서의 지리학적 위도(緯度)와 경도(經度)를 결정하여가지고 이것에 의하여 도시의 위치를 지도에 써 넣는것이다

원자세계의 지도에서는 원자의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멘데레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원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원소들을 그의 주성질(主性質)에 따라서 어떤 질서로 배렬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성질을 그 원소의 주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까? 빛일까? 튼튼하기(固)일까? 증발점일까? 용해점일까? 아니다 멘데레브는 다른 성질을 선택하였다 즉 원자량(原子量)을 선택하였다

그는 원자들을 그 중량에 따라서 배렬하였다 즉 처음에는 가장 가벼운 수소원자를 놓았고 다음 그뒤에는 점차로 무거운 원자들을 순서로 놓아서 나중에는 가장 무거운원자(우─란)에 이르기까지 배렬하였다

이리하여 외견상으로는 무질서하던 원자들이 단꺼번에 질서 정연(整然)하게 되었다 혼란은 더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전체적 통찰력(洞察力)에 의한것이 아니고 무엇이리!

원소들은 수평과 수직으로 렬(列)과 무리로써 표에 배치되었다 각 무리에는 지리학적 지도상에 있어서 열대(熱帶)에는 같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이 분포하여있고 온대(溫帶)에는 이와 다른 종류들이 분포하여 있고 한대(寒帶)에는 또 다른 종족들이 분포하여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류사한 원자들이 들어있다

당신들은 극주변(極周邊)에서 사자나 범을 찾으려고 하지않을것이며 또 당신들은 적도(赤道)에서 해표(海豹)나 해상(海象)을 보려고 찾지않을것이요 다시 말하면 지도위의 장소에 의하여 그 풍경도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원자세계의 지도에서도 그 위치에 의하여 각 원소의 성질이 서로 틀리게 되는것이다

원자세계의 지도의 첫 무리에는 서로 류사한 원소─까륨과 나트륨들을 곁에 표시하였다 그의 일곱째 무리에는 하르겐족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불소(弗素) 염소(鹽素) 취소(臭素) 옥소(沃素)들이 배치하여 있다 은(銀)과 금(金)은 같은 렬(列)에 들어있다

원자세계의 지도에는 또 흰 반점─빈자리를 표시하였다 이 빈자리는 례를들면 제삼무리에 있어서 아루미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멘데레브는 이 곳에 아직 알지못한 아루미늄에 류사한 미발견의 원소가 있을것이라고 예언하였었다

멘데레브는 이 미지원소(未知元素)를 이름지어 「에까─아루미늄」이라고 불렀으며 그의 원자량과 비중을 계산해 냈으며 그외 그의 성질을 결정하였었다

그후 五년이 지나서 "이에까─아루미늄"은 이 연구실에서 수천킬로메트르 떨어져있는 곳에서 발견되었다

즉 불란서학자 레코크•도─부아보드란은 이 새원소를 삐레네야 지방에서 채굴한 섬아연광석(閃亞鉛鑛石)에서 얻어냈다 이 표에 있는 빈 자리는 점차로 채워져갔다 화학자들은 광석을 연구하여서 멘데레브가 예언한 원소들을 뒤를 이어서 모두 얻어냈다

원자세계의 지도는 이렇게 하여 구성되어졌다 이것은 과학사상에서 위대한 사건이었다

이와같이 데모크리트는 여행의 목표─원자를 교시(敎示)하였고 그리고 멘데레브는 원자세계의 지도를 그리었다

다음 이 차도가 지시하는데 따라서 원자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계속─

映畵에 나타난 뿌쉬낀

오 덕 순



영화『글린까』의 거의 마지막장면 클라이막스에서 一八三六년 뻬쩨르부르그에서 열린 글린까의 오페라 「이완•쑤싸─닌」의 발표공연초일의 특별석에 나타난 뿌쉬낀을 우리는 상당히 긴시간 보았다 一八三六년이라면 뿌쉬낀이 서거(逝去)하기 바로 전년 三十八세때이다 『위대한 시인 뿌쉬낀은 문학자체를 인민예술의 원천과 결부시킬것을 지향하였으며 또한 스스로 자기의 시문학을 진실한 인민적 시문학으로 만들었다 전체 로씨야 고전문학은 뿌쉬낀이 개척한 방향에로 자라났으며 뿌쉬낀의 사실주의적 민중시문학 원칙을 따랐었다』

글린까는 자기가 심혈을 경주한 오페라 「이완•쑤싸─닌」이 뿌쉬낀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될까? 하여 조이는 마음으로 특별석의 뿌쉬낀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민요의 멜로디─를 고전적 음악형식들에 옮겨놓아 자기작품들을 인민들이 리해하기쉽게 함으로써 인민음악의 기초를 세우려하였던 글린까는 그당시 문학예술에 있어서 진보적경향의 대표적천재인 뿌쉬낀에게만 시선을 집중시키고있었다 뿌쉬낀이 만족의 박수를 하는것을 본때에야 비로소 글린까는 자기노력에 대한 위안을 느낀다 이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였다

영화『글린까』에 있어서의 뿌쉬낀의 역을 노는 배우 뻬•알레니꼬브의 연기와 메─크•엎은 우리가 그리고있던 시인의 모습을 참으로 구체적으로 잘 묘사한것으로 보여졌으며 특히 흑인의 피가 섞인 그의 외모와 그리고 손톱을 무시로 깨물고있는 특이한 성격까지를 여실히 표현한것도 인상에 깊이 남아있다

그러나 글린까를 주인공으로한 이영화에 있어서는 뿌쉬낀의 시인으로서의 위대성 또는 그예술의 사회생활에대한 의의등은 다만 파생적삽화로서의 단편적인 표현이외에는 나타난 것이 없었다

그가운데서 한가지 들어야할것은 전기장면에 앞서서 청년글린까가 뻬쩨르부르그의 사교계에 나타났을때의 사건으로 한무도회에서 뿌쉬낀의 시 『루쓸란과 류드밀라』에 대한 론쟁이 전개되는 장면이다

十二월귀족혁명의 주동자의한사람인 시인 르레예브는 여러사람가운데서 새로운 서사시 『루쓸란과 류드밀라』에 관하여 말하면서 종래에 파묻혀있었던 평민적인 언어속에서 아름답고 참다운 로씨야말을 찾아내어 새로운 민족적 시를 창조하여낸 뿌쉬낀의 천재적공로에 대하여 찬사(讚辭)를 아끼지않았다 글린까도 물론 여기서 진실로 뿌쉬낀의 옹호자이었다 바로 이때로부터 위대한 시인과 위대한 작곡가사이에는 창작을 통한 심정의 접촉이 생기었던것이다 이것은 글린까의 뻬쩨르부르그 생활에서 잊을수없는 인상으로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글린까는 뿌쉬낀의 장편서사시 『루쓸란과 류드밀라』의 주제로써 작곡하여 보려는 포부를 가지게되었던것이다

×

영화『글린까』가 十九세기 초엽으로부터 거의 四十년간에 걸친 일들을 그려가는가운데 뿌쉬낀을 한개 삽화적 인물로서 등장시킨데 비하여 영화『젊은 시절의 뿌쉬낀』에 있어서는 시인의 三十九년동안의 생애와 활동가운데서 특히 十五세로부터 三년동안에 한 학창생활이 묘출되어있다

이영화는 무엇보다 이 유리한 기본적 조건밑에서 시인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기 그리고 로씨야 문학사상에 반드시 언급되는 유명한 장면들을 묘출하는데 참으로 부족없이 훌륭한 예술작품으

로 성공한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영화는 一九三七년 제작이며 연출가 아르까지·나르지쯔끼는 우리에게 처음 들리는 이름이지만 한개 우수한 영화작품으로 여러번 두고 보고싶은 영화의 하나이다

특히 청년뿌쉬낀 역을 노는 제一모쓰크바 중학교생도 왈렌찐·리뜹쓰끼의연기야말로 훌륭하였으며 이렇게 적절하고 자유로운 연기를 시키 연출가의 공로도 큰것으로 생각되였다 명리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으로서의 소질과 후에 그의 서정시에 발휘된 인민적인 분격과 비판적힘이 청년시인의 전몸둥이에서 북돋아 나오는듯한 연기라고 보아졌다

젊은 뿌쉬낀은 특권계급의 자제들을 위한 짜리쓰꼬예·쎌로의 고등전문학교(옛날의 학습원)란 특수한 생활분위기속에 있으면서도 귀족적전통의 생활규모와 생활형식에 구속되지않고 미와 애를 찾아 시인으로서의 자기천분을 키워 나갔다

뿌쉬낀은 동무들에게 시문학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점차 진보적인 경향을 미치게하였으며 그동무들 가운데서는 후에 전제제도를 전복하고 로씨야에 립법군주정체를 수립하려고 동경하는 귀족혁명자인 十二월당원들이 배출하였었다 이러한 학우들과의 관계 그밖에 교사(敎師)들과의 관계들은 청년시인의 성장과정을 리해하는데 좋은 장면들이다

그가운데서도 一八一五년一월八일에 열린 공개진급시험의 감동적인 장면은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일 뿐더러 뿌쉬낀의 전체창작생활에 있어서의 클라이막스이며 시인의 전생애중에서 제一먼저 곱히는 유명한 사전이다

많은 고위고관의 명사 및 학자부인들이 렬석한 가운데서 뿌쉬낀은 자기의시 「왕촌의 추상」을 자신만만한 태도로 랑송하여 그의 비범한 시재에 만좌를 경탄케 하였으며 특히 七十세의 저명시인 제르자-윈은 이소년의 놀라운시를 듣고 감동한 나머지 일부려 좌석을 나와서 소년시인을 찬양하여 그 이마에 입을 마춘다

그런데 이 장면에 관하여 뿌쉬낀자신이 쓴 어느글가운데는 로시인 제르자-윈이 감탄한끝에 소년시인을 포옹하려 전면으로 나왔을때 뿌쉬낀은 별써 그자리에서 다라나버렸었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뿌쉬낀이 자필한바가 사실이라할지라도 이 사실과 다르게 각색된 영화의 바로 이 장면은 영화적효과로서는 오이려 가장 성공한 클라이막스라고 생각된다

기숙사 제十四호실에 뿌쉬낀이 있었고 그에 린접한 제十三호실에 시인의 친우이며 후에 十二월당원으로된 이·뿌쓰찐이 있었다 두동무는 후년까지 가장 친밀하게 교우하였으며 그당시 一대소동을 일으킨 혼합주를 사온 소위 주모자도 시인 뿌쉬낀과 전기 이·뿌쓰찐하고 그리고 말리노브쓰끼의 三인이였다고한다

학생들의 써-클활동으로서는 一八一一년에 잡지「시쓴」 一八一三년에 「학습원의 현인(賢人)」등이 발간되었으며 뿌쉬낀이 이것들을 지도한것은 물론이고 그러한잡지들을 랑송하는 장면들은 영화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본것들이다 또한 뿌쉬낀은 一八一四년七월호 공간잡지「구라파신보지」에 「동무시인에게」라는 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학생으로서 외부에 내놓은 그의 첫번 작품이라한다

이학창생활에서 뿌쉬낀은 그시재를 구상에서나 용어에서나 급속도로 발전시킨것은 물론이고 세련된 로씨야말을 아름답게 살리는 공부도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한다 그 증거로는 뿌쉬낀의 최초의대작 「루쓸란과 류두밀라」가 기고된것도 바로 이학창시대이었으며 이작품은 졸업한 이듬해 一八一八년에 완성된것이 영화 「젊은시절의 뿌쉬낀」이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물것인가

「이 학창생활 마지막 시기에와서 뿌쉬낀의 사회적 문학적 견지는 가장 뚜렷하게 또 원만하게 성숙되기 시작하였다……十二월당원인 차아다예브와 친근하게된것과 十二월당원들이 될 입사들로 조직된 써-클에 참가하게된것은 뿌쉬낀으로하여금 그의 정치적 지향을 관정하게 하여주었다」

여기서의 생활이 끝나고 얼마 안하여서 "로씨야 시문학의 태양"은 바야흐로 뜨기 시작하였다

×



수필 아름다운回想

김순석

잘 쉴줄 아는자는 잘 일할줄 아는자이다- 이말은 쏘련의 위대한 작가 "막심·고리끼-"가 심신의 쇠약으로 고통을 받으며 계속 작품을 집필중이면 시기에 레닌선생이 고리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레닌의 말씀을 불행히도 나는 여태까지 몰라왔다 그러면 [illegible]에 사회보험의 혜택으로 S정양소에 정양을 가서 그곳 도서실벽에 있는 벽보에서 이것을 처음 읽었다

휴식- 이것은 휴식을 위한 휴식은 아닌것이다 휴식에 잇닿아오는것 그것은 오직 래일의 일에 잇닿는것이며 또 휴식이란 거기에만 의의가 있어야하는 것이다 거질 로동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의 혜택도 여기에 그 근본의의가 있는것이 아닌가?

사회보험 S정양소에서의 二十일간은 나로하여금 이 사실을 더욱 선명히 깨닫게하였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곳에서 정양을 가치 한 S방직공장의 젊은 녀성로동자이다

×

입소당일에 나는 우선 입소생전원과 그자리에서 친근해질것같은 예감을 가지었다

그것은 자기가 입고온 옷들도 다 벗어던지고 샛하얀 정양복으로 그 누구할것 없이 꼭같은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그것뿐에서는 아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가치하고 한방안에 모여앉아 오락회의 밤을 가지게 될것이라는 그것만에서는 더욱 아니다

이자리에 모여온 로동자 사무원들은 자기가 나라에서 말은 고귀한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모범을 보인 동무들만이라는 이 한가지 자부와 믿음성이 즉시로 친할수있는 친근성을 가지게 한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 제철공장에서 제강소에서 시、군、민청위원회에서 방직공장에서…

H도 어느 생산직장과 사무직장을 막론하고 그곳에서 이곳에 정양온 일군들도 다 모범적인 행동과 실천의 주인공들이었다

×

인녀동무를 처음 만난것은 입소후 二일후인 어느날 오후 민주무용 교습실에서였다

젊은 문화지도원동무의 스텝프에 따라 그곳에 모인 동무들은 땐쓰를 배우고있었다

팔에 팔을 짜고 제법 경쾌하게 능란하게 춤추는 패며 「저도 이 기회에 배워야 할텐데요」하며 위태롭게 발을 맞추어가는 패며…그러나 이패가 기이하게도 남성과 녀성의 패것이 아니라 전부가 전부 남성끼리 춤을 추고 있는것이 아닌가

녀성동무들이 없는것은 물론 아니다 쭉 도라싸고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녀성들이 있는것이였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녀성동무들은 춤은 안추고 구경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답디까?」

하고 놀리어 대었다

「민청원인 우리가、부끄러워할것 어디있어 자아 우리들도 나가 춤을 추자우…

인녀는 소박한 젊은 로동자였다 명랑하고 쾌활하고… 이 인상은 정양기간중 나에게뿐만 아니라 전 정양원에게준 아름다운 인상이었던것이다

그 두번째 인녀동무를 만난것은 그 이튿날 독서실에서였다

채광이 좋아 싸나토줌같이 밝는 독서실에서 그는 많은 정양원들과 같이 독서에 열중하고 있었다

나는 인녀동무를 봤을때 전날 무도교습실에서의 그 인상하고는 전혀 다른 그를 발견하여 놀라지않을수 없었다

「참새처럼 날래고 명랑하던 저동무가-」그는 책장을 뒤집어가며 무엇인가 자꾸 노-트하여 일심불란히 읽고있는것이었다

창가를 스미어들어오는 노을빛을 받아 유난히도 건강하게보이는 그의 량볼을 바라다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물었다

그는 종시 웃기만 하면서 무슨책을 읽는다는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책는 민청강연자료로 나온"레닌선생과 청년"임을 곧 알았다

유쾌하고 행복한 정양생활 그 기간을 민청원 김인녀동무는 자기와 직접 련계되는 이런교양 자료에 열중하여 공부하는 그런 동무이기도 하였다

×

그 동무의 방에서는 항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항시 동무들과 웃음꽃을 피우는 명랑한 웃음소리가 퍼져나왔다 각대항(閣對抗)배구시합과 탁구시합에는 그동무의 남성에 못하지않는 활약으로 결승전까지에는 어김없이 올라가는것이였다 그리고 오락회가 열릴때마다 녀성동무들을 모아 코ー라스단을 조직하여선 인기를 집중시키였다

「민청원답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말버릇처럼 의는 이야기다 그리고는

「래일의 증산을 위하여 마음껏 오늘의 정양을 즐깁시다」

이렇게 그는 때로는 소녀처럼 유쾌하고 때로는 전 정양원의 지도자처럼 씩씩하였다

×

가지가지의 추억과 인상을 남기고 우리가 퇴소하는 날이였다 우리를 태운 기차가 S역에 들어서자 인녀동무는 차중에있는 정양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평양으로 가는 기차는 이곳에서 약 다섯시간은 기다려야 하니 제가 일하는 방직공장을 구경하지 않으렵니까?」

「좋소 좋소 그렇게 부탁할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부탁하고 싶소」

이말은 모 탄광에서 온 중년의 로동자의 말이였지만 그사람아닌 차중의 누구도 다같은 요망이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S방직공장을 견학하게 되였다

근대설비를 완전히 갖춘 이방직공장의 웅자를 견학하게 된것은 큰 감동이 아닐수가 없다 아름차게 큰 근대과학의 극치라고 생각되는 이 기계들을 대부분은 녀성들이 움직여간다는 감격도 컸지만 이 공장문에 들어서자마자 안내자역을 맡은 인녀동무의 태도에는 정말 감격없이 보지못할 그런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는것이였다

물론 그는 이날까지가 휴가기간이였다 우리를 이공장에 안내한것은 정양소에서 사귄 동무들과의 리별을 애석하는 마음과 자기가 일하고있는 공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데서 오는 심사에서였을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방 저방 이곳 저곳의 기계며 공작과정이며 생산과정을 안내하면서 자기의 공작실인 제사실에 왔을때이다

「이것이 제가 맡아보는 제사기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흥미로써 그 기계를 보았다 그 기계는 다른 기계와 구조가 딸리되었거나 특수하게 크거나 그런것은 아니었다 그럼 왜? 이 기계는 다른 기계와 꼭같은 기계이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꼭 잡아쥐고 놓지않는 그런 매력을 어디에 가지고있는것인가

물론 인녀동무가 맡아보는 기계라는 흥미도 있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그 기계가 가지는 윤택이다

유난히 빛나는 기계였었다 어느 나사못하나 어느 베아링하나가 반짝반짝 빛나지않는것은 없었다

그 기계앞에 왔을때 인녀동무는 그 기계를 조자하면서있는 자기동무에게 지금부터는 자기가 돌릴터이니 하는뜻을 이야기하고 성큼 기계앞에 서는것이었다

기계를 움직여가며 그는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런것은 다 제쳐놓기루 하자 그 어느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것 그것은 인녀동무의 기계앞에 선 후의 태도였다

둥그랗게 뜬 눈은 광채가 나듯 빛났고 그의 팔다리는 재빠르게 움직거렸고 기계를 점검할때는 기름물은 걸레로써 일일이 닦아가는것이였다 실로 놀랐다

그렇게 소녀처럼 뛰놀던 인녀가ー

정양을 끝마추고 집으로 돌아오는날 그는 집에도 들리기전 자기공장에 우리를 안내하고 자기기계앞에 정작 서고보니 기계를 움직이지않고는 견디지 못하여 이렇게 북돋는 정열로 기계를 돌리어 간 것이였다

우리는 감동큰 가슴을 울렁거리며 능숙한 그의 기계조사에 시간가는줄 모르고 눈을 빼앗게 서있었다

인녀가 기계를 돌리는 제사실 정면벽에는 개인생산실적의 도표가 커다랗게 붙어있었다

인녀동무는 그 누구보다 계획을 앞질러 그는 벌써 년간

詩

療養院

리 원 우

부디 잘 갔다 오너라
우리 료양원 가서
튼튼한몸 받아가지고 오너라

나 여기와서 열흘……
한번도 동무들의 간절한 부탁 잊은적없어라
내 생활 구절 마다
함께 사는 동무들의 말이여 공화국의 사랑이여

바다가 찰락이는 창가에
고요한 새각과 동무하여 자리를 정하고
말매미가 찌찌 찌르르 하고 노래하는
동산속에 내 살거니

수양산에서
쪼아낸 돌들이 고운 지추되어
내자리를 고인집

황해도 황토흙이
고운 벽돌되어
내 자리를 평풍친집

해잘들고 바람시원한 골짜기에
온갖 새 노래하는 집이로구나

더르르
우리문을 울리면
건강을 싣은 바다바람이 나를 찾아오는
집이로구나

의사선생의 사랑
피되어 내몸을 골고루 돌고
시간마다가 큰 광채를 뿌리는 집이여

록음 방초는 우거지고
우리 위해 맑은 공기가 넘치는 골이여

동무들이 부탁한 건강
나 여기서 얻어가지고 가리라

一九四九、六、一〇

책임량의 八九%를 초과한 성적을 가지고있었다

×

정양소의 인상은 아름답다 그곳에서 만난 많은 동무들이며 그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던 일이며 그러나 이 인상이 나로하여금 이다지도 못잊게 한것은 그곳에서 김인녀와같은 모범로동자의 실지생활을 約二十일간이나마 보았고 또 그의 작업을 직접보게된 이 하나의 적은 사건에서 오는것인지도 모른다

정양소에서 만난 동무들은 모두 자기직장에 돌아가서 배전의 능률을 올리면서 있을것이다 그 어느누군들 김인녀동무에게 못하랴 그렇다 래일의 일을 래일의 능률을 위하여 귀중한 二十일을 휴양한 동무들이 아닌가!

나는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얼굴들을 머릿속에 그리어본다 그럴때마다 생산전선의 제一선에서 싸우고있는 그들의 생생한 모습이 떠오르고 그럴때마다 가슴후련히 즐거워짐을 금치못한다



고상한 作風

유 충 록

먹고 일하고 쉬고 잠자고 하는 우리들의 생활은 실로 헤아릴수없이 많은 동작(動作)의 련쇄(連鎖)이다 그리고 그 많은 동작가운데서 아무 목적성이없는 즉 필요치않은 동작을 골라내기는 매우 힘드는 일이다 비록 어린애기들의 유희(遊戲)라 할찌라도 반드시 그동작들은 모두가 합목적적(合目的的)인것으로 자신들이 의식하건 못하건간에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자기들의 지혜와 체력을 발전시키며 또한 장차 성인(成人)이되어서 인간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준비로서의 경험 축적과정일것이다

가끔가다가 그들은 실수를 하여 엎어지고 몸을 다치고한다 이것은 그들의 합목적적인 동작행정에 필요치않은 동작이 개입된 경우이라고 할수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아픈경험을 다시는 번복치않기로 결심한다

그러면 우리들 성인의 생활가운데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는가?

있다! 심지어 질서가 째이고 규률이 잘 서있는 우리들의 사업활동가운데서도 불필요한 동작과 쓸데없는 말로 말미암은 과실들이 나타나군한다

물론 사람이 기계가 아닌이상 기계적인 동작이 강요되어서는 안될것이며 따라서 일정한 조직체계우에서. 규칙과 규률과 또한 불문률(不文律)의 공약(公約)을 지켜 행동하는 가운데도 스스로의 융통성이 있어서만 우리들의 창발력이 발휘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항용 「쓸데없는 말 말라!」 「제멋대로 놀지말라!」 「자유주의적 작풍이 농후하다」 등등의 경고를 잘 발한다 그리고 이 경고는 규률이 강화되어가면 갈수록 더욱 무거운 힘을 가진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의 책임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신에 대해서거나 남에게대해서거나 「쓸데없는 말」과 「필요치않은 동작」을 엄격히 피하여야 할것이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하여 새삼스러이 나에게 커다란 교양을 준것은 국토보위의 대임을 담당하고있는 경비대원 동무들이었다

×

여기는 三八경계선 ○○고지 명마루 초소이다

—김동무 대원배치가 어떻게 되었소?

—○○에 二명 ××에 一명 △△에 三명…… 그리고 여기 분대장외 두동무 남아있습니다

—하— ××에다 왜 한사람만 파견했소…… 남어있는 동무를 한동무 더 보내시오

—넷

대면참모인 박동무가 소대장 김동무의 대원배치 상황을 점열하고 시정해주는 장면이다

나직하고 온화한 말소리들이나 정확하고 엄격하다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설명이 한마디도 개재되지않는다

전방의 정형과 그에대한 대책을 서로 잘 알고있는 사이에서의 대화(對話)이기때문에 모든 불필요한 말이 생략되어 제三자로서는 도무지 내용을 알아채릴수없다 그러나 정확한 지시이며 신속한 접수이다

—최동무! 오시오

—넷

—××에 한동무 더 보내시오

—넷 명령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소대장 김동무가 분대장에게 명령한다 분대장은 다시 자기의 임무를 실행한다

—조동무 ××에 가시오

—넷

그리하여 전사 조동무는 복장을 가다듬고 차점을 한뒤에 규률있는 동작으로 곧 ××를 향해 갔다

대면참모의 명령은 순식간에 정확히 신속히 엄격히 실천되었다

×

적선으로 약 一킬로메—터밖에 되지않는 이남쪽 조그마한 부락에서는 저녁무렵부터 반동경찰과 소위 「국방군」 장교같은

놈들이 웅성거리며 돼지를 잡는소리가 요란스러운 가운데 누구를 꾸짖고 욕지거리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놈들이 또 농가의 돼지를 강탈하여 잡아먹는 모양이다

밤 여덟시반— 벌써 사방은 컴컴하게 되었고 다만 건넛편 산봉우리위가 희멀겋게 바라보일뿐 부락은 불한점 없이 괴괴하다

초소의 밤은 긴장된 침묵속에서 고요히 흐른다 이따금씩 풀냄새 풍긴 바람이 스친다

이윽고 적방 바른편 봉우리에서 신호 조명탄이 세발 오른다

—놈들이 또 지랄을 치려는가부다

—배치를 교대시키시오 그리고 ○○에 곧 련락하시오

—넷 명령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놈들은 틈만 있으면 이북 부락에 침입하여 소를 훔쳐가고 집불을 놓고한다

그것은 매국역도 리승만도배들의 최후발악에서 나온 반동경찰과 「국방군」내 악질분자들의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격인 만행인것이다

소위 「유•엔 신조선위원단」이 기어들어온 때로부터 이와같은 귀축행위는 날이갈수록 도발적 성격을 띄고 차차 더욱 심해가는 터이다

—보고! 교대배치 완료했습니다 ○○에선 명령이 있을때까지 정관하고 있으랍니다

—좋소

방위는 물샐틈없고 전 경비신경이 긴장되어있다 초소마다 보초병들의 예리한 눈초리가 어둠을 뚫고 적방을 살핀다

…………

딱쿵 딱쿵 딱쿵

놈들의 카—빙총이 정막을 깨뜨리고 사격을 개시한다

딱쿵 딱쿵 팍 팍……

계속되는 카—빙총소리와 함께 보총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슈슛 슈팍 빵이 슈슛 빵이 빵이

초소위를 스치는 놈들의 탄막은 아주 낮다

닷닷닷 닷닷닷닷

놈들의 경기가 입을 열었다 집중사격이다

—보고! 놈들의 두개분대가 탕이 갯바닥까지 진출했습니다

최전선에 나갔던 정찰의 보고였다

—김동무 ○○에 보고하고 곧 전투태세를 갖추시오

탕 탕 닷닷닷 닷닷

갯바닥에 나붙은 놈들의 사격이다 탄환은 전호 아래위의 흙을 파헤친다 四○○내지 五○○메터—의 거리다

—쫓아버릴까요?

—가만 나두시오

—앗! 요놈들 봐라!

팍 팍 슈슛 슈슛 빵이

—소대장동무! 어떨?

—흥 놈들이 인사를 하란모양이요 모자가 벗어졌소 하하하

—놈들을 죄다 잡아 치울까요?

—고만 두시오

—그래두……

—글세 고만두시오

옆에있던 경기사수(輕機射手)는 경기를 벗적 다져쥐고 노기 띤 어조로 놈들을 소탕하겠다고 졸랐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그것은 랭정한 조치가 아니며 필요한 동작이 아니기 때문이였다

—보곳 전투태세 완료!

—○○에선?

—그냥 대기하고 있으랍니다

놈들은 계속 개지랄을 치고 있었으나 방위선은 미동도 하지않았다

이튿날 알고보니 놈들은 이곳에서 五리쯤 떨어져있는 부락을 침략할 목적으로 여기다 거짓진공을 했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치명적 타격으로 격퇴되고 말았다

×

경비대원동무들의 규률은 기계적 규률이아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어데까지나 엄격하다

그러나 본래 군대규률이란 글자그대로 「강철규률」이 되어서 그것은 좀체로 창할성갈온것이 개재할수없는 그야말로 빳빳하고 무시무시한 것인줄만 알아왔던 나는 새삼스러운 탄복에 잠기지 않을수 없었다

군관으로부터 하사 전사를 통하여 한개의 사상 한줄기의 의지가 흐르고있다 전투마당에 있어서는 더우기나 그것이 형제적인 애정으로 짙어진다

그리하여 명령 지시 복명 보고들은 어데까지나 명랑하고 간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엄정하다

필요치않은 말 필요치않은 동작이란 조금도 개재할 여지가없다 그러면서도 또한 모든

(詩) 麥風

장 수

능금빛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벌써 떠 도누나

그 고요한 사이를
시원한 바람이 흘러 올때마다
몽글 몽글 숙성한 보리 이삭이
호수인양
잔잔한 물결을 친다

우리들이 도와준,
칠성이네 보리밭

싱싱한 이랑을 바라보는 얼굴들에는
부드러운 웃음이 가득차 있어
민청원들의 따뜻한 자랑은
회상의 길로 뻗는다……

……보리가 파릿 파릿
이랑사이로 귀엽게 돋아날때

언제나 언제나 앞장서
마음을 위해 팔소매를 걷던 칠성이
조국에 몸바쳐 나가던 그날도
환송하는 소리 힘있게 받으면서
팔을 저어 웃던 눈동자에
붉은 노을이
억센 정열처럼 떠돌고 있었겠다

편짓장이 전해 올적마다
피끓는 충성은
우리들 젊은 가슴을 더욱 쿡 쿡 찔러
저저마다 샘물처럼 새 힘이 솟았다

동굴 몽글 소담스레 무르익어
금물결 치는 보리여
멀지않아 조기현물세도
우리들 뭉친 힘으로 빛내 바쳐주리니

능금빛
아름다운 저녁노을 사이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보리 냄새가 구수하게 풍긴다

창발적 활동이 스스로 보장되어 있는것이다 대(隊)의 전체계(全體系)과는 한 신경계통(神經系統)과 한 혈맥으로 구성된 사람의 유기체(有機體)와도 같다

―「군대내에서 명령을 집행하는 근무중에 필요치않은 말과 필요치않은 동작이 개재된다면 그것은 필요치않은 희생을 내며 예기치않은 손실을 초래합니다 하마디의 불필요한 말과 한개의 무의미한 동작 그것은 모두다 엄중한 과오이며 규률위반입니다」

三八경비초소에서 싸우고있는 경비대원동무들의 규률과 작풍에대하여 이야기했을때 대렬참모 박동무가 한 말이다 앞으로 나는 이동무들과 같은 작풍과 사업규률을 가지리라!……

―끝―

短篇

南兒의 羊

황 건



남아는 날마다 양을 몰고다니는것이 일이었다 나이들이 어리어서 함께 다니는 같은 또래 장수(將帥)놈과 나란이 양을 몰고 양사 운동장을 나서면 그로부터는 내세상이었다 양사뒤로 누연히 펼쳐져 올라간 푸른 골짜기와 등말기를 바라고 양들은 하얗게 올라갔다 푸른 골짜기 그 꼭대기에는 짙은 남빛 하늘이 깊은 바다와 같았다

남아는 버릇이 되어버린 양에게 하는 넉두리가 저절로 나왔다

「패대장 이놈아 네 오늘두 패를 지어 먼데루 바라나다 가는 오는 길에 든든히 매맞을줄 알아라…」

장수는 장단을 잊지 않았다

「오늘두 바라나면 눈알으 빼놓든지 나리르 분질러 놓던지 그래야 한다이… 괘씸한놈 같으이…」

돌아올때가 되어 우슬 우슬 어둑은 듣고 「패대장」놈이 떼라고 간 다섯마리 열마리 양을 찾노라 이 언덕 저 언덕 뛰어다니며 「찾았니야아!」 「아직 못찾았다!」고 부르고 대답하며 남아며 장수가 애먹은 일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말을 알아 들을리도 없는 양을 때릴수도 없지만 눈여겨 보아야 하고 넉두리를 해야 했다 어째 보면 별명을 생각해 붙이고 그 별명을 불러가며 넉두리를 하느라면 그 악한 동생이 더 애뜻한 그런 마음찐 적도 있었다

다음은 「모리다(森田)」였다

「그리구 모리다 이놈아! 너는 오늘 아침두 외살짜리 어린 놈으 초가(草架)길에 받아 넣었지… 저번에는 나먹은 양의 다리르 분지러놓구… 너놈이 개심하재이쿠 정 그러면 그 방정맞은 뿌다구르 피 발갛게 뽑아 놓는다…」

다짐이나 하듯 이양에게는 양이 바로 앞에서 옷줄 옷줄 가고 있는바에 손에든 매채로 똑똑 궁둥이 털위를 뚜두렸다

그러면 또 장수의 장단이다

「정 그놈 모리다 놈은 사람구실을 못할모양이야… 나쁜놈갈으니 그 심뽀 그대루서야 죽을젠들 온전하겠니야만 죽어두 저승이다」

「모리다」란 목장장(牧場長)의 성을 따온 별명이었다 남아와 장수가 몰고 다니는 백마리 중에서 뿔난 잡종(雜種)이라고는 세마리 박에 없는데 그중 크고 못된놈이 「모리다」였다 「모리다」를 부르고 보면 「니시하라」를 부르지 않을수 없었다 「모리다」처럼 뿌리 달린것은 아니나 털이 성기고 굵어서 「개털양」이라고도 불리우지만 이놈 또한 못됐다 소년들은 이놈에게는 조선인 수의(獸醫) 「모리다」에게 지지않게 목부들을 혹되게 구는 창씨한 「니시하라」의 성을 따다 붙였다

「너 이놈 니시하라야… 네놈은 뿔도없는 놈이 무슨 모리다 뿐사냐? 네놈두 이제 든든히 정갱이나 부러져 보아야 알게다……」

한참 그러고 가다 남아는 엉뎅이가 푸짐하게 생긴 Ⅰ이도 드문 일이지만 해마다 쌍둥이를 낳다 작년은 희귀하게도 목장 첫 기록인 삼태자까지 낳은 「큰에미」한테로 눈이 갔다.

남아는 어조를 고쳐 감개깊은 얼굴로 「큰에미야 너는 좋은 풀을 골라 바짝 더 먹어야겠다 너는 우리 목장에서 제일가는 보배로다 래년 봄에는 또한번 삼태자를 낳 보아야 하제이겠니?」

남아의 녀두리에 장수의 장단은 골짜기와 등말깃가에 다다닳은 양들이 구름처럼 펼쳐져 키넘는 새풀속에 잠겨져 가도록 그치지 않았다 다 비슷한것 같아도 백마리면 배마리의 용모 거동 먹새까지 죄 환한 남아며 장수에게는 「패대장」이며 「패중장」이며 「모리다」며 「강가루」며 「큰에미」며 「외가점할머니」며 별명도 많지만 녀두리 역시 끝없었다

가없는 새풀 바다를 소리도없이 구름처럼 나래났다 사라졌다 하며 골짜기에서 등말기로 등말기에서 또 골짜기로 양들이 옮아가는 사이 남아와 장수는 하나 골짜기에 섰으면 하나는 벌리 등말기에 서고 하나 등말기에 서면 하나는 골짜기에 서고 휘파람을 불며 풀피리를 만들어 불며 그랬다 그러다 약속도 없이 한 언덕에 나란이 앉아 녀두리요 이야기요 씨부렁거리다가는 또 시름없는 휘파람과 함께 헤어져 갔다 그러한 속에도 양은 지금 어느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느 웅댕이에는 몇마리쯤 떨어져있고 어느만큼 가서는 어느쪽으로 돌이켜 세워야겠다는것이 생각치않아도 환했다 두 소년의 네 눈이 그런속에도 그중 매칠해 지는것은 어느 구룡이에서 승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장대한 어른 목부는 승냥이에게 양을 먹히우는 일이 있어도 두 소년에게는 있을수 없었다

일년 열두달 三백六十五일 짐승을 키우는일은 하루도 뺄수는 없었다 내내 알맞게 잘 먹여야 하고 뒷시중을 보아주어야 하고 봄이면 날과 달을 모르고 밤을 밝혀야하는 분만(分娩)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단미(斷尾)를 해야 하고 전모(剪毛)를 해야하고 약욕(藥浴)을 시켜야 하고 또 얼마 안가서 종부(種付)가 있었나 그리고 날마다 방목(放牧)에 사부(飼付)였다 개인날 구진날 할것없이 목부들은 양과 함께 살았다 그래도 어미의 몸을 벗어나 젖이 떨어지고 커서 또 새끼를 낳고 무럭무럭 자라 뻗어 나가는것 이처럼 모든 고됨을 잊게하고 입김이 즐거운것은 소년들에게는 없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서로 얽혀 도는것같은 귀여운 동물인 까닭이었다

이제 등말기도 다 올라가 저쪽 아래멀리에는 두만강(豆滿江) 푸른 물이 구비쳐 사라지고 흰 구름덩이 한가로운 하늘은 한결 눈앞에 가까워지는듯한데 양들은 어느새 발끝으로 닥아와 소매를 물어 뜯고 눈감은 이마를 핥는때가 있었다

나이. 어리다고 제멋대로 부르는 「이놈의 새끼」「저놈의 새끼」의 욕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놈들이 조석으로 말하는 「양모가 중요한 군수품」이래서가 아니었다 그까짓 소리들은 듣고 돌아서면 소년들에게는 지난해에 들은 이붓에미의 잠고대였다 그러면서 소년들은 양을 아끼고 잘 키우기는 목장에서 제일이었다

하루 아침은 소년들에게 이런 일도 있었다

양사 운동장에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양의 발병(腐蹄症)을 검사하고 있는데 조리실(調理室)에서 장장이 부른다는 것이었다

조리실은 양사 안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년들에게는 무슨일인지는 알수 없어도 의자에 걸터앉은 저쪽 눈치부터 살피여졌다 나이 사십을 넘는 동굴뱅이 모리다의 샛감한 눈이 벌써부터 갈쿠리를 짓고 있었다 쌀쌀한 눈살에 갈켜지며 소년들의 시선은 이내 깎은지 며칠되는 수염이 규두솔같이 거칠은 살진불이며 턱으로 하여 흘러내렸다

양은 양대로 키워 왔어도 칭찬을 바라는 마음은 당처 있지도 않았지만 또 무슨 바람이 불려나 마음이 다시금 가다듬어졌나

「보자 보자 하니 이누므 사이끼드리나 모된 줏이만 해! 양이나에게 내이르미 불잉 놈아나 누구야?」

패 찌르는 소리에 펀듯 올라섰던 시선은 더욱 사나워진 눈길을 져눌길 없이 다시 불로 턱으로 하여 떨어지고 말았다 겁이 앞찌르면서도 속으로는 키득 키득 웃음이 날것같은 야릇한 마음이었다

「마리나 아니해? 웅? 양이나안태 내이르미다 불잉 노미 누구야?」

고무뽈같이 둥굴한 몸둥이가 궁굴듯이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소년들의 바로 앞에와 버티고섰다 새깜한 눈이 불녕이가 되어 버렸다 그 불덩이는 벌써부터 소년들의 량뺨을 확확 달구는것 같았다

「딱!」

「딱!」

장수의 뺨에서 이어 남아의 뺨에서 펄적 불이 날았다

「웅? 마리 아니해? 마리 아니해? 개새끼드리나………」

그리고 노려보다 모리다는 또 아까 순서로 올려 붙였다

「딱!」

「딱!」

뺨에서 불이 나는것보다 눈앞이 어찔어찔했다 도대체 어느놈이 고자질을 했는지 알수 없었다

「나쁜 놈이나 새끼드리……쫓겨나가지나 못해서……배급이도 못타고 굶어죽고나 싶어서…… 에익 두놈이나 다 나쁜 재끼드리…………」

그리고 모리다의 손은 량쪽을 제멋대로 날쳤다 「그저……」 「그저……」 그 생각 뿐으로 소년들은 앞이 어쩔 어쩔 하는대로 어쩌지도 못했다 그러나 아무 소년도 맞은 뺨에는 손 한번 올리지 않았다

「빠리…방목이나 나가라! 다시나 그러므 죽일 주리 알아!」

정 오쨘 뒤에 하는 말이었다

두 소년은 눈길 떨어뜨린 그대로 돌아섰다

서로 돌아 보거나 말 거니는 길도 없이 먼저 양사 운동장에 나온 남아는 어쩐일인지 그 많은 양들 속에서 「모리다」가 제일 먼저 눈에 뜨이었다 「모리다」는 십여보 앞에서 또아리처럼 말려 내려온 큰 뿔을 처들고 내 아랑곳이 무엇이냐는듯 어제 먹은것을 모리고 있었다

남아는 그 가까이에 닥아가자 「모리다」의 궁둥이를 툭 툭 찼다 안에서 맞은 뺨이 밖에서 갑짜기 더 아려나고 달아 오는것이나 그 보다도 키득 키득 웃음보가 더 놀았다

「이누무 새끼나 빠리 일어나! 이번은 참았지만 다시나 그래 봐라! 피 발갛게 뿌리나 빼 놓는다」

일어서 바켜서는 양을 쫓던 눈이 자기도 모르게 뒤따라 나온 장수의 뺨이 발간 너부죽한 얼굴로 갔다 남아의 억살맞은 시선을 받고 장수의 얼굴도 청승맞게 이그러졌다 둘다 눈살을 찌프리며 코로 김을 내뿜었다

양무리를 앞세우고 막새 밖에 나서는 남아는 벌써 훅 훅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모리다야 노해하지 말아 네야 철없는 양이구 나쁜놈은 사람새끼 모리다다 네야 미련할 뿐이지 철없는 너희들한테 무엇하러 욕하겠니? 모두 귀여워 그러는게지」

×

一九四五년 八월 九일이었다 멀리 웅기(雄基) 라진(羅津)쪽에서 쿵쿵 천둥하듯한 알수없는 소리가 한나절 계속되더니 목장안이 불연간에 홈박 뒤집히게 되었다 쏘련군이 상륙했다는 정보가 온것이었다 방목지에까지 사람이 달려와 곧 양을 몰고 내려오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려는 셈판인지 알 겨를도 없이 해는 아직 중천에 있는데 남아와 장수는 넓은 방목지를 이리 뛰고 저리뛰고 하여 겨우내 양을 죄 몰아 앞세우고 내려왔다

양은 운동장에도 두지않고 양사안에 몰아 넣었다 국경 경비사령부에서 나온 헌병들이 집집이 돌아다니며 피난 준비를 하라고 했다 잠시 무산(茂山)쪽에 피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리다」는 문들을 활작 제껴놓고 피난짐을 꾸려놓라 눈이 뒤젚혀 날쳤다 그러나 목부들이며 조선사람 부락민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쑤군 쑤군 길모퉁이에서 공론 뿐이었다 다급한 헌병들은 육철포를 꺼내 들고 호통질을하며 다녔다 그제야 조선사람들은 슬몃 슬몃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다 며칠만 지나면 돌아오게 될터이니 쌀이나 있는대로 싸고 이불꺼데기나 가지면 된다고 하였으나 정작 싸려니 그럴수도 없었다

남아는 이접 저접 뜨락에 섰다 다시 양사 운동장에 돌아오자 양사에 채정을 꽂고 있는—이놈 역시 령다라 야단인 니시하라

에게 물었다

양들으는 어떻게 하오다?」

「머이?」

「양들두 데리구 가오다?」

허우대같은 키를 주부린채 멍해 처다 보던 「너시하라」논셍 가신듯이 눈살을 찌프리며

「그놈의 새끼 멜거 다 물어 보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양이다 무에냐

「……………」

그리고 니시하라는 밑구녁에 불달린 놈처럼 껑충껑충 다음 양사로 뛰어갔다

남아는 한자리에 멍해 섰다 장수네집으로 갔다

장수는 정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불짐을 싸고 있었다 마루아래에 서있는 남아를 보자 장수는 마루까지 나왔다

「너희는 짐으 아이 싸니?」

그러나 남아는 대답은 못하고 떠들석한 거리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또렷 또렷한 둥굴한 얼굴을 말못할 검은 그림자가 스쳐갔다

데리고 갈 양을 가다릴수는 없고 양은 버리게되는 양이었다 남아는 그냥 말없이 장수의 너부죽한 얼굴을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째 빨리 집에 가재이니?」

남아는 그리고도 얼마를 멍해 얼굴만 처다보다 대답은 제쳐놓고 물었다

「장수야 우리 남아있재어캐?」

「어째서……」

「다 가문 저 수탄 양은 어떻게 되니……」

「양은 아이데리구 간다니?」

「양 데리구 갈게 머이야……」

「그렇지만 우리만 어떻게 혼자 남니? 헌병두 남는놈은 총을 쏴 죽이겠다는데……」

「숨어 버리믄 그만이지 뭐……… 쏘련군이야 일본놈들 치며 왔지 우리치며왔니? 남자 장수야 일본놈아들은 쫓기게 되니까 양 버리자는게지 머이야? 저이 말이야 꼭 돌아온다지만 돌아올지 말지 뉘기 안다니 양만 그대루 내 버려 두믄 양이 그대루 있겠니?」

「글세 마리다…… 그렇지만 아바지 나만 남아 있으라구 하겠는지……」

「너희 아바지는 기어루 가져야겠다네?」

「아까는 갈지 말지 하더이 헌병이 왔다 가구서는 아무때두 가야겠다구 그러재이니……」

「남자 남아 우리 둘이만이 때두 남자」

「글세……」

역시 멍해 섰던 장수는 아버지의 승락을 받는다고 집안에 들어갔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노성이 들려왔다

장수는 민망한 얼굴로 도루 나왔다 멍해 섰던 남아는 휙 발길을 돌리자 재빠르게 집뒤로 빠져나갔다

발도랑을 큰 걸음으로 뛰어 내려가 개울을 건느자 오막살이 집앞에 달려들었다

거리에서 떠해가는 소음을 들으며 남아는 「그렇다 너희놈들은 이저는 마지막이다 양은 정 우리게 되는게다」이런 마음이 들었다

어디 갔다 이제야 오느냐고 발을 동동 구르는 어머니에게 「일없음매……」「일없음매……」로 남아는 집안 문들을 꼭꼭 잠겨버리자 여전히 의아한 눈길인 어머니 손목을 마구다지로 끌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아들은 그대로 궁뎅이를 내렸으나 어머니는 쪼그런 그대루였다 것잡을길 없는 시간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눈길은 자욱히 들어선 나무 구루며 가지에 얽혀올라간 넝쿨속에 있어도 귀는 마을 쪽에 다라나 있었다 마을쪽에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아우성 소리들리는것 같기도 하고 들리지 않는것 같기도 하고 분간할수 없었다 혹 이곳까지 찾아 오는 놈은 없는가 혹 생각한것과 달라 양도는 소리 나지 않는가 그것이 제일 관심사였다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몰랐다 해가 중천에서 장바 한커레는 기울어진것이 확실했다 정 마을 쪽에서는 오래도록 아무소리 나는것같지 않았다

남아는 웅뎅이를 벗어나 언덕위에 고개를 내어 밀었다

웬일일까?

양사들이 있는곳은 동이개진 검은 연기에 휩싸여 버리고 만것이다 군데 군데 연기 발뿌리에서는 불길까지 불깃 불깃 일떠서고 있었다 불붙는 양사는 한 양사가 아니라 전부임에 틀림없었다

남아는 그광경을 넋빠진 사람처럼 바라보다 허둥지둥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마음이 한줌이나 해 아들의 동정만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남아는 순간 아무말도 나가지 않았다 남아는 다시 허둥지둥 불타는 양사쪽에 고개를 돌렸다가 어머니 가까이로 내려왔다

「어마 잠간만 여기서 기대리오 내 양사에 얼른 가보구 오겠음 그늠의새끼들이 양사에 불을 질려논 모양이요」

「그러다가 야………」

「일없음매…… 이저는 사람은 있는것 같재이요」

벌써 남아는 잔대며 가둑나무 아치들을 잡아 제끼며 뛰듯이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언덕밑에서 개울옆에서 행길 집 모서리에서 잠간씩 발을 멈췄다 여시 인적는 없었다 남아는 무엇보다도 자기와 장수가 몰고 다니는 양이 있는 제三양사로 갔다 양사는 전면 전부가 빨갛게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불길은 치마 지붕에도 퍼져가고 있었다



채정까지 꽂아 놓았던 양사 큰문은 좌우에 열려져 빨간 불녈이되어 타고 있었다 그곳이 불기가 이글이글한걸 보면 불은 문을 열고 그 어구에 놓은것에 불을 놓았다 하기는 양도 소나 마찬가지로 불이나면 문을 마수고 나오려고 하기보다 안으로 몰려 들어가는 법이었다 그러기에 양은 착실히 그 안에 있을것인데 불길이 드센 문어구에는 한놈 얼른거리지 않고 거위에 목에 칼이 박혀도 소리 못치는 양이라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남아는 가슴속이 그냥 그 불전에 지질이 타들어 오는 것 같았다 열발자욱도 넘어 떨어져 섰는데도 얼굴이 뜨거워 왔다 아무리 돌려 보아야 문이고 유리창이고 불길에 죄 덮여버려 들어갈 구녁이 없었다

남아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가뒀다 놓았다 하며 허둥지둥 양사 뒤쪽으로 갔다 뒷벽 뒷처마에는 아직 불길이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라 돌아온것이 아니지만 뒤는 북풍을 막노라 유리창 하나없고 돌로 쌓아 올린 담벼락이였다 어떻게 손을 나위가 없었다

남아는 또다시 넋없이 앞으로 돌아왔다 다시 양사 큰문 앞에서 그냥 갈팡질팡 했다

그러나 남아는 돌아서자 근방을 살폈다 양사 운동장 바로 아래에 있는 또랑이 생각 되었다 우물은 휠씬 아래 내려가야 있었다 박새널판자를 안에서 당기고 바깥것은 발길로 차고 하여 크담한 구멍을 낸다음 잘 흐트지 않는 물이 양동까지 풀어져 누런 또랑에 제창 내려섰다 그냥 무릎을 물에 잠그며 앞으로 엎드

렸다 이내는 얼굴이 잠겨지지 않았으나 질끔 눈을 감는것과 동시에 대가리까지 꾸정물속에 박았다 콰콰한 양똥물이 입안에 숨어 들었다 춤을 뱉으며 이번은 옆구리를 잠그며 희뜩 하늘을 바라보고 돌아 누웠다 그리고 또 이쪽 옆구리를 잠그며 반대로 누웠다 다시 돌아 누웠다 그리고 꾸정물 속에서 물이 철평한 몸을 일으키자 운동장안에 들어섰다 얼굴위를 머리에서 누런 양똥물이 줄줄이 흘렀다 옷이라야 여름옷 단벌이고 무슨 뒤집어 쓸것이나 없나 그제야 생각나 주위를 살폈다 막재 옆에 양똥을 실어내던 들것이 있다 남아는 다시 달려가 거적데기를 뜯어 내자 들고 또 또랑물로 갔다 물에 흠뻑 잠겼다 낸다음 뒤집어 썼다

남아는 허정한 두 팔을 몸에 바싹 가뷔 붙이며 불이 빨간 양사문안에 잽싸게 뛰어들었다 콱 연기가 앞을 휩쌌다 벽이며 천정에 뿜겨오는 불길에 전신이 지질이 움추려 들었다 그저 앞으로 나갈뿐이었다 주먹이 이즈러질것같고 언제 꺼물었는지 이가 부등 부등 바사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발을 옮겼다 허리를 구프리며 손을 앞으로 내어 밀었다 다행히 안구석은 불길이 아직 닫지 않았다 무릎이 불지에 양의 궁뎅이에 부디치며 양이 놀라 다라나는 바람에 남아는 그만 어프러졌다 그바람에 얼굴에 썼던 거적댁기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놀란 양이 다라나고 사람이 어프려지고 하는 바람에 양사안은 양들의 복새판이 되었다 거척데기는 바닥에 깔렸는지 어느 양의 대가리에나 등에 덮쳐 갔는지 찾을길이 없었다 몸은 조여늘고 숨은 막혀오고 거적데기를 찾고 어쩌고할 경황도 아니었다 손또리 밑 정갱이도 그대루고 팔뚝도 그대루였다 손에 쥐이는대로 두 손에 두놈의 큰다리 사체기를 움켜잡았다 얼굴을 두 양의 엉뎅이 속에 파묻으며 날쌔게 뒷걸음을 쳤다 불길이 다리 사이에서 솟아 얼굴을 싸울리는것 같았다 정갱이고 머리고 그냥살겨지는것 같았다 몸을 음추리노라 뼈가 각이 나는것같았다 급한 숨을 할할 하며 이를 그대로 갈았다

두마리의 양을 간신히 운동장 밖에 동댕이 친 남아는 그자리에 어프러졌다 겨우내 두 팔로 땅을 짚고 숨을 할할쉬었다

이내 생각되는것은 또랑물이었다 거듯 어프러지듯 막 밖에 뛰어나갔다 물속에 어프려져 몇번이고 딩굴었다 이를 갈고 주먹을 오그리고 다리를 가다듬으면서도 정신은 아직 또렷 또렸했다

남아는 다시 불길이 휘황한 양사 큰문 앞에 면바로 버티고 섰다 머리고 얼굴이고 몸이고 할것없이 누런 꾸정물이 비오듯 흘러 떨어졌다 다시는 못들어 가겠다싶던 것이 몸을 물에 잠겼다 나니 몸은 그대로 지질이 꼬여들지만 아직은 몇차례 더 끌어 내올수 있을것 같았다

눈에 빳작 정기가 돌아 왔다

남아는 주위를 살폈다 이저는 쓸것이라군 아무것도 눈에 띄이지 않았다

남아는 부르르 떨듯이 하며 손이 이그러지게 주먹을 쥐었다 발이 주춤 주춤 했다

머리를 꺾어 량팔을 가뷔 붙이는것과 동시에 허리를 구푸리며 남아는 또 불속에 뛰어 들었다

순간 콱 전신을 휩싸는 화기에 숨결까지 꺾이며 남아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고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아희처럼 「와—」 울음이라도 터치어 버릴것 같았다 그러나 남아는 눈을 감은채 머리고 얼굴이고 팔이고 익개듯이 부비고 비끄고 하며 그냥 양무리 속에 덮처 갔다

순간 남아의 눈굽에는 삼태자 에미—장례 제일가는 양「큰에미」가 떠올랐다 더 못들어 올바엔 「큰에미」만이라도 구해내고 싶었다 수단 양이 손끝에 걸리고 발결에 채이는것도 죄 버리고 남아는 실신한 사람처럼 허둥지둥 「큰에미」만 찾았다 벽밑에 「큰에미」를 발견한 남아는 그위에 쓸어질듯 덮처갔다 놀란 양의 뒷다리 사채기를 움켜 잡았다 그와 동시에 아무 양이나 그옆 또 한양을 왼손에 잡았다

남아는 허둥지둥 뒷걸음을 쳤다 점점 정신이 아찔해 왔다 발 뒤끔치가 땅에 고연히 걸리며 몇번이고 쓸어질것 같았다 그러나 남아는 그냥 뒤로 걸었다

더욱 가까워지고 성해지는 불결속에서 남아는 이제는 뜨거

운 감각도 잊은것 같았다 양사 큰문을 나섰을때 남아의 손에는 어느듯 「큰에미」양 밖에 없었다

맑은 공기를 들여마시는것과 동시에 남아는 그자리에 쓸어지고 말았다

×

목장 사람이며 부락사람을 물고 가던 헌병놈들이 다음 부락 주재소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며 어름 어름하는 사이 끝내 도망치고 만 장수가 목장에 돌아온것은 어두울 림시해서였다 양사에 불찌른 줄은 가는 도중에 알았지만 지금은 우슬 우슬 어둡는 속에 허청한 담벼락과 타다남은 새까만 기둥과 아직도 꺼지지 못한 잔잔한 불긴들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뒤를 수탄 양이 타죽은 누릿내가 사납게 덮고 있을뿐이었다

그것은 이렇던 남아가 그팔이 되어 우는 어머니 무릎에 안겨 있을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신은 돌이켰으나 이루 몸 둘곳을 몰라했다 이를 부등부등 갈았다 아까까지의 남아의 허울은 찾아볼길 없이 되어버렸었다

이외의 양 울음소리에 고개를 드니 길 한가운데 큰에미양을 비롯한 양 세마리가 갈곳을 몰라 멍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안있어 양사 앞에는 아까 몰려가던 사람들이 둘씩 셋씩 모여 들었었다

八월 十七일 새벽 네시경 남아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날로 죄 도망쳐온 수탄 동무들과 함께 장수는 병자의 옆에서 꼬박 밤을 새웠었다

어찌다 정신이 나는듯 남아는 장수에게 묻는것이었다

「장수야…… 목장은 다시 하게 되니?」

「하게 되제이쿠…… 촌에 예택으루 가있는 양들을 위선 모라오기루 했다 양사두 며재이여 다시 지구……」

「이저는 정말 우리끼리만 하겠구나 응?」

「그럼 이제는 우리끼리 뿐이지 머……」

「참 일른 일어났으믄 얼마나 좋개…… 이저는 정말 재미있게 양 키워 보겠다……」

「그럼…………」

이튿날 새벽이 十七일 새벽이었다

지금도 장수는 이 목장에서 방목을 하고 있다 국영 온성(穩城) 목장에 가면 만날수 있다 그리고 남이가 불속에서 구해낸 세마리의 양도 만날수 있다

장수는 금년 봄에 크게 근심했다 분만(分娩)이 오라잖은 「큰에미」가 들어누워버린것이었다 아마도 나이 까닭인상 싶었다 장수는 앓는 양의 옆에서 마음이 한줄이나 되어 사흘 밤을 꼽박 새웠다 분만이 늦었다면 더 계속해 새웠을 것이다 그런데 「큰에미」는 누운지 사흘 만에 암커 수커 쌍둥이를 낳고 일어나자 찌렁통같이 새끼를 핥기 시작했다 장수는 마치 죽은 남아라도 본듯 기뻤다

딴 동무들 역시 기뻐하는 옆에서 갓난 새끼의 물기를 쳐주며 장수의 넉두리는 또 나왔다

「너는 탈이다 남아 세째 아들이다 그러구 너는 암커이까 남아 다섯째 딸이다 너희 만형은 벌써 증손주까지 봤단다 그녀 너희 친척이 얼마나 많아졌겠니…… 이제 젖이나 먹구 기운이나면 인사하며 다니자 너희들은 누구 덕분에 이 좋은 세상에 태워났는지 아니? 네 어머니는 잘 알지 그것두 이빠가 젖먹은 뒤에 물어보구…… 물어 불적에 그대라 너희 어미 이름을 왜 「남아」라구 고쳤느냐구…… 너희두 잘 먹구 잘 놀구 잘 자라서 너희 어머니처럼 너희들같은 좋은새끼를 많이 낳아야 한다 이저는 정말 우리세상이 왔다 산태자두 낳아야지 죽은남아를 생각해서두 우리조선에는 털이 모자란다 산떼미처럼 털을 내야한다 공화국 인민이면 누구나 털양복을 입을수 있게……」

찌렁통같은 넉두리에 동무들은 몇번이고 웃음보를 터티였나 회푸른 맑은 하늘아래 넓은 방목지 풀짜기와 등말기를 거닐면서 장수는 지금도 양들과 여전한 넉두리다

지금도 양속에는 빨난 불량한 놈이 있고 패를 지어 다니며 애먹이는 놈이 없을수 없었다 민첩원인 장수는 따라서 별명도 지금은 달리 붙였다 「리순만」이니 「김성수」니 「장개석」이니 이제는 이렇게 붙였다

그러한 장수에게는 남아의 일이 늘 목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며 장수는 그때 가치 남자는 남아를 두고 주재소까지 가서야 도망쳐 온 일이 늘 후회되었다

学生日記에서

이·그린 作
백 수 譯

(一)



사상을 완전히 표현하는 일군의 언어를 문장이라고 한다 지금 나는 이문장을 제법 줄줄 내려쓴다 글을 쓰는것도 三년동안이나 쉬었다가 지금부터 바로 三년전에 시작한것이다

그때 첫 四년동안 로씨야말로 배운 과목들을 전부 복습했었다 그러면서 제四학년에서 배운 다른 과목들도 모두 복습했던것이다 제四학년에서의 다른학과라는것은 이를테면 수학、국사、지리、자연과학이다 이렇게하여 三년간 쉬고난후 五학년에 진급하기전에 아무튼 과목을 복습했었다

六년전 즉 열살때에 공부를 중단하게되었는데 그때 나는 四학년을 수료했었다 열세살때에 이 휴학은 끝났으나 이때까지도 四년동안에 배운것 이외에는 더 아는 것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나 그뒤 三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三년동안에 공부를 중단하게되어 헛되이 지내보낸 三년동안에 못한 공부를 보충하였다

나는 제五학년 제六학년 그리고 제七학년에 순차로 진급하였다 나는 현재 열여섯인데 제八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다 내가 열일곱살때면 제八학년을 수료할것이며 제十학년은 열아홉이면 수료하게될것이다

중학교를 빨리 졸업하려고 나는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해 겨울동안에 두학년의 과정을 수료할수있는 그런 제도의 중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떻든 우리 학교에는 그런 제도는없다 물론 될수있는대로 기회를 노치지않고 로어과와 문학과에 중점을두고 조금씩 과외공부를 더 하고있다 그러나 두두러지게 낳아지는 것은 없다

아무렇든 나는 우리 학급에서 로어를 제일 잘한다 베라●미카이로브나선생처럼 훌륭하게 우아하게 말할수있도록하여 누구든지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않도록 모국어를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내손에서 책을 빼앗아 얼굴을 후려갈기며 내가 앉고있는 걸상을 거더차며 나와 의자를 복도에 동댕이치게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제는 없을것이다

지금에와서는 언제나 구점(句点)과 구독부호를 제자리에다 옳바로 쓰며 철자가 틀리는 일은 거의 드물다 베라●미카이로브나 선생은 어제 작문에 〃五점〃을 주었다

현재 나는 직접화법(直接話法)도 정확히 쓰게되었다 베라●미카이로브나선생은 작문시간에 직접화법을 가르쳐주며 그것을 우리가 받아쓰도록하거나 그렇지않으면 작문에 직접화법을 쓰도록 하고있는데 나는 이럴때면 가장 좋아한다

「나는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나는 물었다」 「그는 댓구했다」 등등의 이러한 표현법을 옳바르게 쓸수있도록 집에서도 기회있는대로 대화를 기록하는 련습을 하고있다 이러한 엇구들은 구절의 맨끝에나 처음에나 그렇지않으면 가운데다 놓도록하는데 이것은 문장을 더욱 다양하게 만든다 이것이 내가 공부하여야할 중요한것이 아님을 잘알고있다 베라●미카이로브나선생도 역시 그렇게 말했던것이다 어차피 이것은 장차 내지식의 한개 요소로서 후에 내가 공부한 다른 것이 모두 제자리를 적당히 차지해야 되듯이 적당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것이다

이러한 리유로 나는 학교에서 수업한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독서하려고한다 필요할때에는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쉽게 옮겨쓸수 있게되었다 례를 든다면 「바샤아저씨는 그는 감자를 얻으려 또 가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쓸수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도 쓸수있는 것이다 「바샤아저씨는 나는 또 감자를 얻으려 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썼다고하여 바샤아저씨가 말한 의미는 틀리지 않는다 「나는 이웃마을에 가려고 생각한다」고 바샤아저씨는 말했다

「그래 될수있다면 나는 감자를 좀 얻어보겠다」 「바샤아저씨 어째서 그렇게 자주 감자얻으려 가시나요」하고 물었다

「어째서」 하고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와 네가 겨울동안에 먹을것을 충분히 작만해야 하겠기에 그런단다」

「그러나 네포대나 있지않아요」하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걸 가지고는 충분치 않는걸」하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 나와 같은 대식가에게는 네포대는 고사하고 열포대가 필요 하단다」

「글세 다른이들은 감자얻으려가면 끝 얻어 가지고 돌아오는데 어찌된 셈이나요」하고 나는 또 묻는다 「그들은 행운아야 그것뿐이지」하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은 바로 부유한 끌호—즈에 들린것이 틀림없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운이 좋지 않은걸」

바샤아저씨는 기름때가 번지르르한 헌 모자를 못에다 걸고 방한쪽 구석을 물끄럼히 바라보며 잠간동안 깜짝않고 서 있었다 아저씨는 한숨을 길게 쉬고 원통 기름에 더렵혀져 「벤진」 냄새가 무력무력 나는 잠뱅이를 벗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새어드는 밝은 햇발에 비치워 검으스레 한 그의 젊은 얼굴은 「인디안」처럼 구리빛갈로 보였다

「오늘도 또 가련한 정상인걸요 바샤아저씨 검은머리를 길게 따 느린 그녀인을 찾아 다니신 모양이나 찾지못한것이 틀림없지 요」

「네 그렇지요 아저씨는 느물떼리고 있지만 다 알고 있어요 감자를 얻으려다니는게 아니예요 그녀인을 찾아다니시는걸」

바샤아저씨는 대답하지 않고 부산하게 잠뱅이옷을 벗고있다 아저씨는 주저앉아 잠뱅이를 벗을때 보담은 쉽게 장화를 벗어 버렸다

나는 될수있는대로 빨리 배우고 싶으므로 올해를 넘기기전에 문법공부를 철저히 하련다 이러는 한편 로씨야문학의 기원은 어떤것이며 그발전은 어떠했는가를 가급적 빨리 알고 싶으므로 로씨야문학사의 공부를 시작하려고한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인민이 어떻게 노래하고 말했는가 이모든것을 알고싶다 지금 나를 말릴사람은 없다 보로드야 스미르노브가 조롱한대도 괜찮다 그는 나를 「책버러지」라고 부르며 조롱을하나 그자신은 그조롱하는의미를 모르고있다 이것은 그에게는 가장 좋은일일 것이다 스미드로노브 전쟁이 계속하는동안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 어느 변강에 있으면서 「리차—드●울음」이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고 평화롭게 전쟁전과 꼭 마찬가지로 학교에 다녔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성내지도 않을것이며 그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해주려고도 하지 않으련다 어째서 나는 그래야 할까

그는 이와같은 사실을 조금도 리해하지못할것이다 그가 나를 놀리려고 할때 나는 단지 모르는척 할뿐이다

그는 진짜 명리한 소년이라는것도 잘알며 나보다 훨씬 재간도 있다 그는 아주 쉽게 전과목에 만점을 맞는다 우리학급 다른애들은 「五점」은 그애의 뒤를 따라다닌다고 늘 말한다 그들이야 어떻게말하든 나는 무관하다 그가 이렇듯 훌륭한 학생이라는것을 오이려 기뻐한다 이것은 그가 어른이 될때에는 더 명리하게되며 그가 지금 리해못하는 사물들을 리해하게 되리라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그는 아직 전쟁전의 보로드야 그대로 철부지다 그러나 바샤아저씨의 경우는 아주 딴판이다 전쟁이 끝난뒤 나를 만났을때 바샤아저씨는 잠시동안 음울한 표정으로 나를 처다보더니 곧 이렇게 알아마치는 것이였다

「너는 독일군 점령지대에 살고있었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대답하지않고 물끄럼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 의혹을 업새버리려는듯이 그는 한두번 싱긋 웃어보이더니 이렇게 물었다

「나를 알지못하겠어?」

나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의 어머니는 그와 형제였다 바로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거리에가서 며칠동안 그와합

께 지냈던 관계로 썩 잘알고 있다 그는 운전수였는데 한가로울 때면 젊은 미술가들과 짝패를 지어 곧잘 춤추군 했다

나는 그가 춤추는것을 보았었다 처음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음악에 박자를 맞추어 손벽을 치면 그는 어머니와 함께 원을 그리며 걸어다니는 것이였다 다음은 빙 둘러 싼 원의 한가운데다 어머니를 남겨두고는 손수건을 쥐고 꿇어앉아 춤을 추었다

꿇어앉아 당자 춤추는것은 아니고 처음에 공중에 높이 솟꾸쳤다 고추 선 멋진 머리카락이 빨간 양피가죽장화에 닿도록 몸을 꾸부리는것이였다 그는 이렇게 하면서 손벽을 요란하게 친다 그리고는 마루방이 움실움실하도록 여러가지 「땅재주」를 놀았다 그때는 나도 기뻐 날뛰며 박수를 치고 소리까지 질렀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즐겁게 지냈다

어떻든 나는 그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왜 웃고있을까 나는 웃는 것을 바라지 않건만……

「너 아무도 찾지 못했지?」하고 나에게 물은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도 찾지못했다 너와 나는 친척이라구는 하나두 남아있지 않구나 반야야」

그는 나를 또다시 뚫어지게 바라보다 불숙 이렇게 제의했다

「거리에 나가 나하구 가치 살자구나 방이 두개나 있는데!모두 텅텅 비어있단다」

「여기서 나는 학교를 다닐터이예요」하고 대답했다

「거리게 가더라도 학교는 다닐수 있다 걱정말아라 내 월급 가지구도 우리둘이서 넉넉히 살아 갈수있다 내가 중학교를 필하게 되면 또 더 공부할수 있지 끝까지 너를 돌보아 줄테다 때가 돌아오면 신세 갚을수도 있지않니」

아저씨가 말한것은 이것뿐이 었다 어떻게되어 내가 혼자 남게 되었는가 일일이 물어볼줄 알았다 그는 이런것을 물어볼만한 가책이 있었다 그는 현재 내게는 단 한분의 친척이다 이러한 온갖 사실들을 몇번이고 되풀이 해서 이야기해야만 되는가고 생각하면 내자신 측은한 마음이 들군했다 어째서 끝없이 이런 이야기를 되풀이해야만 할것이냐

그러나 아저씨는 그이상 묻지않고 자기신세타령도 더 말하며 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이런 제의를 하고 재빛푸른눈으로 은근하게 나를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리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친절하단말이야 칠부지 고아를 데려다 집에 있게 했으니 그애가 복을 가져올거야」

그러면 바샤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애정을 찾고 있는것입니다」

아저씨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얼굴은 해에 검붉게 탔었다 나는 이제는 그의 얼굴을 피할려고 서둘지는 않았다 전쟁전 그 얼굴은 주름살하나 없었고 언제나 그 눈은 맑고 명랑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눈섭사이에는 두개의 주름살이 잡혔고 깊숙하게 홈이 패어진 탓으로 웃을때에도 반반하게 되지않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 맑고 명랑한 빛이 약간 남아있다 치더라도 하염없이 그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듯 그것은 깊고도 차디차게 감추어져 있는것이다 벽돌을 구워내는 고열의 특수한 가마가 있어 이가마에서는 진흙으로 만든 생벽돌이 어떤 중압에든 견디어 낼수 있게끔 벌겋게 달아 견고하게 되어져 나오는것이다 마치 무서운 고열속을 헤쳐 나온 사람처럼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 그이상 더 변하지 않게 된거와같이 이것이 흡사히 바샤아저씨의 형상이다

여윈 갈쿠리코위에는 두줄기의 곧은 주름이 차디차게 잡히고 새기도는 눈발은 얼어붙었고 여윈볼은 또한 광대뼈 그대로 딱딱해 보였다 입술 그것까지도 조용한때처럼 항상 한일자로 꼭 다물고 있었다

량켠 입술은 뾰죽한 것이 검붉게 탄 얼굴에서 오려낸것만 같았다 피부를 살작 오려내어 그 두리를 아래위로 접어 빨강게 꼭 붙여놓은것만 같았다

말을 하게되면 입술은 슬몃이 제자리에 꼭 물어가 떼여 가만히 있을때의 그의 얼굴처럼 꼼짝 안하는것이었다 바샤아저씨의 눈섭과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인다면 흡사히 눈만 반짝이

는 인디안과 같이 보일것이다

진짜 인디안을 보지못하고 책에서 읽어알뿐이다 나는 그들의 아름답고도 남성다운 그 구리빛갈 얼굴을 사랑한다 인디안은 또한 자유를 가장 사랑하며 그들의 어떤종족은 지금까지도 백색인종의 양키—들을 위하여 로동하는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지유의사대로 대초원지대를 돌아다니는 것이다

일요일만이라 하더라도 일기만 좋으면 대초원은 아니나 나무수풀로 나역시 인디안처럼 잘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곳에는 굉장히 큰 산림이 있는데 거리에서 곧장 三八킬로메—터나 뻗히고있다

그곳에는 승냥이며 여우며 로끼며 다람쥐가 있다 그전에는 이곳에 곰과 산고양이도 흔했다 그러나 지금은 곰과 산고양이는 멸살되어 버렸다 빨찌산들이 전쟁중에 죽여버렸다고 한다

나는 무성한 덤풀과 진털밭을 지나 이산림속을 十킬로 내지 十五킬로 가량깊숙히 들어간다 그곳에는 내 발자욱이 있으며 내가 즐겨가는 움폭하게된 곳이있다



굵고 높은 두개의 참나무와 무성하게 벌어진 굉장히 큰 백양나무가지 사이에는 내 비밀거소까지 있다

그곳에는 이끼낀 돌틈 모랫 터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샘도있다 나무로만든 갈쿠리를 손에들고 오솔길이며 무성한 잡풀속을 가까스로 헤치고 쏜살같이 뛰어간다 땅에 깊이 패어진 흙을 저녀뒤고 이끼낀 바우며 땅에 솟아오는 나무뿌리며 나무구루에서 사방으로 뻗어져 올뺌이가 기어다니듯 꾸불꾸불 수없이 얽힌 나무뿌리들을 뛰어넘는다 이곳에는 가지각색 나무혹이며 균이며 이끼가 붙어있다 나무가지에 깃들인 새들을 놀래우고 눈깜빡할 사이에 나무를 기어올라 꼭대기에 있는 나무가지에 매어달린다

한쪽손에 갈쿠리를 든채 한쪽손으로 거의 五분간은 매어달릴수있다 그리고는 지직의 새암을 찾아 두리번 두리번 내다보는것이다

나는 이산림속에서는 「짠글」에있는 원숭이와 같음을 느끼게된다 그러나 내나이 열여섯이므로 내가 고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를것이다 열여섯나이면 이렇게 못난이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되지않는다

전쟁이 시작되었을때 내나이는 겨우 열살이었다 나는 그당시에는 인디안의 놀음같은 이렇게 재미나는 경기가 있는 줄은 몰랐다 그뒤 三년을 지내보내는 사이에도 몰랐다

이 三년동안에 내가 안것이라고는 단지 이런 한가지 사실뿐이다 즉 이세계에는 독일인이 있고 독일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국민이며 여러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문명하고 강대하며 천부한 재질을 타고난 국민이라는것을 알뿐이었다 이것이 내가 三년동안에 알아야하고 기억해야 하는 전부였다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기만하면 헤르·우름은 이 또한 교양이 있고 대장부로 생긴 우름은 나에게 이것을 기억하도록 해주었다 그는 어찌도 힘이 세던지 책으로 내머리

를 한개 치기만하면 나는 걸상에서 굴어떨어져 동댕이치게되는 것이었다 그는 곧잘 내손에서 책을 빼앗아 책을 들여다보고는 책으로 나를 때렸다 그러나 처음에는 싱글싱글 웃는다 웃으면서 머리를 뒤흔든다 그러다가는 팔을 뒤로 휘저어 나를 후려갈기는것이었다 아까 말한것처럼 쉽게 넘어뜨리려고 언제든지 여김없이 모으로 볼을 갈겼다 넘어지지않게되면 내가 앉고있는 걸상을 거더차는것이었다 이렇게하면 물론 넘어지게된다

헤루•우름은 참으로 튼튼하게 생겼다

아침이면 젖은수건으로 몸을 문지르기를 잘하는데 그때보면 그의팔과 어깨가 얼마나 뚱뚱하게 살이 쪘는지 알수가있다 그의 가슴곽이며 잔등의 흰 살결은 문지르게되면 언제나 단홍색으로 발갛게된다

내가 보고있는것을 알게되면 반드시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다 「요 조그마한 야만종녀석이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있단말이야 내가 정 신기한 구경거리가된 모양이지 그렇지않어? 친구 신기할게 조금도없어 이 야만종국가 사람들은 건강이라든지 아름다운 육체를 찬미할줄 모른단 말이야 그것이 고도의 정신적 기능을 가진 국민의 특색이야」

이렇게 말하기시작하면 나는 언제나 슬쩍 빠져다라나려고 한다 빠져나지 못하게되면 우름은 다리를 피이고 의자에 걸터앉아 고급한 문화를 가진 민족과 저급한 문화를 가진 민족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고도로 문명한 민족의 역활과 그사명의 큰 남함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고도로 문명한 민족의 사명이다는것은 다른 모든 민족을 령도하여 일반적으로 새로운 합리적 기초위에 세계를 재조정하는 것이라고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때면 하나도 리해할수가 없어 빠져나려고 했다 그러나 처음 기회를 노친 다음에 빠져나가려면 오이려 귀찮다 그때 할수없이 우둑허니 서서 벌겋게된 그의 가슴곽이며 바지허리춤위로 또한 벌건가죽이 두줄기 주름을 잡고있는 배를 쳐다보며 듣고 있었다

「나에게 맡겨진 이러한 외사에 의해서 나는 볼쉐위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로씨야인민과 위대한 독일민족과를 련결하는 한개 고리로서 행동할 것이 요구 되고있다 나는 이 고상한 사명을 완수하기위한 필요조건을 모두 갖추고있다 잘못한 사람에겐 친절하게하며 인자하게하나 적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하는 이런 포용력이 있는것이다 너는 다행히 네나이에 감사를 드려야된다 그것은 독일민족의 행복스런 자래를 즐길 기회를 너에게 줄터이니까」

나는 헤르•우름이 말한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 그는 로씨야말을 류창하게 말하며 철자는 거의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로씨야말을 그렇게 류창하게 한다더라도 그의말은 퍽 기묘하게 들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쩐지 전혀 로씨야말 같지 않았다 그는 로씨야사람이 발음하듯 하지않고 정확하게 발음했다 그러므로 로씨야사람 말투가 아니라는것을 곧 알아낼수 있었다

그렇게 백발의 부인은 아니었다

그부인이 처음 나를 굽어보면서 「어쩐일이냐 애 넌 누구네 아희냐」하고 물었을때 나는 이전 로씨야사람의 목소린줄 곧 알았던것이다 그때 나는 그날밤 기어들어갔던 가시덤불속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울어댔다 내 기쁨은 너무 빨랐던것이다 로씨야사람한테 가게된것이 아니라 바로 헤르•우름의 손아귀에 붙잡히게된 까닭이다 그러나 그때의 내마음은 종잡을수없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이틀전에 나는 달릴수있는데까지 빨리 달려 도망쳐왔었다 내가 다라나온곳은 어찌도 무서운 정경이었는지 생각만해도 아찔아찔하다

나는 집 침대에서 잠을자고 있었는데 이때 땅이 진동하더니 밝은 아침은 캄캄한 밤이되고 말았었다 그때 마당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려왔다 악취나는 검은 연기속을 헤치고 내달려 나갔으나 어머니는 찾아볼수 없었다 무엇인지 지상에서 어머니 목소리와 아주 비슷한 이상한 비명을 울리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아니었다 무엇인지 알아낼수가 없었다 어딘지 나도 보이지않았다 낯익은 노란 웃자락을 걸친채 비스듬이 자빠져있는 그것도 진나는 아니였나

나는「어머니」부르며 빙빙 헤매었으나 어느쪽으로부터 그곳에

근접해야할지 알수없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적어져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낼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는 내 주위 사방에서 점점 더 높아져 갈뿐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비명이었다 무엇인지 먼지와 연기 사이를 뿌—ㅇ하고 으르렁대며 지나가더니 그리 멀리 가지못하여 땅위에 요란하게 떨어져 붓어졌다 갈래갈래 찢어진 수많은 파편들이 이번에는 다른소리를 내면서 내머리위를 스쳐 날아갔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또 다시 내 등뒤에서 무엇인지 땅에 부디쳐 박산이 되는 것이었다 이어 무거운 흙덩이가 내잔등을 쳤다 나는 다음집 문지방에 머리를 디려 받았다

이런뒤에는 더 들리지는 않았고 생각나지도 않았다

내머리 위에 처음 들은 소리는 바시락대는 소리었다 머리를 번쩍 들자 무엇인지 얼굴을 확끈 치는 것이었다

이웃집이 타고 있었다 불길은 나무벽을 바슬랑거리며 타오로고 사방으로 퍼지는 것이었다 불길들은 자기가 먼저 태워버리려 경쟁하듯 서로 바슬랑대고 속삭이며 무섭고도 고약스러운 무슨 이야기를 서로 받는것만 같았다

날쌔게 일어나 우리집 있는데로 돌아섰다 그러나 집은 앉아볼수가 없었다 커다란 불길들이 우리집에서 내가있는 쪽으로 내뿜는것이었다

불길은 창문에서 기어나오고 있었다 어느새 지붕을 뚫고 나와 바람에 맞아 이쪽저쪽 휘날리고 있었으며 불길위로는 까만 연기가 하늘에 솟아올라 무거운 구름이 되는것이 었다

커다란 불길의하나 내가 있는것을 알아채린듯 창구녕에서 솟구쳐나오며 나를 가루채려 하였으나 나는 뒤로 물러섰다 불길은 성이난듯 二년전에 아버지와 내가 앞뜰에다 빙 둘러처놓은 말뚝 있는데 희끔서다의 배재를 후다닥 치며 창구녕으로 도루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밧짝 마른 말뚝에 남은 불꽃들은 점점타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어 울타리전부에 쪽 옮아 불길은 끝내 한덩이가 되고말았다 배재의 불길은 하얀 라이락 꽃나무 숲에 옮아가더니 범비에다 베—ㄹ은을 뒤우듯한 복닥거리는 소리가 났다 라이락꽃과 나무잎들은 순식간에 까맣게 되어갔다

다시 마당쪽으로 뛰어가려 하였으나 모두 불바다요 연기였다 마을 다른집들도 전부 타고있었고 사람소리라고는 더 들리지 않았다 고함소리는 멀리 사라지고 불길이 내는 요란한 소리만 들려왔다 일생동안 지어 놓은것이 전부 화염속에 묻혀버리고 주위에 들리는 소리란 불 붙는 요란한 소리만일때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수없다 또 무엇인지 머리위에서 봉하고 으르렁댔다 나는 내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틀동안이나 줄다름질쳤다 밤에 잠시동안 머물어 길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버들숲속에 들어 누웠다가 또 내달았다 길에 빠져나와 앞질러 가기위하여 사람들을 쫓아서려고 애썼다 그들을 쫓아다는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자동 자전차며 전차며 화물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나는 맨발로 뛰어갔다 첫날은 자동 자전차와 전차가 질아때에 비켜선 나를 지내쳐 돌진해갔고 다음날은 평정과 총을 만재한 화물자동차가 길에 웅성거렸다 그들도 빨리 이동하고 있었으며 나보다도 훨씬 더 빨랐다 길에 가까이 가보면 그곳에는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타고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틀림없이 있었고 독일사람들의 고함소리와 이야기소리만 들려 왔었다 또 길에서 멀것이 떨어져 숲속에 깊숙히 들어가 길을 잃지않으려 조심조심 뛰어갔다

이튿날 저녁편이 되자 더 뛰어갈수 없었다 비틀비틀 걸어가며 나는 너무 다리가 쑤시고 아파 고함을 질르고 싶었다 그러나 고함질르는 것이 겁이나 할수없이 신음소리를 내며 가만히 울기만 했다 이때 아침 어두욱 넓은 들판에 집이 한채 보였다 나는 수풀속에서 빠져나와 그곳에 독일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치도 않고 단숨에 이집으로 내다라갔다 아무래도 좋았다 어찌도 배가 고프고 다리가 아팠던지 이곳에 독일사람이 있겠진 로씨야사람이 있겠진 무관했다 수풀속에 더 낡아 있을수 없었다 거기서는 죽었 는지 모른다 그때 나는 높고 검은 전신주 사이 넓은 들판에 외로이 서있는 그집으로 내다라 간것이었다 그러나 가까이 감에따라 이곳은 넓은 들판이 아니며 주위에 서있는것이 전신주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집터자리 데 남아있는 굴뚝이었다 독일사람들이 이곳에도 있다는것을 알았다 내가 구하고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무정한 수풀속에 들어가 그녀자와 아침에 우연히 만나게될때까지 그곳에 머물어 있었다

‖계속‖

먹지 아니하게=먹지 않게
끓지 아니하는=끓지 않는
적지 아니한=적지 않은
쓰지 아니합니다=쓰지 않습니다

제19제 "건느다"를 "건너다"로

여태까지의 철'자'법에는 "건느다"로 되여 있던 것을 큰사전에는 "건너다"로 고치여, "건느"를 어간으로 잡았던 것을 "건너"를 어간으로 잡았다。 이 까닭은 우리들의 언어의식의 반영인듯 하다。 그리하여 그 활용례를 들면;

옳은 것	틀린 것
건너고	건느고
건너나	건느나
건너더라	건느더라
건널	건늘
건너	건느어
건넜다	건느었다

위' 례를 보아서도 "건너다"의 어원적 어근이 "건느"임을 가히 알 수 있으며, 그 "건느"에 부사형토 "어"가 붙어 전성(轉成)한 어간―"건너"로 된듯하다。 그러면, 어근의 "ㅡ"소리가 주는 법칙을 말하고자 한다。

"ㅡ"소리 발음 규칙="ㅡ"소리는 그 발음할 때의 공명실(共鳴室)의 형상이 혀는 자연한 위치에 있고, 입은 거의 닫친 모양으로 되는 까닭에, 어떠한 모음을 발음할 때든지 이 공명실의 형상을 그 시발점(始發点)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ㅡ"소리 다음에 어떠한 다른 모음이 오든지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 전에는 "ㅡ"소리가 따로 나지 않는 것이 자연한 발음법이다。

이리하여 "ㅡ"소리 다음에 다른 모음토가 올 적에는 "ㅡ"소리는 내지 않는다。

× ×

어간의 끝 음절이 "ㅡ"소리로 끝난 말에 "아,어"가 와서 어우를 적에는 준대로 적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끄다(消)	꺼	껐다
쓰다(書冠用)	써	썼다
뜨다(離)	떠	떴다
크다(大)	커	컸다
트다(折)	터	텄다

× ×

어간의 끝 음절이 모음으로 끝난 말에 "이,아,어"가 와서 어우를 적에는 준대로 적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본 말		준 말	
(1)	뜨이다(離)	뜨이여	띄다	띄여
	쓰이다(書)	쓰이여	씌다	씌여
	보이다(示)	보이여	뵈다	뵈여
	꾸이다(貸)	꾸이여	뀌다	뀌여
(2)	가아(往)	가았다	가	갔다
	나아(出)	나았다	나	났다
	싸아(包)	싸았다	싸	쌌다
	따아(摘)	따았다	따	땄다
	보아(見)	보았다	봐	봤다
	오아(來)	오았다	와	왔다
(3)	건너(渡)	건너었다	건너	건넜다
	쑤어(粥)	쑤었다	쒀	쒔다

또한 다음의 말들을 틀리게 쓰기 쉽다。

이를테면;

	옳은 것		틀린 것	
(1)	되여(爲)	되였다	돼	됐다
	쇠여(過)	쇠였다	쇄	쇘다
(2)	쉬여(休)	쉬였다	쉐	쉤다
	쥐여(握)	쥐였다	줴	줬다

위' 례의 틀린 것은 방언으로서, 양성모음 "ㅚ"의 밑에서 종속적 관계를 가진 "여"가 그 양성의 영향을 받아 "ㅐ"로 되고, 음성모음 "ㅟ"의 밑에서 종속적 관계를 가진 "여"가 그 음성의 영향을 받아 "ㅔ"로 각각 요음(拗音)을 잃어 하는 현상으로서 어음의 음편상 다음과 같은 법칙을 가지여 온다。

ㅚ+ㅕ=ㅚ+ㅐ=ㅙ
ㅟ+ㅕ=ㅟ+ㅔ=ㅞ

음편상 "ㅙ,ㅞ"로 발음할 수는 있겠으나 철'자는 반듯이(正) "ㅚ+ㅕ,ㅟ+ㅕ"로 적어야 한다

제20제 "달갈"이냐 "닭알"이냐

복합명사 사이에서 "의"토는 구태여 발음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때가 많고, 또한 줄이므로 발음상 도리여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의"토 뿐 아니라, 어떠한 토든지 토를 줄이므로 소리가 도리여 예뻐지는 경우가 많다。 어음상 미화를 위하여서도 토를 줄이면서 형태주의적으로 표기한다。

복합명사 사이에 있는 "의"는 이를 생략(省略)할 수 있다。 이를테면;

본 말	준 말
소의 고기	소고기
닭의 알	닭 알
소의 가죽	소가죽
말의 갈기	말갈기

이리하여 원형표시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함이 없이 잘 표기 되였다。 그러므로 쇠고기, 달갈로 철'자함은 틀린 것이다。

(詩)

군중문화

푸른도표선

평양공대 한 병 헌

어느때나 힘차게
돌아가는 돌아가는
곱빼아 베르트우에
요란한 음향을 토하며
천정으로 뻗어올라
나를
승리에로 불러주는
사랑하는
나의 기대(機台)여

너와 함께 나는
정말
새 생활을 찾았구나

쉼없이 돌아치는
기대앞에서도
항시 노래부르구 싶은
마음―

도표선의 곡선은
가슴을 이글이글
불도가니마냥 타번지게하여

一〇〇〇로
끓어오르는 불길속에
휘황한 삶길을
나는 내어다 본다

모―터의 요란함이여
벨트의 줄뻗음이여
나의 젊음을
청년작업반에서 꽃피우며너니

오늘도
一六〇%
계획숫자 넘쳐 다했다

우로 우로
높아만 가는
도표선의
푸른선이여―



점심시간

흥남화약공장 진 선 종

우리손으로
곱게곱게 꾸민
공장 구내 소공원
거기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손풍금처럼 흘러나오고

나무그늘에서는
아름다운 목장계 녀공들의
점심시간 독보회가 한창이다
웃음소리 흐르다가 말고
꽃발처럼 모여앉은 선판계동
무들

베르트배―싱그를 창안한
모범녀공 영추동무의
목청―
샘물 흐르는소리 처럼
맑기도 하구나

저기 운동장에서는
사조실 누나들의
배구시합이 벌어져
쌧하얀 뽈은
푸른 창공에 둥 둥
마음처럼 가벼웁다

즐거운 곳이여
가슴벅찬 순간이여
소리높여 소리높여
자랑하고 싶은
나의 일터여

이윽고
싸이렝 소리
구내에 흐터져
우리는 다시
일어서 작업장으로 향한다

언제나
이곳에 살리라
승리를 위해
투지를 녀욱 가다듬고―

언제나
오늘의 행복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작업하면서도
창문원편으로 보이는
아담한 공원
일하는 우리를 위해
너는 더욱 아름다워라―

있는 문으로서 소위 정문이다。

出入門— 쇠문、유리문、널문으로서 밖에서 집안으로 들어갈 때 出入하는 현관문이다。

出入戶— 현관문이 아닌 문으로서 밖에서 안으로 出入할 수 있는 방문이거나 전'방문 따위다。

窓門— 窓이면서 門으로도 쓰이는 단간방 문이다。

出入口— 문짝이 딸리지않고 出入을 표시한 곳으로서 공장、경마경기장、운동장、정거장표적울데 따위다。

이상의 것들중 出入口밖에는 죄다 出入할 수 있는 곳에 문짝이거나 지게가 딸린 것들인데、우리들은 대화중이거나 문장중에서 창을 문으로 잘못 말하고、잘못 쓰는 경우가 흔하다。창이란 사람은 出入할 수 없고 바람이 통하거나 채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뙤창(空氣窓) 유리창(琉璃窓) 내리닫이(上下窓) 덧창(二重窓) 미닫이(推窓) 반닫이(半開窓) 영창(映窓) 여닫이(開閉窓) 벼락닫이(汽車窓)

제14題 "락랑"을 "악랑"으로

樂浪이라고 쓰고는 거의 다 락랑이라고는 읽으면서도 악랑이라고는 읽는 이가 별로 적은 현상이다。그러나 락랑이 아니라 악랑이라야 樂浪國號의 개념이 뚜렷이 나타난다。

우선 樂浪의 漢字 뜻을 풀이하면;

樂—(1) 즐가나、즐겁다의 뜻으로 "즐길 락"

(2) 풍류 곧 리듬의 뜻으로 "풍류 악"

그리하여、이를테면;

(1) 락원(樂園) 애락(哀樂)
락천가(樂天家) 희락(喜樂)

(2) 악리(樂理) 음악(音樂)
악전(樂典) 성악(聲樂)

浪— 물흐르는 뜻으로 "물흐를랑"

이리하여 예'사람이 보기에도 물결과(波)와 스스로 뜻을 달리하는 浪字로 써 현대과학적 술어인 리듬 사이클(音波)의 뜻으로 啓示한 것이 곧 樂浪인듯 하다。

락랑— 즐거움의 물흐름이라는 뜻은 국호로나、문장으로나、문법으로나 죄다 틀리였다。

악랑— 풍류'소리가 물흐름과 같이 樂浪이라는 나라의 위엄과 태평성대를 시위하며、구가하려는 의도로서 지은 국호일 것이다。현대적으로 풀이한다면 樂浪이라는 나라의 선정이 온세계에 그 이름을 떨침으로 말미암은 인민의 즐거움의 표현이 풍류로 써 즐기므로 그 풍류'소리가 음파를 타고 온세계에 시위한다는 뜻을 나타내려는 야심적 국호임에 틀림없었다。

평양 모란봉에 있는 국립 박물관에 가보면 시대표시에 樂浪시대를 죄다 악랑으로 표시하였으므로 락랑이 아니고 악랑임을 또한 넉넉히 증빙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일상적 언어생활에 있어서 한'자어에서 온 말들의 틀리기 쉬운 것을 다음과 같이 인례를 들어 보았다。

(1) 한'자음에 있어서 한'자를 두가지 소리로 읽는 것들

남북(南北)	패배(敗北)
당분(糖分)	사탕(砂糖)
륙일(六日)	류월(六月)
목단피(牧丹皮)	모란화(牧丹花)
목재(木材)	모과(木瓜)
부흥(復興)	회복(回復)
삭인(索引)	수색(搜索)
삼성(三省)	생략(省略)
상태(狀態)	상장(賞狀)
쇄도(殺到)	살인(殺人)
일체(一切)	친절(親切)
차례(茶禮)	다방(茶房)
침몰(沈沒)	심씨(沈氏)
폭동(暴動)	포악(暴惡)
폐색(閉塞)	요새(要塞)
하강(下降)	항복(降服)

(2) 한'자어로서 잘못 읽기 쉬운 말례

고도(高跳)	도약(跳躍)
교란(攪亂)	무술(戊戌)
분할(分割)	기치(旗幟)
비등(沸騰)	사수(使嗾)
위수(衛戍)	인멸(湮滅)
관할(管轄)	각별(各別)
총괄(總括)	뇌일혈(腦溢血)

제15題 "적다"와 "작다"

적다, 작다가 죄다 體小란 개념을 나타내는데에 예'적부터 쓰이였다。그리하여 小타는 古語에 적다, 작다, 족다로—

이따위 말들을 분리 못한채 혼용하여 왔으므로 여태껏 적다와 작다의 한계를 뚜렷이 모르고 함부로 쓰고들 있다。

적다	———	———	저그만치
작다	자그많다	———	자그만치
족다	조그많다	조금	———

그러면 적다나 작다의 對되는 말을 찾아보기로 하자。몸피(體積)가 큰 것은 크다요; 술(量)이 많은 것은 많다이다。

그러므로;

크다(體大)의 對 > 작다(體小)

많다(多量)의 對 > 적다(少量)

제16題 "모으다"와 "모이다"

모으다(蒐集) — 他動詞

모이다(會合) — 自動詞

◎ 모으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체를 일정한 처소에 어느 시간에 걸치여 수집하는 것이다。다시말하면; 사람이 모아 놓아야 모아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서 동무는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모으고 있다」

모으다— 모으고— 모아— 모았다

◎ 모이다— 여러사람 또는 어떤 동물들이 일'정한 시간에 어떠한 처소로 스스로 회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장터에 장'군이 많이 모이여온다」

「오늘 강연회에는 청중이 많이 모이였다」

「모이를 뿌리니 닭들이 먹으러 모인다」

모이다— 모이고— 모이여— 모이였다。

제17題 "맛있다"를 "맛좋다"로

과거 조선어에 있어서 인민 전체가 문'법을 체득하지 못한 관계로 말'글을 함부로 썼으므로 우리들은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나무가 말랐다」를 「나무가 죽었다」로

「초'불을 끄라」를 「초'불을 죽이라」로

「물을 마시다」를 「물을 먹다」로

「그두'기름」을 「구두약」으로

「모자 벗다」를 「머리 벗다」로

「비가 내리다」를 「비가 오다」로

말하는 따위인데 이것을 다시금 한'자어로 대조하면 잘 알 수가 있다。이를테면;

枯木을	死木으로	消燭火를	死燭火로
飮水를	食水로	靴油를	靴藥으로
脫帽를	脫頭로	降雨를	來雨로

와 같이 적을 수 없다고 보아지면、어찌하여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맛좋다」를 「맛있다」로

「맛나쁘다」를 「맛없다」로

대화하며、철'자 해서는 안되겠다。

음식을 마시거나 먹으면 어떤 음식에든지 그 맛의 좋고 나쁘고는 있을망정 맛의 유무란 마땅히 말이 못된다。랭수와 같은 맨물에도 맛의 좋고 나쁘고가 있거든 하물며 음식이랴? 무슨 음식에든지 단맛이거나、쓴맛이거나、신맛이거나、향긋한 맛이거나가 반드시 있는 것이지 맛이 없을 리가 없다。

제18제 "아니다"와 "않다"

"아니다"는 어떤 사건을 부정하는 지정형 부정사(否定詞)이다。그러므로 어떤 사건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능한 일을、가능한 사태로 추진할 수 없다는 거부의 태도를 표명하는데 쓰이는 말이다。이 말이 줄잡히여서 "아니"의 "ㅣ"가 줄어 "ㄴ"가 "아"에 받침으로 받치여 적으므로 "안"이 된다。그렇다 하여서、"아니다"를 "안이다"로 적음은 잘못이다。

또한 "아니다"와 비슷한 말로서 "못"이란 말이 있다。"못하다"는 어떤 사건을 추진하고자 하나 힘이 미치지 못하거나、불가항력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가능하게 할 수 없는 때에 표현하는 말이다。이를테면;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 말라」

「나는 바빠서 못가겠소」

다음에 부정사 "아니"가 분화작용하는 것들—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 말라」

「일하지 안하는 자는 먹지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아니하다 > 안하다 > 않다 로 분화작용—

위'례의 "아니"가 "안"으로 줄어、"아니"거나、"안"은 꼭 같은 부정하는 말이지마는 "않"은 "아니하다"가 "안하다"로 다시금 "하다"의 어간인 "하"의 "ㅏ"가 줄어、남은 "ㅎ"가 "안"에 받침으로 덧받치여、곧 "않"으로 표기하는데 이 "않"은 부정사적 어간이 된다。

그러므로、위'례는 죄다 꼭 같은 뜻이다。

그리하여、좀더 활용례를 들면;

보지 아니하고=보지 않고

읽지 아니하도록=읽지 않도록

갈(耕)지 아니하였던=갈지 않았던

1949년 7월 10일 인쇄
1949년 7월 15일 발행
북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청년생활」 값35원
편집겸 발행인 김 련 호
발행겸 인쇄소 평양 특별시 중앙리 20번지
청 년 생 활 사
전화 5712. 3749

◀조선어문통속강좌▶

틀리기쉬운말떼

박 종 주

—제三회—

제12題 "옛적"을 "예'적"으로

옛적이라고 철'자하는 옛은 古,昔의 뜻이고, 적은 時의 뜻이다。이와 같이 "옛"의 관형사(冠形詞)가 붙어서 된 말떼가 꽤 많다。

이를테면;

옛말 옛모습 옛이야기
옛날 옛어른 옛사랑

위' 말들은 죄다 관형사와 명사의 합성어이다。 그런데 각 명사는 죄다 그 어원이 뚜렷하지마는 관형사의 "옛"은 그 어원이 "옛"이 아니라 "예"인듯 하다。그 까닭은;

「내고향의 모습은 예나 이제나 조금도 다름 없다。」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민족어(民族語)를 뚜렷이 소유하였었다。」

「평양을 예전에는 왕검성이라고도 일컬었었다。」

이런 말들을 지금도 우리가 말하고 있다。

또한 古字나 昔字를

訓蒙字會에는 예고(古) 예석(昔)
光文會字典에는 예고(古) 예석(昔)

이라고 적히여 있다。

古,昔이란 예거나 옛이거나를 불문하고 그 어원이 무엇일까?

古語에 가다(往)의 뜻으로 "예다"란 말이 있는데, 이 "예다"라는 "예"에서 온 말이 듯 싶다。 그 까닭은;

예다(往)>예(名詞의 昔)
신다(履)>신(名詞의 履)
빗다(梳)>빗(名詞의 梳)

가령 이 견해가 옳다면 어찌하여 "옛"으로 관형사를 삼았으며, "옛"이 명사인듯이 흔히 알고 있는가? 하면, 그 까닭은;

모음으로 끝난 명사가 딴 명사와 어우를 적에 그 사이에서 소위 "사이된소리"가 나는 것은 "ㅅ"로 그 모음에 받치여 적었던 것이 재래의 표음표기주의적 철'자'법이였었다。 그러나, 이 "사이된소리"란 까닭없이 나는 것이 나다。순우리말에 있어서는 주로 명격(名格)토인 "의"가 줄잡힌 소리이다。 이를테면;

본 말 종래철'자 신철'자
예의 적 > 옛적 > 예'적
예의 말 > 옛말 > 예'말

이 명격토 "의"가 줄잡힌 말의 실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는 본란 제2제의 "ㅣ" 가 붙은 말떼가운데에서 순우리말로 된것은 거의 다 그러하다。 이를테면;

코의 등 > 콧등 > 코'등
등의 불 > 등불 > 등'불

이리하여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옛적이 옳은지 예'적이 옳은지 하는 판단이 나서게 하였으니, 금후에는 모름지기 예'적으로 적어야 옳을 것이다。

이와 꼭 같은 철'자로서 헛소문을 들 수 있다。관형사 "헛"은 虛字일 것이며, "ㅅ"은 사이된소리 현상이므로 이것도 죄다 형태주의대로 적어야 하겠다。

본 말 종래철'자 신철'자
虛所聞 > 헛소문 > 허'소문
虛間 > 헛 간 > 허'간
虛事 > 헛 일 > 허'일
虛言 > 헛 말 > 허'말

제13題 "문"과 "창"

우리들의 일상용어중에서 문과 창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그리하여, 종래에 써오던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다음의 어휘들을 풀이하련다。

大門—울타리에 달리여 만든 出入할 수가

국립 영화 촬영소 제작

My Home

예술영화 내고향

지도 ········ 주인규
씨나리오 ····· 김승구
연출 ······· 강홍식
제작 ······· 박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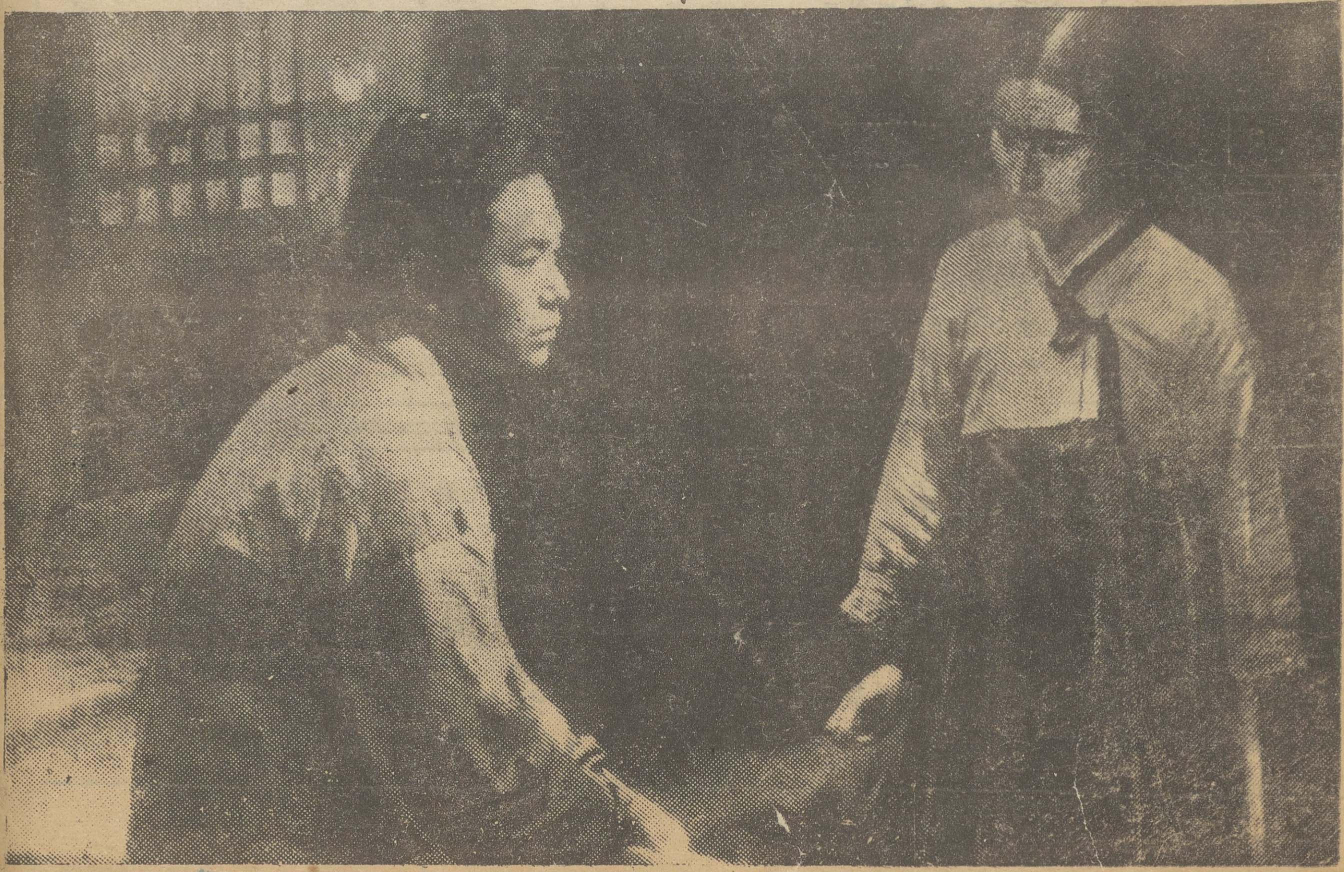
빨찌산에서 관필이는 용감하게 싸운다



빨찌산의 분대장으로 분장한 강홍식

◁ 배 역 ▷

관 필 ·········· 유원준
그의어머니 ······ 유경애
옥 단 ·········· 문예봉
김학준 ·········· 심 영
인 달 ·········· 박 학
최주사 ·········· 태을민



"우리는싸와야한다"고 서로 마음 다지는 관필이와 옥단。